

# PASTORAL CARE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

설교(요한복음 4:3 ~ 42)

Pastoral care란 무엇인가?  
사회 속의 Pastoral care  
Pastoral Care와설교  
C. P. E의 역사적 배경  
C. P. E의 내용

## 서병채

**PASTORAL CARE**

저자 / 서병채

초판 / 1995년 1월 ● 재판 / 2007년 5월

발행처 / 평신도목회연구소

등록 / 제22-1619호

## 목 차

감사의 글-지은이/ 7

약어표/ 8

서언/ 9

제1부 Pastoral Care/ 11

1. Pastoral care란 무엇인가?/ 13

2. 사회 속의 Pastoral care/ 19

3. Pastoral care와 설교/ 21

제2부 임상 목회 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27

1. C. P. E의 역사적 배경/ 29

2. C. P. E의 내용/ 38

3. C. P. E와 목회/ 43

4. 원목(Chaplain)/ 46

5. 자원 봉사/ 47

제3부 상 담/ 51

1. 목회 상담/ 53

2. 목회 상담의 근거와 배경/ 54

3. 클라인벨의 상담 방법/ 56

4. 상담과 행동 변화/ 73

5. 상담에서의 심리학적 측면/ 76

6. 상담과 영성/ 79
7. 상담에서 성서 사용/ 82
8.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83
9. 예수님의 상담/ 93

#### 제4부 죽 음/ 95

1. 임종자의 심리적 단계/ 97
2. Hospice Program/ 104
3. 형제 자매의 죽음/ 108
4. 죽어서 태어난 아기/ 112
5. 사례연구/ 114

#### 제5부 가 정/ 119

1. 노인 문제/ 121
2. 노인 목회/ 121
3. 결 혼/ 132
4. 청소년/ 136
5. 성(sex)문제/ 141
6. 동성연애(home-sexuality)/ 143

#### 제6부 심리학/ 147

1. 심리학적 인간 이해/ 149
2. 우울증/ 164

#### 제7부 기 타/ 173

1.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 175
2. “왜(Why me?)” 라는 질문/ 180
3. 학대(Abuse, 남용, 오용)/ 184
4. 기쁨/ 188

|                        |     |
|------------------------|-----|
| 결 론: 설교(요한복음 4:3 ~ 42) | 193 |
| 참고도서                   | 203 |
| 부 록(annotated)         | 211 |

## 감사의 글

이 책이 나오기 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격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분을 꼽는다면, 책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시고 책 제목결정을 위해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신 성결대학교 성기호총장님, 그리고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방면으로 수고해 주신 송용현목사님, 김인천목사님, 그리고 편집 및 교정을 도와준 최은경자매이다. 이 책이 시작되어 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들의 덕택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 있을 때 Pastoral Care의 관심에 도전을 주었던 두 분의 지도 목사님(CPE Supervisor), Rev. Muriel Carder와 George Grant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은 사실 캐나다에서 귀국하자마자 쓴 것이다. 그때에는 이런 내용이 생소하던 터라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강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리고 내 자신도 평신도목회를 접하여 사역하면서(7년째 사역) 많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Pastoral care에 대한 기본정신은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다.

그 당시 여름 내내 고향에서 책을 쓰도록 조용한 방과 분위기를 마련해주신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멀리 미국에서 성원해 준 아내와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보낸다.

제목은 한글로 옮기지 못한 것을 양해 바라며, 여러 가지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으나 책을 쓰기 시작할 때의 ‘동기와 의미’를 살려서 영문 그대로 표기한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07년 5월 평신도목회연구소장 서병채

<약어표>

AAPC - American Association for Pastoral Care

CAPC - Canadian Association of Pastoral Care

CPE - Clinical Pastoral Education

JPC - Journal of Pastoral Care

ORC - Oxford Regional Centre

PC - Pastoral Care

TIPE - Toronto Institute of Pastoral Education

WPH -Whitby Psychiatric Hospital

## 서 언

Pastoral Care에 관한 주제(Issue)는 너무나 많아 책한 권에 다 쓰기가 힘들다. 주제만 나열해도 수십 페이지는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Pastoral care에 해당되는 문제점들 몇 가지만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고, 차후에 다시 쓰게될 때 주제별로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본서에 넣은 노인 목회(Aging Ministry)만 하더라도 책 한권은 충분히 쓰고 남은 주제이다. 그러나 그 주제에만 집중할 수 없었으므로 간략 간략하게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는 형식을 띄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Pastoral care가 신학교나 목회 분야에 완전히 정착되어 유용하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느낌으로 한국의 신학교나 목회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주제라고 간주되어 소개 삼아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서구(특히 북미)에서, 교실에서만 하는 신학 교육이 현장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약점이 많아 그 점을 보완하자는 시도에서 Pastoral care가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취약점을 오랫동안 가져왔으며 또 고민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이런 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Pastoral Care와 더불어 C. P. 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 목회 실습)도 이제 도입되는 과정 같으므로 거기에 따른 제반 내용들이 점차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캐나다의 McMaster 신학대학원과 토론토 대학에서 Pastoral Care를 공부하며 또 두개의 C. P. E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갖지 못했던 도전을 받았고, 또한 그런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 책은 필자의 경험 50% 정도와, 학문적 이론 40%, 그리고 기타 내용 10%정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거의가 필자의 경험을 거친 내용들(Experimental learning)이라고 여겨진다.

Pastoral Care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겪고 부딪치게 되는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자가 갖고 있는 자료의 빈약성(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으므로)과 시간적인 관계로 몇 가지 주제만 다루었다. 아마 증보판에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소개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책이 좁게는 신학대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나아가 한국 신

학계의 학문적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사실상 책이라는 것은 난생 처음 써 보는터라 미처 눈치 채지도 못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을 줄 안다. 증보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격려를 바란다.

서 병채

제1부

Pastoral Care

## 1. Pastoral Care란 무엇인가? <sup>1)</sup>

우선 ‘목회자’하면 세 가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겠는데 Minister, Reverend, 그리고 Pastor이다. Minister라고 하면 직업에 관계되는 의미로 이력서의 직업란에 쓸 때 기록한다. Reverend란 말은 공문서 밑이나 명함 따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성직자’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Pastor란 말은 지역 교회(Local Church)의 목회자를 말하는데 주로 주보의 영문표기시에 Pastor라고 쓰는 것이 상례이다.

Minister란 말이 개념상 달걀의 껍질이고, Reverend란 말이 흰자위라면 노른자위는 바로 Pastor란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목회자의 진짜 의미는 지역 교회에서 실제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지칭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시편 23편의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할 때 ‘목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Shepherd가 하는 일을 Shepherding, Pastor가 하는 일을 Pastoring이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 Pastoral Care라 하겠는데, Pastoring의 결정적인 의미는 Caring(돌보다)이기 때문에 결국 두 말이 합해서 Pastoral Care란 용어가 탄생케 되었다.

1920~30년대 미국에서 신학교육이 단지 theory, 즉 이론 교육에 그쳐지고 뭔가 학문적으로만 치달고 있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발전되어 생긴 과목이 ‘Pastoral Care’이고 그러한 Caring Style의 목회 방법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며, 거기서 태동된 것이 신학 졸업반에서 실시되는 C. P. E(임상 목회 실습)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의 학문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희랍 식이 되어버려 이론, 사상, 지식 따위로 흘러갔고, 신학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식 전달에 불과했었다.

이 Pastoral Care가 미국에는 1950년~60년대에 자리잡았고 캐나다에는 20여년 전 쯤에 보급되어 이제 막 성숙 단계에 있다. Pastoring을 곧 Caring이라고 보는 맥락에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갖지 못할 때나 부족할

---

1) 이 글은 필자가 동해 삼척지방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이다.

때면, 교인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올바른 목회(Pastoral Care)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목회는 어디까지나 Pastoral Care가 되어 하는데, 학생의 본분(Primary)이 공부인 것처럼 목회자의 Primary는 Caring이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설교도, 성경공부도, 기도도, 또한 Management도 이런 맥락에서 행해져야 하며,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Pastoral Care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감리교신학교 Emory대학의 신약교수인 F. B. Craddock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서 Pastoral Care의 개념을 강조했다. “If there is no care, there is no church.” 즉, 교회와 Care는 불가분의 관계란 의미이다.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얘기는 아니다. 교회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야,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하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교회는 Pastoral Care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구의 신학이나 목회에 이 Care란 말이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지만,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뭘 좀 해라” 그러면 상대는 “I don't care”로 일축한다. “신경 쓰기 싫다”는 뜻이다. 또 하난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러면 “Who cares!”라고 한다. “신경 쓰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 안팎의 일에 대해 “I don't care!”라고 한다면, 사람들 역시 “I don't either”라고 말할 것이다. “If you don't, I don't..” Pastoral Care의 책임자는 먼저 현직 목회자들인 것 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목회 하는 분들이 “I don't care”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care 할 것인가?

외국에서, 어떤 한국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교인들 중에 가득 찼다. 문제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매주마다 사랑,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목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 준 게 뭐냐?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서 교인들은 흥분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인들을 사랑했고,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교인들의 반응은 “No, you don't!” 결국은 헤어지고야 마는 슬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번은 캐나다에서 영어로 된 저널을 봤는데 서울신학의 이상훈목사님께서 글을 쓰 셴다. 우리 나라 교인들의 지난 100년간의 신앙style에 대한 이야기 였는데, “우리 나라의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즉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습과 같다. 그렇기에 Promised land까지 앞에서 끌고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성공한 것이 지난 100년 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지났다. 개인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안정되었기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I am with you’하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목회자가 점점 필요해질 것이다”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심방과 Pastoral care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Pastoral care는 대심방 style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상담과도 전혀 다르다. 이것은 확실히 개인적인 Care(Individual)인데, 대심방도 물론 장점과 강점이 있겠지만 Pastoral care의 맥락에서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놓치게 되는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만남(목자와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Pastoral care는 상담과는 다른데, 상담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아오는 식인데, 물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식이었다. ‘오는 것과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직접 가 주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처럼 마음을 잘 여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서만은 안된다. 직접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Pastoral care에서의 견해이다. Pastoral care현장은 꼭 교회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어느 곳에서나 Pastoral care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들에게는 찾아가서 얘기하고, 필요시는 기도, 예배가 바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앉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그곳,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즉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수없이 많은 Pastoral care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선교의 영역에 제한을 받게 된다. Pastoral care에서 보면 spiritual이라는 것이 꼭 종교인, 비종교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아서 Entire Human Person, 인간의 모든 내면(feeling)을 영적인 것(spiritual dimension)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슬픔, 고독, 분노, 사랑, 즉 종교인이든 아니든지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종교적인 주제로 물고가지만 과정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이런 Pastoral care의 접근이 두 가지 있는데, “Thinking Level”과 “Feeling Level”이다. 다시 말하면 Pastoral care는 머리와 머리의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의 작용이라 보는 것이다. Thinking Level은 “완전주의자”와 같은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사건을 먼저 생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러기에 “맞다, 틀리다”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버린다. 이것은 학교 선생식이 되고, “Teaching Ministry Style”이 되어 그것에 만족하게 되고, “나는 나, 너는 너”식으로 끝나 버리므로 어떤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 못한다. 머리에서 맴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 버리는지 모른다. 효과적인 목회가 결코 되지 못한다. 캐나다에서 루터교 목사님을 한 분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철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컨콜디아에서 공부한 분이였다. 23년째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가르침”이나 “설교 목회”로만 이해하고 계셨다. 상담 마저도 가르치고 배우는 식으로 해왔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23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런 목회 철학을 Pastoral care개념으로 바꾸는데 다섯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개월이 걸렸다. 그것도 이제 막 눈을 뜨는 단계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목회의 대상인 사람을 머리만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상대하면 서로의 영혼이 만날 수 없고, 헤어지면 끝나 버리는 것이다. 필자도 처음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인 교수님이 “너는 머리는 발달되었는데, 가슴(feeling)은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목회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다.

한국 신학교는 “공부 공부”하면서 머리만 잔뜩 키워 놓고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머리만으로 해치우는 머리 계산형의 목회자, “맞다, 틀리다”식의 완전주의자(perfectionist)가 아니라, 자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슴으로 이해하는 목회자를 원한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교인들은 “We need you”그러는데, 목회자는 “Thinking Level”에 6하 원칙에 맞추어 따지고 있다. 막 죽어 가며 찾아왔는데, 몸은 꼼짝 않고 머리만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하는 것이 그런 목회자다. 캐나다의 루터교 목사

님께 말하길 "내가 평신도라면 결코 당신이 목회 하는 교회는 안 나갈테요"라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한참 당황하더니 몇 개월 후 헤어질 때는 내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다. 머리에서 머리로만 전달되는 모든 목회, "옳으냐 그르냐"만 찾게 되고 또한 그런 교인들만 역시 만들게 되고, 타인에게 감화나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혹시 교인들이 존경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인격이나 그 목회 철학에 감동되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돌아서서 쓴웃음만 짓고 만다. 수많은 목회자가 이런 슬픈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왜 예수님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care (individual care)했으며, 가슴으로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대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소한 일 (individual care)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목회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care할 수 있다.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혹은 생각은 있으나 절대로 몸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여섯 명의 목회자가 모이면 그 중에 두 사람만이 이런 P. C의 맥락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두 목회자도 이런 P. C의 개념을 배우고 터득한 사람들이었다. 머리와 가슴은 가까운 것 같지만 머리의 발달에서 가슴의 개발이란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필자도 알게 되었다. 빠른 사람은 수개월이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거나 어쩌면 평생 안될지도 모른다. 또한 P. C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주는 것(listening)이다. 거기에는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동정심(sympathy), 감정이입(empathy), 그리고 반론 제시(confrontation)이다. 일반 사람들은 대개 동정심에서 끝나 버리지만, 목회에서는 감정이입까지, 즉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interpersonal과 intrapersonal이랑 있는데, interpersonal은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intrapersonal relationship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둘 다 P. C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

P. C에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수천 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맞다 틀리다"식의 흑백논리는 버려야 된다. 물론 설교, 가르침, 심방,

행정 등 “doing”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에 말한 루터교 목사님도 23년 간 목회를 했지만 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약점을 지적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느낌이나 바램을 좀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목회자들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다.

마지막으로 P. C에서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인간 차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람을 차별하며 살아간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대상에 한계를 긋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순수한 Pastoral Care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 2. 사회 속에서의 Pastoral care

Pastoral Care는 주로 개인에게 관계되는 내용이기에 사회적인 요청에는 자칫하면 걸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P. C는 개인은 물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기에 그리 쉬운 주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를 향한 P. C는 쉽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접근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은 주로 회중과 사회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본다.

먼저 회중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 ①개인성장팀 ②직무연구팀 ③노출팀 ④창조팀 이렇게 나뉜다.

① 개인성장팀 - 이 팀에 속한 사람들은 매주 한번씩 규칙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인, 직업적인, 신학적인 문제 내지 관심들을 토론한다. 쉽게 이름을 붙인다면 ‘개인 성장’, ‘개인 개발’, 또는 ‘잠재적 능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지도 목사를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측면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② 직무 연구팀- 이 팀은 그렇게 생소한 그룹은 아니다. 이 팀이 하는 일은 표면상으로는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립, 청소년을 위한

전도 계획, 예배 순서 구성 등이다.

③ 노출팀 - 이 팀은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 고향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끼리의 모임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 이나 오해 등을 푸는 일이다.

④ 창조팀 - 사실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창조적인 일들을 발표한다든가, 또는 그것에 대한 격려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드물다. 이 팀의 하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질과 관심들을 서로 표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을 한다. 예배 순서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교회 안의 음악에 관한 것, 교회 내의 구조, 장식에 대한 생각들 등 여러 가지 창조적인 토론들을 할 수가 있겠다.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자질(talent)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룹들이 사회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목회자 혼자로서는 그 많은 요구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부담치는 문제가 많다.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sup>2)</sup>, 교회의 역할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러한 연구 결과를 “The Edge of the Ghetto”라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또한 교인들이 사회의 각 기관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회가 사회 기관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① 우선 사회 기관으로부터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시각적인(Visible) 노력을 보이게 되고,

② 사회의 생활이 곧 교회의 생활을 포함하게 되고, 또 사회문제나 관심이 곧 교인의 관심을 사게 되고,

③ 교회가 사회 활동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④ 교인들간에 이런 사회문제로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

2) Eric D. Johnson, ‘Social Pastoral Care in the Urban Setting’,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32. (New York: AAPE, 1978), P. 253

⑤ 사회와 교회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여 쌍방이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 역할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회중을 대표해서, ‘능력 있는 사람(enabler)’으로 사회에 부각되며,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교인이 이런 분위기에 협조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땀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코치(coach)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회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개인적인 P. C 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 3. Pastoral care와 설교

설교자들은 그의 회중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회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사가 그것들에 관한 설교들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이 바라는 설교 중에는, 예를 들어 죽음에 관한 것, 슬픔으로 인한 고통, 질병, 감정 손상, 자신감을 잃은 것, 침체, 결혼 문제, 불구자 인생, 은퇴 후의 염려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설교자들은 회중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in trouble)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도울 수가 있다. 사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헤맬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위기에 관해 몇 가지 설교를 간단 간단히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 ㉠ 죽음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이란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다.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 각자의 특수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죽음이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죽음이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어떤 죽음이 오랜 질병이라든가, 나이 들어, 전쟁 또는 사고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죄악(evil)이 아니다. 죽음이란 확실히 우리 육체 활동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 후에 우리 육체는 듣고, 걷고, 말하고 하는 일은 전연 없다. 같은 의미에서 죽음 후에는 육신적인 고통, 슬픔, 괴로움 같은 문제들이 전혀 안 일어난다. 반대로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란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 ㉞ 병들었을 때

신명기31:6-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완전한 건강을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용기와 강한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원시적인 개념으로 치료는 어떤 샤머니즘(Shamanism)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이런 개념이 오늘날 “기적적으로 고침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인한 치료(healing)는 그런 미신이나, 마술 또는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sup>3)</sup>. 예수님의 목회 역시 병 고치고는 일이 많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사람들은 대개 기도와 믿음이 있었던 사실들이었다.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클라우드 포크너(Dr. Claude Forkner) 의과 교수도 말하기를 “때로는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도 모를 때가 많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믿음이라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sup>4)</sup>

#### ㉟ 감정이 몹시 상한 사람

3) Leslie D. Weatherhead, *Psychology Religious and Healing*(New York: Abingdon-Lokesbury Press, 1951), p. 274.

4) Arthur L. Teikmanis, *Preaching and Pastoral Care*(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4), p. 47

요한복음 8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정이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그 상처는 매우 깊을 수가 있다. 진실의 부족,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과 대화의 단절 등으로 연결 되기도 한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염려, 죄의식, 침체 등이 가장 근원적인(deep-seated) 이유일 수도 있다. 어떤 아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우리는 정말 아들을 원치 않고 딸을 원했는데”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일생 동안 그 상처가 계속 괴롭혀 왔다고 한다.

어릴 때 몹시 마음 상했던 일들은 그림자처럼 늘 괴롭히며 따라 다니지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다. 더구나 그의 부모들도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성격이 더 거칠어지기 보다는 겸손하고, 인내하고 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 ㉔ 술 마시는 사람

잠언 20 : 1-“포도주는 교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첫째로는, 가끔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다. 술이란 것이 그의 생활의 일부이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는, 술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술이란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술병 없이는 그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가정, 경제, 직업 등등 모든 영역을 술로 해결하려고 한다.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목발이 필요하듯이 술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

셋째 유형은 술중독자이다. 술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술을 마셔야 산다. 술에 관해 거의 환자나 마찬가지이다.

술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술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진정제이다. 또 약간씩 마시는 것은 사회 활동에 매우 유익할 때가 있다. 긴장을 풀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취한다는 것보다는 진정제의 역할이다.

성격이나 건강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뇌에 문제를 준다. 그렇게 되면 행동이 무모해지지만 자신은 말짱한 걸로 생각한다. 걷기도 힘들어 지고 갑자기 성내고 또 갑자기 울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더 마시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둔해지고 더 마시면 전반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어 가면서 고통 없이 죽는 것과 같이되어지는 것이다. 술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와 불행은 헤아릴 수가 없다.

#### ㉔ 결혼에 관한 것

시편 127 : 1-“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issue가 되고 있다. 이혼은 숫자로 계산 안되리 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결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패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받은 좋지 못한 영향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한다<sup>5)</sup>.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만약 우리 결혼이 성공하면 같이 살고, 안되면 이혼할 것이다." 즉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시작한다.

성(sex)에 관한 차이 때문에 결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쪽은 성은 환상적이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쪽은 성은 거룩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본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혼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것은 모든 사랑(에로스, 필리아, 아가페)위 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사랑이란 것은 나무 가꾸듯이 늘 가꾸고 자라게 해 주어야 한다. 일할

5) Similey Blanton, *Love and Perish*(New York: imon & Schuster, 1956), p. 29.

때나 설 때나, 시장 가거나 자녀를 가르치거나 모임에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미래의 설계나 과거에 대한 토의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아무튼 모든 면에서 사랑은 가꾸어져야 한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결혼에 문제가 있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했다는 구체적으로 해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사랑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이성적으로 인도되어지는 가는 가정이 서로 오래 같이 살 수 있고, 또한 행복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① 나이 들어가는 것

벧후 3:18-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웃음이란 것은 늘 간직할 수가 있다. 더구나 유머감각은 우리의 육체와 감정을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한 웃음은 때로 우리의 무거운 감정이나 자신의 연민 등을 극복하게 해준다. 웃음이란 것은 또한 우리의 눈에서 필요 없는 눈물들을 씻어 주고, 보다 더 나은 꿈과 미래를 보게 해 준다. 그것은 또 염려와 긴장감을 해소시켜 준다.

비타민은 좋은 것이며, 원기왕성을 위해 먹는 것은 가끔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웃음이나 유머보다도 더 나은 약은 없다. 유머를 통해 서먹서먹한 인간 관계의 담이 무너지고, 우정이 쉽게 생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웃음과 유머 감각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들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신의 고통 문제 따위에 대한 생각은 줄여 가며, 남에게 발생된 고통과 문제들을 들을 수 있는 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고, 늙어 간다고 슬픔이나 절망 같은 것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나 영원에 대한 소망을 점점 꽃피워 가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보며 간략하기로 한다.

제2부

C. P. 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 1. C. P. E의 역사적 배경

임상 목회 실습(C. P. E)의 출발점은 1925년 목사였던 안톤 보이슨(Anton T. Boisen)<sup>1)</sup>이 메사추세츠주의 웨세스터(Worcester)주립병원에서 신학생을 위한 여름 임상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했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시도가 일어났는가?

1920년 미국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때였다. 왜냐하면 정통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 그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존 듀이의 진보주의(혹은 실용주의)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은 1950년대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영향이 신학교에도 미쳐 전통적인 신학 교육에 의한 목회 훈련만으로는 복잡해가고 다양화 되어가는 인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하겠다는 대각성이 일어났다.<sup>2)</sup>

이런 이론들이 제기되고 개발되어 드디어 1923년에 의사이며 성공회평신도인 윌리엄 켈러(William S. Keller)가 여름방학 중에 성공회 신학생 다섯명을 자기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낮에는 병원에서 사회사업가로 일했고, 밤에는 임상학에 관한 강의를 하며 그들의 작업에 대해 토의해 왔다.<sup>3)</sup>

1940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교육은 목양적 목회를 위한 사회 훈련과 종교적 실천의 수련과정으로 확산되었다. 이 기능은 목회와 사회적 훈련을 결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웨세스터 병원의 원목이었던 보이슨(A.T. Boisen)은 자신의 정신병의

---

1) 안톤 보이슨(A. T. Boisen)은 1876년 미국 인디애나주 부밍 톤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H. B. Boisen)는 독일에서 이민온 현대 언어학자였다. 자세한 것은 뒤에 더 소개될 것이다.

2) 방태화, *목회를 위한 임상교육에 관한 연구*(서울: 한신대학원 석사논문, 1986), p. 9.

3) Hiltner, Seward, 'Fifty Years of C.P.E', *JPC* VOL.229. No. 2 (1975), p. 91.

경험을 살려서 신학생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했다. 그의 첫째 관심은 학생들이 신학공부를 하는 데 있어 “살아 있는 인간 자료(living human document)”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근본의 문제에 대해 그들 자신의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그는 새로운 신학을 주장했다기 보다, 단지 신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학도들이 그들의 학문적 수련의 일부분으로서 병원에 와서 지도를 받으며 수련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선생들이 실제적이고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또 생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았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책보는 시간만큼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 자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임상학적 경험(clinical experience)이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sup>4)</sup>고 피력했다.

이러한 실험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준다.

첫째, 신학생들이 병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전문가들의 지도에 따라 각종 사례들을 정리하게 되어 환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적 운동들이 계속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각 신학교와 기관들로부터 선발되어 수준 높은 임상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실시해야 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930년 1월 21일에 신학생 임상 훈련 협의회(The Council for Clinical Training of Theological Student)가 발족되었고, 1944년에 전국 임상 훈련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Clinical Education)가 피츠버그의 웨스턴 신학교에서 발족되었으며, 1957년에는 C. P. E의 잡지인 "The Journal of Pastoral Care"가 간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AAPE(American Association for Pastoral Education)

---

4) Anton T. Boisen, *The Explanation of the Inner World*(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1), p. 253

이 있고, 캐나다에는 CAPE(Canadian Association for Pastoral Education)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필자가 교육받은 캐나다 토론토에는 TIPE(Toronto Institute of Pastoral Education)가 있으며, TIPE는 U of T(University of Toronto)와 TST(Toronto School of Theology)의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임상 목회 교육의 선구자인 두사람 캐봇과 보이슨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자세히 소개함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1) 캐봇(Richard C. Cabot)

캐봇은 하버드 대학교의 내과 의학도였고 후에 그 대학에서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을 강의한 유니테리안 평신도 의사였다. 신학 교육이 의학에 의해서 정면으로 도전 당한 것은 캐봇에 의해서였다<sup>5)</sup>.

1924~25년 에피스코팔(Episcopal)신학교에서 그는 웨세스터(Alfred Worcester)의 협조를 받아 목회의 임상적 차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신학교들이 의학이나 사회사업 차원에서의 목회 훈련이나 실습을 전혀 다루지 않는 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느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사회사업이나 심리학의 일부가 아니라 목회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으로서 임상 신학(Clinical Theology)의 개발을 촉구하게 되었다.

캐봇의 학문 세계는 의학으로부터 윤리학,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임상 훈련과 더불어 앤도버 - 뉴턴(Andover - Newton) 신학교의 교수 생활을 함으로써 신학으로 이른다. 그는 의학으로부터 습득한 진단적 방법론을 부각시킨다. 임상 목회의 최종 도달점은 성장이다. 이 성장은 곧 윤리적 완성점이다.

그는 임상 훈련이 신학생들로 하여금 영혼의 성장 경계 (Growing of the Soul)를 분별하게 하려는 것<sup>6)</sup> 이라고 말한다. 성장의 중요한 방해물은 자기기만(self-deceit)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5) 이기춘, *목회 임상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부설 한국선교교육원, 1993), p. 24.

6) Holifield, E. B.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p. 235.

기만을 노출하고 진실과 만나야 한다. 진실과 생생하게 만날 때 윤리적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sup>7)</sup>.

그는 질병이나 손상보다도 건강과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견해가 바로 C. P. E에 적용되었는데, 그의 견해를 따른 학파가 보스톤학파이다<sup>8)</sup>. 캐봇의 사상은 보스톤학파의 한 사람인 딕스(Russel Dicks)에 더욱 발전되었다. 딕스는 결핵 경험을 통해 병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전임 원목으로 일하였다. 그는 방문 보고서(verbatim)작성과, 모든 대화의 내용 기록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캐봇의 도덕 사고에 대한 응용 기술이었다.

그가 캐봇과 공저한 "환자에 대한 목회술 (The Art of Minister to the Sick, 1936)<sup>9)</sup>"에 의하면 치유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치유의 힘이 내재해 있다. 목사(상담자)는 이런 힘을 환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하여 추진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환자들이 자신의 "성장 단계"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직접 청취"이며 "침묵(quietness)"이다. 딕스에 의하면 상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따라서 상담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캐봇과 딕스의 차이가 나타난다. 캐봇은 윤리학자로서 상담을 대체로 의지에의 호소라고 생각했으나, 딕스는 "자신의 성장의 경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딕스는 판단 없이 묻고, 듣고, 믿어 주는 것이 그들 스스로 창조적 책임감(creative responsibility)을 가지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했다.<sup>10)</sup>

결론적으로 캐봇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배양을 통한 윤리적 자아의 성장이 목회자의 과제라는 것이었고, 딕스는 이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방법, 곧 경청과 기록 작성을 적용시킨 사람이다. 캐봇은 1928년 엔도버-뉴튼 신학교에서 임상 신학을 강의하면서 엔도버를 C. P. E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다.

7) *Ibid*, p. 236.

8) 보스톤 학파는 보이슨을 따르는 뉴욕학과와 구분된다. 이들 학파의 차이는 보이센에 대한 얘기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9) Holifield, *op.cit*, p. 237

10) *Ibid*, p. 242.

그가 “목회 능력(competence in ministry)” 배양을 목표로 의학적 방법론을 C. P. E에 적용한 것은 바로 임상 목회 교육 운동의 교육적 지표를 설정했던 것이다.<sup>11)</sup>

## 2) 보이슨(Anton T. Boisen)

평신도 의사였던 캐봇과 달리 보이슨은 목회자였다. 그는 웨세스터 주립병원의 원목으로서 C. P. E에 발전된 체계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한 선구자였다.

37년간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 당했고, 두 번씩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이슨의 임상 목회는 철저히 체험적인 것이다. 정신 질환을 일으키게 했던 자신의 성장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는 종교심리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정신 질환을 일종의 종교경험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그는 캐봇의 영향을 받았지만 캐봇의 C. P. E가 “목표능력”이라는 교육목표였던 것에 반해, 보이슨은 종교경험(religious experience)의 심리학을 목표로 타학문과의 합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였다.<sup>12)</sup>

제임스(William James), 코(George A. Coe), 홀트(Arthur E. Holt), 캐봇에 의해 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그는 종교경험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그가 캐봇으로부터 받은 사례 연구는 신학 교육 모델과 종교경험의 탐구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그는 종교적인 관념 작용과 정신 질환에 의한 행동의 의미를 “참여적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라는 경험적 방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단지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 저서인 *내면세계의 탐험(The Experience of the Innerworld, 1936)*과 *위기와 관습의 종교(Religious in Crisis and Custom, 1945)*는 모두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창조적인 종교경험으로 연결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정신 질환으로 변한다는 가설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sup>13)</sup>.

정서적 붕괴는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경험은 새로운 인격

11) 이 기춘, *op.cit.*, p. 48.

12) *Ibid.* p. 50.

13) *Ibid.* p. 52.

의 결합이든지 아니면 내면세계 전체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sup>14)</sup>. 그의 입장에서 볼 때 C. P. E.는 죄와 구원에 대한 연구이다. 그가 연구했던 고통 당하는 영혼은 “살아 있는 인간 자료”였다. 정신분열증의 고통은 다른 생물적인 성장 과정보다는 더 명확하게 인간 인격(human personality)에의 통찰력을 제공한다<sup>15)</sup>.

보이슨과 심리학자들로부터 방법을 도입한 목회 임상 학파가 뉴욕학파인데 कै봇의 보스톤학파와 구별된다. 보이슨과 뉴욕학파는 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심리학에 근거하여 인식하려는 견해였고, कै봇과 보스톤 학파는 건강한 모든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뉴욕학파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최근의 심리학적 자료를 목표로 하는 반면, 보스톤 학파는 일반적 도덕 성장을 통한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한다. 뉴욕학파는 내적 자아의 혼란으로부터 영감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슨의 윤리는 कै봇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자아 조절(self-control), 자기훈련(self-discipline)은 보이슨의 전 생애를 통해 노력한 것이었다. 다만 보이슨은 정신질환을 보다 높은 사회적 충성(Higher Social Loyalties)에로<sup>16)</sup>의 성장이 실패와 그 실패를 초월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 그는 정신병자들의 상처받은 상징적 비전은 자아 이해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다<sup>17)</sup>.

이제 살아 있는 인간 자료인 보이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920년 10월 9일 토요일 늦은 저녁, 보이슨 목사는 6명의 경관들에 의해 정신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43세의 노총각 목사를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으로 진단하고 전혀 회복될 가망이 없

14) Holifield, *op.cit.*, p. 245.

15) *Ibid.*, p. 245.

16) 여기에서 충성(Loyalty)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 혹은 집단과의 동일성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의미한다. ‘본래적 충성(Primary Loyalty)’부모와의 관계에서 복잡하고 두려워하며 애정을 갖는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 또 ‘궁극적 충성(Ultimate Loyalty)’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의해 상징화된 전체 사회와의 동일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 혹은 사회의 종교나 관습 등을 내 자신이 그대로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며, 이 충성을 거부할 때는 반항이나 분열(정신 질환)로 표현되는 것이다. *A.T.Boisen, The Exploration of Inner World*, pp.304-305.

17) Holifield, *op.cit.*, p. 246.

다고 결론지었다.<sup>18)</sup>

그는 그후 일생을 정신병원의 환자와 목사로서 지내야 했고, 정신 병원은 그의 거처이며, 근무처가 되었다. 그는 차츰 발작 상태로부터 회복되었지만, 일생 동안 갈등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목회 임상 훈련의 핵심 요소를 영감 받았고,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견해를 창출할 수 있었다.

수년후 보이슨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미친 사람으로 정신 병동에 내던져진 것은 비극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였다.”<sup>19)</sup>라고 말했다. 보이슨은 40세 중반까지 자신의 진정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언어학, 임상학, 신학을 차례로 공부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그가 “잃어버린 광야(The Wilderness of the Lost)”를 여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임상 목회 훈련의 창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문과 직업을 전전하다가 1911년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까지 장로교 국내선교국에서 미조리주와 테네시주의 농촌 교회와 학교 실태 조사에 참여했고, 캔사스, 마인 등지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지 못한 목회를 했다. 그후 1차대전시 미육군과 유럽에서 2년을 지냈고, 후에 북 다코타(North Dakota)농촌 실태 조사 책임자로 일했다. 이렇게 사회적, 또는 종교적 상태를 알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목회를 대신하는 삶 속에서 그는 무언가 자신이 공헌할 것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항상 새로운 목회 방향을 찾고 있었다.

이런 중에 1920년 보스톤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되었고, 다시 웨스트보로(Westboro)주립 병원으로 이원되어 그곳에서 15개월간 환자로 지내야 했다. 2주일 동안의 심한 발작 후에야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적이고 잘 훈련된 그의 성품은 즉시 작업을 개시하여 입원 기간 동안 심한 발작이 재발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종교 심리학을 훈련받은 목사에게도 있어서 이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서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자

18) Henri J. M. Nouwen, 'Anton T. Boisen and Study of Theory through Living Human Documents,' *Pastoral Psychology*, Vol. 19, Sept. 1968, p. 50.

19) A. T. Boisen, *op.cit.*, p. 1.

신(living document)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의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의 정신 질환이 세포 조직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교 경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신병자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가장 크게 실망을 느낀 것은 목사 교육과 연구(사례 규명)가 점차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며 이 간격의 차이는 결국 쌍방에 심각한 해(harmful)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신학의 새 방법을 제시한 것이 “살아 있는 인간 자료”의 연구이다. 보이슨 자신이 세밀하게 연구, 조사된 첫 인간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 발전되어 온 C. P. E의 목적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번째는, 한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주체성(self-identity)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둘째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요구에 이끌려 가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목회자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그룹의 일원으로서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으며,

셋째로는, 신학을 생활 과학(science)과 통합시키게(integration)하는 데에 있고

넷째로는, 인격의 상호관계를 건전하게 맺게 하는 데 있으며,

다섯째로는, 신학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여섯째는, 감독을 통한 배움이다. 개인적인 감독(individual supervision)을 통해서 인간의 생활을 목회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20)</sup>. 이것들은 장구한 이론보다는 실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experimental learning)이므로 가능한 실습

---

20) Richard Dayringer, 'Goal in C. P. E.' *Pastoral Psychology*, Vol. 22, No. 213

을 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주선했어야 한다.

## 2. C. P. E의 내용

C. P. E에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 우선 두 종류의 살아 있는 인간 자료가 만나진다는 것이다. 즉 환자와 학생(two living human documents)이 그것이다. 그래서 학생 자신의 인식, 들어주는 능력, 염려(anxiety)따위가 C. P. E 경험의 일부가 된다. 즉 방문 보고서(목회 면접 기록, verbatim)가 큰 도구의 역할을 한다<sup>21)</sup>.

다음에는 피어 그룹(Peer-Group)이라 하여 같이 훈련(교육, 실습)하는 친구들을 말한다. 서로 도와 주고, 관찰하고, 또 서로의 다른 관점을 나누는 것이 C. P. E의 남다른 경험이라 보겠다.

Peer-Group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험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어떤 태도나 자세로 group의 일원이 되느냐에 따라 효과 있는 C. P. E 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판가름난다.

<별지 #1>

---

21) 별지 #1, 2 참고, 방태화 논문, p. 42, 49.

## 목 회 면 접 기 록

날 짜 \_\_\_\_\_

일련 번호 \_\_\_\_\_

상담자 \_\_\_\_\_

전문가의견 \_\_\_\_\_

### 1. 이미 안 사실들

면접 전에 들은 사실적 정보를 요약한다.

면접할 사람, 상황, 경우를 묘사한다.

### 2. 준 비

사실을 알고 방문을 위한 준비를 하라.

해서는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기대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열거하라.

상대방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 3. 관 찰

만나자마자 무엇을 발견하는가? 상대방의  
형편은 어떠한가? 몸가짐, 손짓, 얼굴  
표정과 태도, 흥분 여부, 침착성, 침묵  
의 자세

등을 주의 깊게 보아 두라.

### 4. 면 접

면접하면서 기록할 수는 없으나 면접 직후  
중요한 단어의 줄거리를 적어둔다.

3인칭 요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문고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구에 넣  
어 정리하라. 말이 아닌 의사전달도 괄  
호 안에 표현해야 한다.

|                                                                                                                                                                                                                                                                                                                                        |  |
|----------------------------------------------------------------------------------------------------------------------------------------------------------------------------------------------------------------------------------------------------------------------------------------------------------------------------------------|--|
| <p>5. 결 론</p> <p>1) 분석 - 무엇이 일어났는지 분석한다. 여러 가지 생각, 반복, 잠재적 암시, 무의식의 노출 등을 정리한다. 얻어지는 통찰력과 나에게 잡히는 해석을 열거해 본다.</p> <p>2) 비판 -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비판한다. 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점을 열거하라. 반복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p> <p>3) 기회 - 차기 상담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록한다.</p> <p>4) 시간 - 면접시간을 분으로 정확히 표시한다. 다음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힌다.</p> |  |
|----------------------------------------------------------------------------------------------------------------------------------------------------------------------------------------------------------------------------------------------------------------------------------------------------------------------------------------|--|

## 4 면접

상1 : (상담자, 이하 “상” 라고 약함) 안녕하세요, 원목실에서 왔습니다.

보1 : (보호자, 이하 “보” 라고 약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상2 : 우리 김씨 아주머님은 좀 어떠신가요? (환자 옆으로 다가섰다. 환자는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찡그린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직도 많이 아프시지요?

환2 : 감각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천천히 말을 했다)

상3 : 참으로 고통스럽지요? 수술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아직 힘드실 거예요. (보호자들이 가족 같지는 않았다) 보호자 되시나요?

보3 : 같은 교회 교인이어요.

상4 : 그럼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4 : 따님이 오셨는데....(이때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저기 들어오시네요.

상5 : 안녕하세요, 원목실에서 왔습니다.

딸5 : 안녕하세요.

필자도 두번의 C. P. E를 통해, 12명(각 6명씩)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많다. 지금도 그들의 충고가 생생하며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도 목사(supervisor)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인 지도(supervision)에 따라서 얼마나 보람된 C. P. E를 가졌었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trained and certified supervisor)이므로 약간씩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더없이 훌륭한 분들이다<sup>22)</sup>. 그들의 역할은 가르치기보다는 안내하고, 시정을 제시해 주고,

22) C. P. E.의 Supervisor가 되려면 최소한 2년은 Full-Time으로는 훈련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약 100여명 정도의 Supervisor가 있는 걸로 기억한다.

도전을 주고, 때로는 해석(interpretation)해 주기도 하는데, 특히 개인지도 시간은 꼭 유익하다. 교육받는 동안(3개월 full-time, 하루 8시간, 주 5일)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번에 한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검토, 시정, 지도해 준다. 사실 일반 신학교의 교육도 이런 개인지도 시간이 자주, 또 많아야 될 줄로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관찰-실습-평가(observation-participation-reflection)의 과정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하고 또 상담해 주고 돌보아주는 기술(skill)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특히 Role-Play라는 게 있는데, 실제 상황(경험)을 그대로 재현해 보임으로 친구(Peers)와 지도 목사의 시정과 충고, 조언 따위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론과 실재가 부딪치는 과정이므로 배우는 것이 많다.

그러면 C. P. E가 신학 교육과는 어떤 관계일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우선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터득하게 된다. C. P. E의 실습은 계속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재확인시키는 데 집중한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사회 어느 기관 요원의 역할보다도 독특하기(own unique professional identity)때문이다. 그러므로 C. P. E의 목적은 professional한 목회자(professionalization for pastoral ministry)를 만드는 데 있다.

둘째로는, 자기 자신 이해(self-understanding)라고 보겠는데 자신의 성장(self-growth)이 또한 그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남을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돕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급선무라 생각된다.

또 하나는 좀 더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한 것이라 보겠다. 이런 교육방법이 목회에 꼭 효과적이라는 것이 6, 70년의 C. P. E실험을 통해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3. C. P. E와 목회

앞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목회 자체와 연결시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대부분의 북미 신학교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에게(M. Div) C. P. E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 자신은 그것을 이수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두개를 하느라 1년 가까이 걸리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것들이 다시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고 생각할 때 그저 귀하게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어떤 한 외국인 친구는 C. P. E.를 마친 다음에 그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필요없는 것처럼 결론지었다. 또한 어떤 친구들은 신학수업중(3, 4년)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고들 표현했다. 그러면 도대체 C. P. E는 목회와 어떤 관계이며, 또한 그것이 정말로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 우선 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 목회자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뢰(trust and confidence)관계를 수립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는 목회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교회라는 기관과 회중과의 신뢰성 수립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청중이나 교회라는 범위를 넘어서 세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issue는 아니다. 그러나 목회에 펍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 세계 속에서의 목회자 편만한 느낌을 갖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나 회중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과 목회자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C. P. E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교육 분야, 윤리 분야, 그리고 학문적 배경이 다른 분야를 접하게 된다.

㉢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C. P. E 기간에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스트레스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C. P. E를 통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inner conflicts),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고통들을 잘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표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신학자로서 그리고 사상가(thinker)로서의 목회자를 만들어 준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사상(thought)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신학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 또 거기에 맞게 도와주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 P. E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조명(theological reflection)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자료로서는(resources) 이 신학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사실 C. P. E의 모든 상황을 신학적으로 항상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㉔ 목회자의 개인적인 서약(서원, 소명감, commitment)을 재확인시켜 준다. 소명감(calling consciousness)을 재확인케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C. P. E의 현장 경험을 통해 그룹 토의 시간에 서로 토론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소명감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소명감에 대한 확신의 여부에 따라 목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전폭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목회에 바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㉕ 지도자(leader)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자도자로서의 자질(leadership)과 행정가로서의 업무는 목회에서 상당히 비중이 크다. 물론 C. P. E의 현장과 일반 목회 현장은 다소 다른 데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면 역시 일반 목회에도 유용하게 되리라 본다.

지휘력 내지 통솔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또 목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회중을 잘 알고, 어떤 것에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회중들과 평신도 지도자급들 사이에 항상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서로가 교회의 한 가족이며,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암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들의 생활에서, 또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결과(outcome)도 예상케 해주는 일도 가치있는 일이다. C.P.E 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또 터득하게 된다.

㉖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as a person)의 목회자

상을 정립시켜 준다. 목회자가 한 인간으로서(personhood)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C. P. E 의 큰 과제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서가 아닌 자신을 수용(self-acceptance)하는 것이며,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과 또 책임성을 깨닫고 늘 목회기술을 개발해가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또한 타인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남을 상대하며, 사람들의 부정적인 응답을 창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목회가 꼭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늦음을 인정하고(acceptance),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주체성(personal identity)과 목회 역할(pastoral role)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변화를 시키려고 시도한다든가, 또한 가족들과 배우자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종파 문제(denominational identification)등이 있다고 보겠다.

C. P. E 를 통해 목회에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 펍 많다. 그러나 두개의 현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만한 수고와 땀이 있어야만 무난히 연결될 수 있다. C. P. E는 반드시 목회 현장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사용되어야만이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 4. 원목(Chaplain) - C. P. E 실습생으로서

원목에 관한 몇 가지 issue들을 적어 본다. 원목(C. P. E학생)이 서야 할 자리에 관한 문제인데, 병원내에서 늘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물론 full-time 원목이 있는 병원인 경우 C. P. E 학생들이 조금은 안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C. P. E학생은 full-time 직이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늘 상주하고 있는 원목(Chaplain)의 경우도 가끔 위치가 애매할 때가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자리나 위치가 Chaplain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Medical Team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가. 똑같은 Team Member로 간주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랜 숙제로 있어 왔던 것이다.

C. P. E학생들 역시 병원에서의 활동이 쉬운것만은 아니다. 환자들 자

신도 신학생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신학생 자신들도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병실을 들어가야 할 때가 많다. 환자들이라고 늘 C. P. E 학생들을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생들은 가치 있는 대화나, 또 보람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어떤 때는 필요없는 얘기들만 하다가 시간 되어 나와야 할 때가 많다. 사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의사나 간호원들에게 달려 있다기보다 C. P. E 수험생 자신이 부닥치고, 스스로 체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과도 원활하게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때 시간을 두고 해결될 문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목이 좀 더 일찍 상주했더라면 극한 상황(환자)까지 발생치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왜 그런고 하니 병이란 것은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직장, 가정, 사회문제 등으로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은 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원목이 늘 상주(fulltime)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이다.

Chaplain의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listening skill이다. 목회자들이나 원목들 중에도 이 방면에 부족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 즉 남은 우는데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웃고 있는(?), 또는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아주 기초적, sympathy),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empathy),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도록 해 주는 기술이 더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날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거기에는 그만큼 노력과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개, 병원에서 Chaplain을 뽑을 때 학구적인 자격도 필요하지만 또 이러한 실제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참고로 서구에서 원목이 되려면 C. P. E 3, 4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문률삼아 통하고 있다. 그만큼 훈련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 5. Volunteer(자원 봉사)

어떠한 치료 기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의 종교 활동에 있어서 자원 봉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던 캐나다의 Whitby Psychiatric Hospital(WPH)에도 자원 봉사대가 있었는데 그 규모나 활동이 얼마나 크고 활발한지 정규 직원보다도 더 많을 정도이며, 그들의 활동은 분야 분야(전문 분야)마다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었다.

특히 원목실에서 그들의 도움은 나의 일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힘이 되었었다. 이들 자원 봉사자의 역할은 전문적인 staff들의 직무를 지지해 주고, 보충해 주기도 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특히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과 연민을 갖고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돌보아 준다.

미국의 어떤 병원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자원 봉사자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그런다<sup>23)</sup>. 첫째 자원 봉사자들은 가족과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적어도 2년간의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그런다. 캐나다의 WPH에서도 일주일에 두번씩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program이 있었다.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자원 봉사자는 죽음이란 평화롭게 수용될 수 있는 성장 과정의 자연적인 종말이라는 개념과 삶에 대한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team staff에게 주요한 feedback(현장에서의 느낀바) 등을 제공하고 상의하는 기회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자원 봉사자의 자질로서는 연민과 감수성이 풍성하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하고, 인내력이 있으며 객관성과 수용성이 있어야 하며, 나누어 주고 또 '받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는 겸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질로서는, 모든 위기를(죽음 포함) 단지 학문적 또는 철학적 관념으로 취급한다든가, 모든 것에 해답을 주려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 한다거나, 자신의 종교나 철학을 설명하여 그들을 개종시키

---

23) 임향자, *현대목회(Pastoral Care)의 한 모형으로서의 Hospice에 관한 연구* (서울: 감신대학원 논문, 1990), p. 58.

려는 것 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환자와 함께 있어 주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가 원하는 요구를 상의하며, 환자에게 확신과 용기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동료감을 주며, 환자가 원할 때 기도해 주며, 책을 읽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머리를 빗겨 주며, 환자 대신 전화나 편지를 써 준다. 또한 가족에게는 환자의 요구를 전해 주고, 가족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쓰며, 장례 과정 등에도 신경을 써 주며, 슬픔을 위로해 주기도 해야 한다.

자원 봉사자는 이러한 일에 거의 숙련(experienced)이 되어야 하며, 의사, 목사, 간호원,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의 staff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하며, 늘 협조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 봉사자 활동에 주의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경직된 신앙의 체계를 가진자, 부정적인 인격의 소유자, 또는 아주 최근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자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이면 봉사 그 자체가 되어야 하지 어떠한 특수한 임무를 띤 것처럼 보여지는, 즉 선교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약속 이행이 어려울시는 그때 그때 사전 연락을 취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만큼, 또한 사회(지역)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상부상조할 때 선교의 범위는 무한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필요시는 사회가 교회를 변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 제3부 상담

## 1.목회상담

목회상담이란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말할 수가 있겠으나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나 자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problems)을 목회자와 함께 상호교환(interaction)하는 과정이다.<sup>1)</sup>

목회상담에서 상황(context)은 무시 못할 과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종교적인 배경(religious tradition)과 상대방의 배경이 같으면 별 문제없거니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격차 내지 거리감을 서로 느끼게 되고, 시작부터가 불편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상담에는 상담자, 내담자(counselee),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다. 때로는 목표가 같을 수도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때로 달라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context)에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상담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보수집(acquisition), 상담실시(performance), 평가(assessment), 마지막으로 재구성(restructuring), 또 거절(rejection) 이라고 한다.<sup>2)</sup>

정보 수집 단계는 내용 이해에 그 목적을 두며, 상담 실시는 방법론에, 평가 단계는 개인적인 동기 부여, 재구성 단계는 재시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이해, 개인적인 조명, 공개토론회, 그룹토의 등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상담 실시 단계에는 실지로 상담을 실행(practice)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평가 단계는 한두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주마다, 매해마다 계속되는 것이다. 내가 실시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인해보는 단계이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감정의 요동이나 인식에 어떤

---

1) Homer L. Jernigan, "preface to a Research Project in pastoral counseling", *JPC* vol. 35, 1981, p. 76.

2) Robert L. Randall, "Stages in the Role Cycle of pastoral counseling", *JPC*.(1982, VOL. 36), P. 95이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단계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그룹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상담이 수행될 수 있다.

## 2. 목회상담의 성서적 근거와 학문적 배경

구약성서에 있어서 상담의 모델은 족장시대의 모세(출 18:13~20)에게서 찾을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이일 때문에 신경 쇠약에 빠질 지경에 이르러 장인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등을 두게 되었다.

또한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같은 말은 마태복음 12장 14절, 22장 15절에서는 “의논했다” 라고 했고,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는 “상의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은 “together counsel”로서 상담은 곧 함께 의논한다는 복합어로서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같이 의논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생활 3년 간의 공생애 중 목회상담자로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분으로 그의 독특한 지상 생활의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다(사61장)<sup>3)</sup>. 이사야 9장 6절에는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여 “...his name shall be call wonderful, counsellor”라고 표현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그의 통치에 있어서 지혜로운 권고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원토록 무궁한 평화를 유지하시고, 의와 정사를 통치하는 수단으로써 상담을 말하고 있다.

W. Curry Mavis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분은 역사상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까지 하였다<sup>4)</sup>.

3) 윤남중, ‘목회 상담 유감’, *신학지남*, 제3권 4집(1967,12), P.57.

4) W. Curry Mavis, *기독교 경험 심리학*, 조동진역(서울:크리스찬 헤럴드사, 1970), 서론중에서.

Curry Mavis가 의도하는 목적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의 접근이 현대 심리학적 원리들에 비추어 연구되어질 때 그가 사용한 방법은 현대 정신 치료에 나타난 많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특히 뒤에서 살펴볼 프랭클(Victor E. Frankl) 의 Logotherapy 와 같은 접근방법의 일반적 원리에 비추어 볼때 더욱 명백해진다<sup>5)</sup>.

이제 학문적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방면에 연구가 시작되기는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한 정통정신분석 (orthodox-psychoanalysis)이 실존정신분석(existential-psychoanalysis)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어서 행동치료(behavior therapy)를 시도하는 동안 여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목회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어진 것이다.

1905년 보스턴의 임마누엘 감독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임마누엘 운동(Emmanuel Movement)에서 종교와 의학의 관련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1908년 웨스터(Warcester)와 맥콤 (Macomb)및 코리엣(Coriat)에 의하여 *종교와 의학* 이란 책이 나오므로 발전되게 되었다.

그후 1932년에 정신병 학자이며 성직자인 올리버(John Rothbone Oliver)가 *목회적 정신치료와 정신건강* 이라는 저서를 출판함으로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고, 미국의 각 정신과 병원에서 전도하던 A. T. Boisen이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적 세계의 탐구(The Exploration of the Inner World)* 라는 저서를 1936년에 출판하여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힐트너는 목회신학의 기초를 강조하게 되었다.

1939년 메이(Rollo May)가 *상담의 기술(The Art of Counseling)*을 출판하여 상담학의 체계와 모형을 형성하였고, 1942년에 로저스가 *상담과 정신요법 (Counseling and Psychotherapy)*의 새로운 상담원리를 제정하여 유명해졌는데, 상담학 이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 지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후 1949년에 힐트너의 *목회 상담학*이 출판되었고, 1951년에 캐롤 와이즈(Carroll A. Wise) 가 *목회 상담학(Pastoral Counseling)*을 저술하였

5) Robert C. Leslie, *예수와 의미 요법*, 도병일역(서울:혜선문화사, 1974), p. 3.

다. 그 분야의 연구가 진전되어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에 많은 연구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상담 이론을 정립시킨 것은 제이 아담스(Jay E. Adams)의 저서들이다. 아담스는 종래까지의 지시적 상담이론에 정면 도전하여 성경적 이론을 토대로 한 권면적 상담이론에 정면 도전하여 성경적 이론을 토대로한 권면적 상담이론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목회 상담학 분야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클라인벨의 절충적 상담

#### a. 이전 모델과 비교

클라인벨이 제시한 목회상담의 새로운 모델인 절충적 상담은 비로소 목회상담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유서깊은 우리의 목회전통과 새로 발전되어 가는 상담 기술을 조화시킨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로저스와 힐트너의 학문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한 단계 발전시켜 새로운 목회상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인벨의 이론적 특징과 그의 의도는 과거의 방법과 목표를 거부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범위를 수정하고, 또 넓히고자 하는 것이었다<sup>6)</sup>. 클라인벨의 모델과 비교되는 이전 모델(1940년대와 1950년대)에서는 현대 목회상담이 형성기 중에 다섯가지의 유력한 견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① 공식적으로 정해진 상담면접
- ② 규범적이며 때로는 배타적인 내방자 중심의 상담 방법
- ③ 상담의 중심 목표로서의 통찰력
- ④ 무의식 동기의 개념
- ⑤ 성인 행위의 유아적 근성

“이러한 견해들은 상담 목사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목사의 상담기능이나 실천

6)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역, *현대 목회 상담* (서울: 전광사, 1979), p. 31.

에 대한 이해에 지배적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sup>7)</sup> 라고 클라인벨은 지적한다. 클라인벨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목회상담*의 새로운 모델과 이전 것과의 비교<sup>8)</sup>를 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7) 한병일, *클라인벨의 목회상담모델 이해* (서울: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1985), p. 27.

8) Ibid, pp. 27, 28.

|            | 이전 모델(1940~50년대)                                                                                                                                                                   | 새로운 모델                                                                                                                                                      |
|------------|------------------------------------------------------------------------------------------------------------------------------------------------------------------------------------|-------------------------------------------------------------------------------------------------------------------------------------------------------------|
| 상담의 배경과 구조 | <p>계획적 면담 상담으로 임상 상담과 정신요법식 면담에서 유래됨.</p> <p>공식적인 상담으로 약속, 제한된 시간,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특별한 장소, 조건부 상담임.</p>                                                                               | <p>공식적이고 계획된 면담을 여러 유용한 방식 중의 하나로 간주함.</p> <p>비공식적 상담에서도 심혈을 기울임.</p>                                                                                       |
| 상담의 방법     | <p>내담자 중심의 상담 : 로저스식 접근방법으로서 권위중심의 목사와 상담을 배우는 신학생에게 유익함.</p> <p>권위와 양립할 수 없음.</p> <p>충고, 지시, 영감을 주거나 가르치는 것 등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간주.</p> <p>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수동적 자세.</p> <p>일대일의 관계로 집중.</p> | <p>수정된 로저스식 접근방법: 다양한 방법을 제공.</p> <p>목사의 권위를 상담의 무한한 자산으로 본다.</p> <p>창조적인 교수법을 목회상담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목사의 인간성을 나누어 주어야 할 자산으로 본다.</p> <p>작은 그룹의 상담을 특히 강조.</p> |
| 상담의 목표     | <p>통찰력</p>                                                                                                                                                                         | <p>상호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p> <p>통찰력은 제2차적 목표이거나 선택적인 것에 속함.</p>                                                                        |
| 상담의 초점     | <p>무의식 동기와 성인 행위의 유아적 근성을 연결시킴</p>                                                                                                                                                 | <p>의식층의 자료와 현재의 관계성: 당면한 문제나 미래를 위한 현실 가능한 계획 기본적인 역초점을 정신의 내부적인 문제안에 보다는 갈등하는 인간관계 사이에 있음.</p>                                                             |

위의 것을 좀더 설명하면 상담의 배경과 구조에서는, 교회의 경험이 대부분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계획된 상담들 즉, 약속, 제한된 시간,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특별한 장소, 조건부 상담 등은 종종 기회를 잃어버린다<sup>9)</sup>.

따라서 클라인벨의 새로운 모델은 계획된 면담 상담을 여러 유용한 방식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상담방법에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현대목회 상담에 미친 영향은 지시 일변도의 권위주의로부터 구출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장기 심리요법이 한 방법인 접근 방식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거나 말 뿐인 젊은이 혹은 중년의 신경증적인 사람에게는 비교적 유효하다. 그러나 로저스식의 접근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다른 방법의 의해 보다 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sup>10)</sup>.

로저스식 방법은 목사로 하여금 권위주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로저스식 상담 관계를 완전히 설정된 기틀 안에서 완전한 정서적 자유에 대한 독자적인 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충동과 생활 형식, 장점과 단점을 자각하고 시인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담 관계는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권위적 관계와는 다르고 또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이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 가설(basic hypothesis)<sup>12)</sup>에 입각하여 명령과 금지, 훈계(계약과 약속이 따름), 재보증과 칭찬, 충고와 설득, 지시적 설명의 방법 등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에 비해 새로운 모델은 목사의 권위를 적절히 사용하여 피상담자가 책임적으로 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안내해 주고, 정서적으로 먹여 주고,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고, 만나 주고, 가르쳐 주어서 용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로서 목사의 지식, 기

9) Howard J. Clinebell, *op. cit.*, pp. 31-31.

10) *Ibid.*, p. 33.

11) Carl R.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승호역,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1980), p. 115.

12) *Ibid.*, p. 38.

술, 역할에서 오는 권위뿐만 아니라 목사의 인간성까지 상담에 있어서 무한한 자산으로 여긴다. 또한 창조적인 교수법을 많은 목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sup>13)</sup>.

로저스식 방법에도 성장 경험으로서 치료를 위한 인간 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새 방법에서는 치료면담 그 자체가 성장 경험이라는 것이다<sup>14)</sup>.

목회상담은 그 경향이 1대 1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클라인벨의 모델은 결혼한 부부, 가족 단위, 그 외의 작은 그룹의 상담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상담의 목표에서 통찰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강한 예고나 내적 자원, 또는 변성의 능력이나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로저스식 상담이 지시되는 제문제들, 즉

- ① 내담자의 억압상태,
- ② 내담자의 자기입장에 대한 제한능력,
- ③ 원조의 수용능력,
- ④ 가정의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능력,
- ⑤ 적당한 연령, 지능, 안정성<sup>15)</sup> 등의 부족으로 통찰력을 청취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는 이들에게 적합한 다른 상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통찰력을 위한 목회상담은 훨씬 더 넓은 훈련을 하는 긴 과정과 보다 넉넉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간과 훈련을 받은 목사에게는 도움이 되는 적절한 활동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이나 상담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

새로운 모델은 통찰력이 제 2차적인 목표가 되거나 선택적인 것에 속한 자, 주요 목표는 상호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옛 모델보다 훨씬 더 행동 지향적이라서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조절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이다.

13) Clinebell, *Op. Cit.*, PP. 33-34.

14) Rogers, *Op. Cit.*, p. 40.

15) *Ibid.*, p. 60.

상담의 초점은 현재의 문제에서 어릴 때의 삶이나 무의식적 요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모델의 제 1차적 초점은 의식층의 자료와 현재의 관계성에 있다.

로저스식 방법의 특질 중에서 새 모델과의 유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제 3의 특질로 그 중점을 개인의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두고자 한다. 연구 또는 인간 행동의 원시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sup>16)</sup>.

발전된 새로운 모델은 기본적인 것에 역점을 둠으로써 목회 분야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방법도 목사로 하여금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서 목회상담의 독특하고도 가치있는 형태를 발견하도록 해 준다<sup>17)</sup>.

클라인벨의 새로운 모델은 과거의 방법과 목표의 범위를 수정하고 넓히지만, 로저스식의 중요한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로저스 이전의 유형한 장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 b. 절충식 방법으로서의 클라인벨의 목회상담 유형

클라인벨에 있어서 상담은 고도의 요구와 보상의 목회적 기술이며 상담 기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자극시키는 방향에서의 관계를 조성 시키고 전달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단지 자기 이해(Self-awareness)가 앞설때에 만 도움이 된다.

클라인벨은 목회자의 특수한 이미지를 감안해서 상담의 종류와 피상담자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상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를 주장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법 하나 하나의 이론적 배경과 실재를 설명하고 있다. 요약 또는 소개에 무리가 있겠으나, 그의 열 한가지 모델을 특징적인 측면

16) *Ibid.*, pp. 39-41. 로저스식 방법의 제1특질은 개인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직접 목표로 하여 개인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현재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통합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제2는 자성적인 면보다 정서적(감정적)인 면에 중점을 두며, 제3은 과거보다 현재의 상황(Situation)에 중점을 두며, 제4는 성장 경험으로서 치료를 위한 인간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 즉 치료면담 그 자체가 곧 성장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17) Clinebell, *Op. Cit.*, pp. 38-39.

에서 간단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비공식 단기상담

목회 상담자가 그의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대부분의 도움은 단일 면담에서 주어진다. 환경, 구조, 순서 등의 방식에 있어서 비공식이며, 1~5회까지의 단기 상담이고 12회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어떤 생소한 상황에서 즉 우연한 만남, 목사의 심방, 주일 예배 후 혹은 어떤 생소한 모임 후 등등의 상황에서 상담은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런 비사무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 ② 결혼관계 상담

우리는 결혼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전한 독립적인, 평생 동안의 공동생활로써 인식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전체성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육체적 공동생활은 완전한 삶의 공동생활을 위한 표이다. 이에 대한 불가결한 징표는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 제공하는 사랑이다<sup>18)</sup>.

목회자는 가정상담 및 결혼상담에 능숙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상담의 기회가 잦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는 가정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결혼관계 상담은 인간의 정신적이며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관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

만일 목회자가 훌륭한 결혼상담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완전한 시대의 건설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sup>19)</sup>.

### ③ 가족집단 요법과 행동 교류분석

전 가족을 동시에 취급하는 가족요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현대의 치료 방법 중 가장 발전 전망이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가정요법의 목표는 가족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부정적보안(상호좌절)을

18) Edward Thornevsn, *Seelsorge im Vollzug*, 박근원역, *목회학 실천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7), p. 115.

19) *Ibid.*, p. 115.

감소시키고 긍정적보안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인격 요구를 좀 더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요법으로는 벨(John E. Bell), 새티어(Verginia M. Satir)의 가족요법, 번(Eric Berne)의 대인관계 요법 등이 있다<sup>20)</sup>.

#### ④ 자원상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감싸주고 양육하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인도해 주는 상담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찰력 상담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담자의 활동과 조심스런 권위의 사용을 포함했다. 목표는 현실 지향적, 미래에 대한 능력 강화, 인간관계 개선으로 욕구충족에 있고, 감정이입적 관계와 그 관계의 지속이 방법론의 핵심이다<sup>21)</sup>.

#### ⑤ 위기상담

폭풍우 앞에서 작은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것처럼 장애물과 재앙에 부딪칠 때 약한 신앙은 소멸되지만 강한 신앙은 더욱 굳어진다.

위기상담에 있어서 목사는 의미를 깨우쳐 주는 자로서의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

위기에는 단계위기와 우발적위기가 있는데, 위기는 단순히 고통 또는 긴장의 시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상담자는 그 위기가 보다 완전한 인격으로 향하거나, 그 인격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위기상담은 예기치 않았던 환경적인 자극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즉 생활조건의 변화나 가족 및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변동이 생김으로서 내담자가 심한 긴장과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이다<sup>22)</sup>. 이러한 위기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인 조건에

20) Clinebell, *Op.Cit.*, p. 127.

21) Viktor E. Frankl, *The Un Consciousness God*, 정태현역, *무의식의 신* (왜관: 분도출판사, 1979), p. 19.

서 폭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이나 또는 내면적 변동 상황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정도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각성을 느끼거니와, 또 어떤이는 전혀 위기 위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위기 자체와, 그 경험 사이에는 어떠한 정비례가 성립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위기 의식(crisis conscious)이 위기의 심각성을 좌우한다고 본다.<sup>23)</sup>

이러한 위기를 통한 긴장의 단계를 보면

- a. 약간의 긴장을 경험하며 평소에 습관적인 반응으로 대처 한다.
- b. 전 단계보다 긴장이 증가하여 해소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단계로서 좌절감과 비능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 c. 응급수단까지 동원해서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긴장은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단계로서 지금까지의 목표를 포기하거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상황이다.
- d. 급성 단계로서 행동의 혼란이 증가하고 정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단계이다.<sup>24)</sup>

이러한 위기를 맞은 경우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내담자의 긴장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증상 및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하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적응수행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상담자에게 위기의식을 촉발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몇 가지 상담방법을 예로 든다면, 우선 정서적 지원이라 보겠는데, 내담자가 고통과 긴장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고, 상담자가 문제를 수용하고 요점으로 대하

22) 이장호,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1981), p. 257.

23) 오성춘, *목회상담사례분석*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87), p. 100.

24) 김시성, *브리스터의 목회상담학적 돌봄의 연구* (서울: 장신대원 논문, 1988), p. 69.

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경험하게 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도와 준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상담자는 여러 가지 감정을 즉 불안, 고통 따위를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를 당한 내담자가 정신적 해소를 해야 하는 단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몰아 부치는 값싼 동정은 해결에 전혀 실마리를 주지 못하며, 도리어 상황을 악화되게 만들고 만다.<sup>25)</sup>

특히 이때에 상담자는 피상적이거나 억지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장기치료법이 있는데, 이것은 목회상담자가 전문가에게 즉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등에게 의뢰하여 오랜기간 동안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별한 심리증상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일일 때에 더욱 더 필요하다. 여기서는 칼 로저스의 다각적인 면담을 통해서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지시적 방법, 그리고 의사를 통한 상담과 약물요법도 병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순전히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나기 보다는 내담자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내담자가 위기 의식을 적게 느끼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일이다.<sup>26)</sup>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만 해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하워드 클라인벨(Clinebell)의 마이크로 상담이란 것이 있는데,<sup>27)</sup> 이것은 위기 상담자가 오는 경우 짧은 시간에 선택을 하도록 하며 도와주는 경우이다. 이 상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때로는 효과를 볼 때도 있다.

이러한 이론이나 실제적 적용방법은 목회현장의 긴장과 충격속에 있는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한국 교회가 정상적

25) 이기춘역, 토마스 오든 저, *목회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p. 334.

26) Brister, C. W, *Pastoral care* (New York :Harper & Brothsis, 1964), p. 193.

27)Howard,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Nashuille:Abingdon press, 1979), p. 194.

으로 성숙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방법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교제(fellowship), 전망(prospective), 현실(realism), 보상(compensation), 그리고 부활(resurrection)이라고 표현해 본다. 이 각각도 나름대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우선 교제를 보자. 이것은 크리스찬의 코이노니아(Koinonia)라고 그러는데, 피상적인(superficial)것 이라기 보다 실제로 짐을 서로 나누고 함께 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캐나다에 있을 때 조그마한 동네에서 두번의 살인 사건이(캐나디언) 연달아 일어났다.

지역교회로서는 무심할 수가 없었다.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목사는 최대한의 분노와 함께 그것에 대한 설교로 예배를 진행시켰다. 온 교인이 분노와 가족에 대한 슬픔을 서로 나누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슬픔을 서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회중들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나, 목회자는 그러한 위기에 대해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는 확실한 태도와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위기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함께 우는 기회도 있어야겠지만, 또한 웃을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즉 일종의 대담성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비록 교회의 모든 장비가 다 불타버렸다 해도 교회 자체는 살아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는 보상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몸의 한 부분인 위 라든가, 폐 또는 눈, 이가 없어지면 다른 부분들이 그 없어진 부분의 기능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회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보다도 바로 여기, 지금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28)</sup>

또 다른 방향에서 존즈의 3단계 위기 상담법이 있는데,

- ① 내담자와의 접촉점을 찾으라
- ② 문제의 본질적인 요소에만 집중시켜라
- ③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찾는 일이며 가족과 친지들 중, 그를 도울 수 있는 망을 조직해 두라.<sup>29)</sup>

이러한 3단계 방법을 목회 상담자들이 위기적 상황에서 사용하면 유용하리라 본다. 갑작스런 사고로 자녀나 가족을 잃은 경우, 암이란 사형선고를 받아 정서적 혼란에 빠져있는 경우, 주어진 비참한 환경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마이크로 카운슬링을 통해서 먼저 이들이 더 큰 위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에 목회상담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의 약속을 믿고 긴급한 처방 즉 마이크로 카운슬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위기 중재를 위한 마이크로 카운슬링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로, 어떤 위기는 발달 단계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온다<sup>30)</sup>. 이 때는 마이크로 카운슬링보다는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둘째로, 어떤 위기는 특정한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든지,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다<sup>31)</sup>. 다시 말하면 사춘기나 갱년기에

28) Wayne E. Oates, *Life is Detours* (Nashville : The Upperroom, 1974), pp. 13-21.

29) Warren L. Janes, *The A-B-C Method of Crisis Management : Mental Hygiene* (Vol. 52, 1968), pp. 87-89

30) Brister, C. W, *Op.Cit.*, p. 200.

오는 경우든지,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상담자는 단순한 마이크로 카운슬링보다는 정서적인 지원이나, 계속적인 돌봄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위기 중재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위기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위기는 보통 개인적이 아니라 양자관계, 즉 중대한 의미를 갖는 타자(others)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상담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보조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애매모호성인데, 내담자는 원한과 애정, 절망과 희망, 두려움과 사랑, 불안과 안정 등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 때에 어떤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이크로 카운슬링, 즉 위기 상담에서 짧은 응답을 통한 내담자의 돌봄은 상호 돌봄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위기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들어주고, 함께 서서 지탱해 주고, 문제를 당한 내담자를 돌보아 주어야 하며, 상담자는 위기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들(others)을 동원하여 상담에 참여시키고, 그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카운슬링은 단순히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도움망을 만들고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위기 중재를 통한 짧은 해결 방법, 즉 마이크로 카운슬링은 순간적인 절망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희망을 제공해 줌으로 돌봄의 치유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sup>32)</sup>

#### ⑥ 위탁상담

31) *Ibid.*, p. 201.

32) 오성준, *목회상담사례 분석*, p. 118. 마이크로 카운슬링의 방법으로 정서적 자원활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편의 탄식시는 위기를 경험하는 자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노출시키고 영적인 에너지를 발견하여 삶을 재구성케 할 뿐 아니라 민감한 신앙 상담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는 자신이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뿐만아니라, 이 위기가 도리어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탁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상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위탁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팀의 노력을 활용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책임을 분배하고 확장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기본적인 위탁자원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목사는 그의 예언자적 신경을 자극시켜 그가 꼭 필요한 위탁자원들을 창조해내야 한다.

#### ⑦ 교육적 목회상담

목회자들이 하는 훌륭한 상담 기회의 대부분은 창조적 교육 및 역동적 상담에 관련된 절충적이고도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사는 인간의 성장을 돕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두 가지 목회 기능의 통찰력과 방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인 교육적 상담에 관여하게 된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 아니라 상담기술과 예민성을 활용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별한 삶의 정황을 대처하기에 타당한 지식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교육적 상담의 성패는 학생의 인격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상담자로서 목사는 내담자의 내면에 굳센 인간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인생의 곤란을 타개할 수 있는 힘, 자기 이외의 것을 통찰하는 힘,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힘을 성장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⑧ 집단 목회 상담

집단 목회 상담은 작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할을 토대로 하여 신뢰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의 발달 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생각된다.<sup>33)</sup>

집단 상담 방법은 교회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목회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창조적 발전을 가져온 가장 유명한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룹의 여하한 형태도 교회의 계획을 세우는 조직의 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성장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상담 방법은 교회로

33) 이형욱,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9), p.19.

하여금 인간적 제문제를 예방하는 데 점점 더 힘이 되게 하는 것이다.

#### ⑨ 대결상담(Confrontation)

화해의 기능은 유달리 구별되는 유산이고 아직까지 이것을 능가할 다른 방법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목회의 이 자원에 대한 갱신을 상호 고백적인 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결은 목사의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목회상담에는 필수적인 항목이며, 본질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엡 4:15)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피상담자에게 자신의 책임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납적 상황에서의 정직한 대결은 관계를 강화시킨다.

#### ⑩ 종교적, 실존적 문제에 관한 상담

일반적으로 불안이란 사람이 자기의 행복이나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위협을 받는다고 깨닫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인간 유기체의 반응을 말한다. 실존적 불안은 심리학적 대답이나 정신요법적 답변 으로서는 대답되어지지 않는다. 실존적인 불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건설적인 방법은 인간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현실화 하는 것을 포함한 진정한 종교생활이다.

그러나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들 곧 교회문제, 불신앙, 교리의 혼란, 기도의 본질 등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서 목사의 도움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목회 상담에 있어서 이 차원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삶의 깊이와 활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자신과 관계(intrapersonal)하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신학적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의 촉진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상담에 있어서 목사의 독특하고도 필수적인 공헌이다.

#### ⑪ 심층 목회상담

심층 목회 상담이나 정신요법은 무의식적인 면을 인정하는 인간의 정신

을 이해하려는 방법들에 주목한다. 긍정적인 목표는 상호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표면적인 성격 장애를 제거하려는, 즉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정신요법을 훈련받은 목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적인 유산과 심층자료분야의 새로운 도구와 통찰력을 창의적으로 조화시킴으로서 심층치료의 목회형태를 개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34)</sup>

어쨌든 목회상담은 하나의 예술이지 결코 과학(science)은 아니다. 실제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배울 수 있으며, 특별히 개인 감독(individual supervision)이나 조회(문의, consultation)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4. 상담과 행동 변화

효과적인 상담은 어떤 것일까?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겠는데,

첫번째는 목사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이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두번째로 목사와 내담자 간에 서로의 계약(약속)이 필요하다. 효과적이 되느냐, 아니느냐는 이러한 상호간의 계약을 잘 이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행동 수정 단계라 보겠다. 쉽게 설명키 위해 그림을 그리면 (v 자)가 되어서 제일 왼쪽 I 은 시작 단계로서 목사와 내담자의 관계 설정이고, 여기서부터 II로 옮겨지게 되는데, 강조점은 감정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내담자의 느낌들, 인생철학,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다시 III으로 올라가면서 내담자가 좀더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에 어떤 변화 내지 수정을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이다.<sup>35)</sup>

이 세 단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 I 단계(관계 설정)에서는 단지 목사와 내담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그 시간(기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처음 얼굴을 보고서 부터 계속적으로 공식적이건 아니건 서로 신

34) Clinebell., pp. 292-309.

35) Rickey L. George, 'Pastoral Counseling for Behaviour Change: JPC, 1978. Vol. 32, No. 2, p. 118.

퇴해 가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공식적인 상담 시간 보다도 비공식적인 (informal) 만남을 통해 더욱 더 신뢰가 구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관계가 서로간에 설정이 되려면 감정이입(empathy)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자세, 관계가 안되면 수십 번, 수십 시간을 서로 만났다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식이 되고 만다. 서로 이해하고 보살피는 (caring)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해 줄 때에 내담자의 자기 표현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내담자와의 모든 대화에서 감정이입(empathy)을 갖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내담자의 말이라든가 감정의 표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에 내담자의 특별한 입장(환경)을 이해하게 된다. 개인적인 특수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만남에서는 너무 서두르거나, 내담자를 어느 목적지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자세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말로 다 해치우는 것보다는 보살피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Ⅰ)단계에서 두번째(Ⅱ)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를 주는 과정이다. 두번째 단계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point)이 되는 것이다. 목사와 내담자는 함께 도와서 내담자의 행동에 변화를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가 잘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기에는 그만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Ⅱ단계에서는 상호 잘 협력만으로써는 충분치 않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목사와 함께이든지 아니면 혼자서든지 또는 특별한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ecide)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과 불일치가 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 관계가 완전히 두절된다 할지라도 역시 상담의 관계(relationship)는 상호 존재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의 목적은 내담자를 좀더 깊이 이해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Ⅱ단계에서는 그런 이해만으로서로는 부족하다. Ⅱ단계에서는 내담자 자신이 제 Ⅲ단계로 연결되는지, 연결 안되든지, 내담자 자신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Ⅰ 단계에서는 상담자, 내담자가 같은 철로를 따라서 달리는 것과 같지

만(relationship), II 단계에서 III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키를 잡고 몇 가지 레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가도록 되어지는 것이다.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보를 준다든가 다른 전문가를 소개시켜 준다(referral)든가 하는 것이다.

사실, 한가지 문제에는 천개 이상의 해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로서는 그룹 상담 행동 계약(behaviour contracts), 모델 제시, 또는 개인지도, 독단적인 훈련 따위가 있다.<sup>36)</sup>

III단계는 행동 단계(action)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단계III은 단계II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계 I, II를 통해서 단계III이 스스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 이 행동 단계의 성패는 상담의 확실하면서도 특별한 목표(goal)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실패 상담의 요인이 목회자의 상담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내담자에게 또 상담자에게 불확실하게 보여져서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효과만 거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한 것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목사와 내담자 상호가 어떤 특정한 변화(specific change)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수많은 목회 상담자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흐지부지, 남는 것이 없게된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우리는 문제를 충분히 파헤쳤다” 또는 “충분히 이해했다”로 끝나 버린다. 내담자는 어떤 사건이 상담에서 일어났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얼떨떨한 상태로 끝나 버리며, 일반적인 얘기만 줄곧 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인상으로 떠나게 된다.

또 하나 상담이 효과적으로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내담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어떤 특별한 심리학적인 모험(psychological risks)을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으로(심리학적으로)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

---

36) R. Dustion and R. George, 'Action Counseling for Behaviour Change', *JPE* vol. 32. 1978, p. 120.

그렇게 하면 내담자를 반드시 도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칠 만한 반대 의견 표시(confrontation)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어쨌든 내담자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해서 목회자에게 온다. 만약에 목회자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내담자는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목표를 세우는 데는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또 단 한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day to day) 조금씩 조그마한 목표(very small step)를 세워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어떤 거부감도 주게 되고, 또 불편함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 변화의 상담에서 목사가 내담자를 전환시키려고 하기 보다 내담자 스스로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음의 작은 목표를 세울 때에는 내담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의하여 세워야 한다. 목표는 분명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그만한 기술(technique)을 필요로 한다.

## 5. 상담에서 심리학적 측면 (Psychological dimension)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상담에 대해 도움이 될 걸로 보아서 생각해 본다. 성격 측량 지수<sup>37)</sup>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성격 측량 지수>

---

37) Paul F. Schmidt, *A New Tool for the Counseling* (JPC vol, 34, 1980), p. 79.

|   | 연약한 면  | 강한 면     | 차 원 |
|---|--------|----------|-----|
| ① | 교만     | 겸손       | 존경  |
| ② | 시기, 질투 | 동정심      | 관심  |
| ③ | 분노     | 화평케 하는 자 | 화냄  |
| ④ | 지나친 욕심 | 아량이 풍부함  | 돈   |
| ⑤ | 게으름    | 열정적      | 에너지 |
| ⑥ | 색욕     | 절제       | 섹스  |
| ⑦ | 대식가    | 운동가      | 몸   |
| ⑧ | 거절     | 정직       | 진리  |

### ① 교만과 겸손

교만은 자신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그들을 경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self centered)에서 타인을 판단케 되고, 자신의 고통스런 감정(painful emotion)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독특성(unique)을 갖고, 가치 있는 요소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타인을 존경하고 그룹에서 잘 협조하는 것이다.

### ②시기와 동정심

시기, 질투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성내고, 부러워한다. 이런 사람은 전 인생을 남의 성공과 행복을 못마땅해 하며 살아간다. 동정심은 남의 기쁨, 슬픔을 나누기를 좋아한다. 무조건적인 관심, 사랑을 보인다.

### ③ 분노와 화평케 하는 자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늘 화낼 것을 찾고, 남과 잘 어울려가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늘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용서하고, 인내하고 친절하다.

#### ④ 욕심과 아량

지나친 욕심은 지나친 행복과 안전을 물질로부터 얻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과 좋은 일을 얘기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한다. 아량이 풍부한 사람은 돈이나 소유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며, 늘 다른 사람과 뭘 나누기를 좋아한다.

#### ⑤ 게으름과 열정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열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라도 손수 시작하려는(self-starter) 사람이다.

#### ⑥ 색욕과 절제

색욕가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a loved one)으로가 아니라 sex상대, 소유물(sexual object)로 생각하고,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신뢰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반면에 절제하는 사람은 쌍방이 서로 감정(emotion)이나 영적인(spiritual)일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기다린다. 배우자 외에 성관계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 ⑦ 대식가와 운동가

대식가란 음식이나 담배, 술, 또 환각제(drug)를 지나치게 좋아하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생각(clear thinking)을 할 수가 없다. 운동가란 건강을 늘 정신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명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⑧ 부정(denial)과 정직

부정(denial)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부족함을 늘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도덕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늘 강하다고 자부한다. 정직한 사람은 늘 진실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솔직히 표현하려고 한다. 이

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즉시 시인한다.

이외에도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펍유익한 점이 많다.<sup>38)</sup>

## 6. 상담과 영성

목회자 여러 명이 모이면 다 각기 다른 신학,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온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회자가 목회 전반에 걸쳐 전문가(expert)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특별한 재능 없이는 교회 행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 가르치는 재능 없이는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또 전도에 주력하는 목회자, 예배의 순서, 분위기 등등에 전력하는 목회자, 또 상담이나 pastoral care가 목회 전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등등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적인 면(spiritual ministry)에 치중하는 목회자가 있다.

특히 목회 상담에서 이 방면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개발이 안된 부분이기도 하다. 목회 상담과 영적인 인도(spiritual guidance)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신학과 영적인 면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점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지난 200여년간은 경험적인 신앙에 별로 강조를 두지 않았다. 1900년에서 1960년까지, 60년 동안 160명의 서구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단지 두 사람(Baron von Hugel and C. G. Jung)만이 기독교인에게 경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sup>39)</sup>

그 만큼 신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학 구조와 종교적인 경험을 잘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상당한 기술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

38) Wayne oate의 [Behind Mask] 같은 책이라든가 또 Enigram같은 것도 사실 가치 있는 이론들이다.

39) John Macquarrie, *Twentieth Century Religious Thought* (Boston: Houghten Mifflin, 1976), p. 11.

연적으로 목회적인 기술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을 사회적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을 보는 것에 약하고, 또 영적인 면에 강한 사람은 인간 자체의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을 갖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학문의 수준이 상당히 개발되어 왔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우주 과학 시대의 도래도 영향을 끼친 것 중의 하나이다.<sup>40)</sup>

플라톤이 주장한 철학적인 사고도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그러면 목회 상담의 입장에서 영적인 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신화(神話, 신과의 대화)의 관계이다.

이것은 주로 시. 에스. 루이스(C. S. Lewis)나 찰스 윌리엄스(Charles Williams)가 서술한 것인데 상상(imagination)이나 또는 사실에 근거한 것 또는 둘 다 와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예배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성서를 읽거나 종교 서적을 읽으면서 가치를 별로 발견치 못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자체를 상상해 가면서 거기에 온 정력을 기울이려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읽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은 성서를 읽을 때,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거절할 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같이 느낀다. 예집트로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슬픔, 낙담이, 부활의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승리의 경험은 머리로써 만든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등등의 여러가지 비유들도 마찬가지이다. 성서속에 나오는 승리의 삶을 따라갈 때에 개인적인 삶 안에서 승리를 외

40) Morton T. Kelsey, *Pastoral Counseling and the Spiritual Quest*, JPC Vol. 32, 1978, p. 95.

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터득해야 한다.

둘째로는 내적인 대화(inner dialogue)이다. 학계에서는 꿈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본다. 프라고프(Progoff), 게스텔트(Gestalt)등이 주장한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익나티우스(Ignatius Loyola)라고 볼 수 있다.

단테(Dante)의 *Divine Comedy*, 헬렌 룩(Helen Luke)의 *Dark Wood to White Rose*, 번연(Bunyan)의 *천로역정* 따위의 작품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내적인 삶(inner life)을 관찰해서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글자로서만 쓴다 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림으로, 조각으로, 뜨게질 따위, 음악적인 활동으로 얻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인도하는 목회 상담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 방향 외에 다방면으로 연구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상담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본다.

## 7. 상담에 있어서 성경 사용

목회상담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다. 성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Martin Luther), 존 번연(John Bunyan), 그리고 수많은 사회 과학자들, 의사들 등등이 말씀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게 못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치 않으려고 한다. 물론 말씀을 마구 남발하거나, 오용해서는 안되겠지만, 필요시는 주저없이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의 말씀 전달시에 성령의 역사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첫째로 개종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말씀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학문으로 접근하는것이 효과적이라 느낀다.

둘째로는 상담자 자신이 능력으로 초인적인 일을 해보려는 데 있다.<sup>41)</sup> 둘 다 올바른 생각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유죄를 선고하며(롬 3:23),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행 4:12), 믿음이 생기게 하고(롬 10:17), 중생으로 인도하고(요 3:3), 신자를 죄와 멀게 하고 또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사용 방법으로는 성경을 내담자의 손에 들리우고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게 하는 방법, 또한 상담자가 먼저 읽고 내담자가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너무나 많은 분량을 읽게 하면 부담이 되므로 분량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성서를 사용하는 데는 시간과 장소, 또한 상대에 따라 지혜로운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성서 외에도 기타 녹음 tape들, 또는 자료들(article 따위)을 복사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꽤 유익할 것이다.

## 8.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상담자로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하는바를 피상담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그 상담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거기서 생기는 오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각종 상담에서 사용되는 것이 언어인데, 우선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또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겪은 체험을 통해서 파악한 현실을, 상징(symbol)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상징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것이 바로 언어이다.<sup>42)</sup>

이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은 상대방과 의사 소통을 한다. 이는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여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나타내며, 이것을 기반으로 남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뜻이다.

교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언어는, 비기독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이었던 태고시대에 동물들이 가졌던 음성신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43)</sup>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

41) 양승달역, (클라이프. 대래모어 저), *상담심리학* (서울:성암사, 1984), pp. 281-282

42)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사, 1984), p. 75.

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하나님이 언어의 창시자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최근에 있어서 언어학의 가장 격렬한 논쟁을 MIT의 언어학자인 촘스키(Noam Chomsky)의 견해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인데 촘스키는 언어의 형태적 모형의 기초가 되고 있던 가설에 도전하는 이른바 순법이론을 발표하였다.<sup>44)</sup>

그에 따르면 어린이는 보편적인 문법의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포함한 몇몇 내재적 개념을 지니고 태어나며, 그로 인하여 어린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일련의 변형에 의해 그 언어로 무한한 숫자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이론으로써 이 이론은 종래의 언어연구가 사피어(Sapir), 와프(Whaff), 야콥슨(Jacobson), 브룸필드(Bloomfield)와 같은 학자들의 지도 아래 점점 더 과학적으로 흘러가던 경향에 대한 배경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그러면 언어란 도대체 무엇인가? 슈람(Schramm)은 언어란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정보신호 체계<sup>45)</sup>”라고 했고, 차배근은 “자의적(Arbitrary)인 음성기호의 체계로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수단”<sup>46)</sup>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덧붙여 언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언어란 기호(sign 또는 symbol)이다. 즉 세계의 사물이나 사상 또는 경험을 지칭하는 단순한 기호이다.

둘째,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로서 언어 자체와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이나 사상과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셋째, 언어는 음성적 기호이다. 즉 사물이나 사상을 지시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한다.

넷째, 언어는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언어에는 일정한 문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sup>47)</sup>

캐롤와이스는 언어적 표현이 근본적으로는 의식적 도구<sup>48)</sup>라고 말했는

43) 월비슈람, *커뮤니케이션원론*, 최중수역 (서울: 전예원, 1986), p.15.

44) *Ibid*, p. 101.

45) *Ibid*, p. 106.

46)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이론* (서울: 세영사, 1982), p. 45.

47) *Ibid*, p. 282.

48) 캐롤와이스, *목회상담학*, 김태숙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56), p. 77.

데, 여기서 언어의 의미란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같은 상황이라도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개인들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홍기선은 하나 하나의 단어에는 보통 외연적 의미(denotative)와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그리고 상황적 의미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고 말한다.<sup>49)</sup>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외연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진위가 검증되어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써, 이 객관성 때문에 커뮤니케이터와 수용자 사이에 일치된 의미를 갖는 경우이며, 내포적 의미는 그 말이 지칭하는 사물의 추상적 성질을 표현하거나 그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언어가 표현하는 대상의 일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정보적 내포(Information Connotation)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내포(Affective Connotation)로 나누어진다.<sup>50)</sup> 또한 상황적 의미는 문맥이나 쓰여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내포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는 외연적 의미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어려운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말의 억양이나 리듬, 장단은 문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으로 말을 둘러싸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간격(gap)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간격의 요인으로는 오감의 불완전성, 주관적 해석, 언어의 불완전성, 사고의 불완전성 및 즉각적 반응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피해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그러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간격

49) 홍기선, *Op.Cit.*, p. 75.

50) *Ibid.*, p. 77.

51) 최창섭, *언어와 환경*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6), P. 15.

(gap)을 최소화하고 의미 전달이 정확한 언어 사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가 상담에 있어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최소한 바벨탑 사건과 같은 언어의 오해와 혼잡을 피하고, 본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의 추상성 문제이다.

하야카와(S. Hayakawa)는 언어의 추상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상의 다리(Abstraction ladder)’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내포적 의미를 갖는 언어는 윗단계에 위치하며 외연적 의미를 갖는 언어는 아랫단계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2)</sup>

이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용어의 추상 수준이 높으면 오해를 사기 쉽고, 반면에 추상성이 낮은 경우에는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압축된 언어를 피하고, 성공적인 상담을 위하여 언어의 적절한 추상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어의 단순화 문제이다.

이것은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 기호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단순화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사실에서 상담자는 복음의 전달이나 문제의 치유에 있어서 언어를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것을 피하고 필요한 말을 정제하여 간결하게 단순화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셋째, 언어의 상황성 문제인데, 이것은 언어에는 각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로써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에 있어서 피상담자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잘

---

52) S. I Hayakawa,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London :George & Unwin, Ltd., 1965), p. 177을 홍기선 *Op.Cit.*, p. 428에서 재 인용

살피어 그가 하는 모든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수준의 언어를 선택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언어의 전 상징성(presymbolic use)문제이다.

이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언어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보다는 단순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을 언어의 전상징적 사용이라고 부른다.<sup>53)</sup>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체계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상담자는 첫회(first conference)를 진행하는 동안 피상담자를 안정시키는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로서의 상담자는 바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에 있어서 자신의 언어가 효과적인 상담의 실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언어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기호만을 사용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기호(non-verbal signs)를 함께 사용함으로써도 이루어진다. 사실 서로의 대화에서 대면하여 말로 되어지는 대화는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65%는 비언어적 대화(non-Verbal, 표정, 손짓, 몸짓, 자세 등등)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54)</sup>

오늘날에는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 슈람(Schramm)은 “사전적 용어로 쓰여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잘 짜여진 기호”<sup>55)</sup>라고, 또 차배근은 “언어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sup>56)</sup>라고 말했다.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최창섭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53) *Ibid.*, p. 429.

54) 최창섭,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8), p.52.

55) 월비슈람, *Op.Cit.*, p. 89.

56) 차배근, *Op.Cit.*, p. 290.

①커뮤니케이션의 필연성: 관측된 모든 행위는 메시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즉 인간은 구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피할 수 있어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피할 수 없다.

② 비언어적 채널의 효과성: 인간은 지식을 전달하고 인지된 정보를 나누어 갖기 위하여 언어적(verbally)으로 대화한다. 그러나 정서, 감정, 태도 등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

③ 표현적(expressionistic)인 비언어적 메시지의 높은 신뢰성: 인간이 상호 접촉할 때 말만으로는 거의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어는 주의해서 잘 선택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은 선택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제시(verbal cues)와 비언어적 제시(nonverbal cues)가 나타내는 내용이 다를 때에는 비언어적 제시를 믿게 되는 것이다.<sup>57)</sup>

이렇게 볼 때 비 언어적 요소는 의사 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보다 더 정직하고 직선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살펴볼 때 더 잘 인식될 수 있다.

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을 정의하고 조건화 시키며 억제시킨다.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배열 등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존재하며, 상호작용의 패턴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적당 또는 부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해준다.

②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위계와 순위를 지시하고 상호작용의 흐름을 암시하며 피이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제한다.

③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기호를 보완함으로써 때로는 언어보다 더 능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sup>58)</sup>

이처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

57) 최창섭, *Op.Cit.*, pp. 53-55.

58) 차배근, *Op.Cit.*, p. 292.

이션이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라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의 권위자인 차티어(M. R. Chartier)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① 반복(Repeating):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표현을 되풀이하여 준다.
- ② 대체(Substituting):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표현을 대신해 준다.
- ③ 보완(Complementing):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메시지의 불분명한 점을 보완해 준다.
- ④ 강조(Accenting):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메시지의 일부를 강조하여 아래 밑줄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 ⑤ 규제(Regulating):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행위를 규제한다. 예컨대 말의 끝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다.
- ⑥ 상반(Contradicting): 비언어적 표현은 때로는 언어적 표현과 갈등을 일으킨다. 겉보기에는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신호를 전하나 그 의미는 일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sup>59)</sup> 그러므로 실제로 상담이나 대화에서의 성패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 내느냐, 못 읽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상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피드백(feedback)이다.

피드백이란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을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sup>60)</sup> 예를 들어, 대화의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상담자 역시 피상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상담자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이전에 피상담자의 태도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

59) M. R. Chartier, *Preaching as Communi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pp. 87-88.

60) 최창섭, *언어와 환경*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6), p. 56.

또한 자기 말에 피상담자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피이드백은 상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피이드백의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피상담자의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기 전에 그의 행동을 묘사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방금 손을 들었다든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든가 등등의 묘사이다. 또한 피상담자를 판단(judge)하는 태도보다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담자가 상담자의 메시지에 충분한 영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갖고 피이드백해 준다. 혹시 이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이 보이면 반복해 주고, 필요시는 상대방에게 상담자가 무슨말을 했는지 말해 보라고, 어떤 의도였는지 말해 보라 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에 대해 시비하기보다는 현재의(now and here)구체적인 행동에 focus를 맞추어 feedback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에 어쨌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식의 대화법이라 보겠다.

그런데 이런 feedback이 서로에게 잘 이루어지자면 앞에서 몇 번이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성 확립이라고 보겠다. 마틴 부버가 말한 바 있는 "너와 나"의 신뢰적 관계(confidentiality)를 의미한다.

만약에 이런 신뢰성이 쌍방에 성립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feedback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대화(one-way communication)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문 내지 적대감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 다음에는 경청(listening)에 관한 것이라 했는데,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으므로 간단히 쓰려고 한다. 때로는 confrontation(상대방의 의견에 반대 입장)이 필요한데,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자신의 태도나, 생각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물론 마음 편한 입장은 못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잘 경청을 하고자 하면, 상담자는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오로지 상

호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듣는 기술을 개발하고 배워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지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인데 명령과 금지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근본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훈계라는 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본인이 약속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보자는 시도이다. 열심히 일 하겠다, 공부 잘 하겠다, 행동 잘 하겠다 등의 약속 따위이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매어 두자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결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퇴보를 가져오고 만다.

그 다음에는 너무 지나치게 칭찬만 늘어 놓은 방법인데, 이것은 현존하는 문제들을 부정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어 문제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부정하게 되므로 효과는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방법이므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sup>61)</sup>

그러면 좋은 상담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independence)과 통합성(integration)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sup>62)</sup>

초점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인간, 개인 자체라는 논리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인을 도와서 성장하게 하고 현재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통합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요즘 서양에서는 인간 평가방법인 I.Q(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I.Q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이며, 또한 그것은 오직 머리(head, intellectual level)의 발달 능력만을 측정하는데 불과한 극히 일부분의 평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I.Q 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 전부인양, 그 측정 평가에 따라 만족해 하기도 하고 낙심해 버려, 이때 "나는 능력 없다" 라는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문제 많은 인생을 어떻게 효과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느냐,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사

61) 칼. 로저스, 한승호역,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사, 1975), p. 31.

62) *Ibid.*, p. 38.

람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지배해 가고 있다.

특히 Howand J. Clinebell이 말하는 "지원적 성장 상담"이란 것도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한 말이다. 그의 관점은 한 인간이 그의 삶에 있어서 흔히 당면하는 어떤 실패나 근심, 걱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개발, 또는 미사용 자질과 능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sup>63)</sup>

사실 서구 신학교에서 CPE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신학교 문을 나서기 이전에 이런 방면의 능력을 자신 스스로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목회, 사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CPE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당해보고, 능력의 한계를, 또 자신이 놀랄 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weakness)과 강한 부분 (strength)을 확실히 발견하게 될 때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있고, 더 나아가 능동적(active)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9. 예수님의 상담

예수님의 상담은 어떠했을까? 간단히 정리해 본다. 그가 사용한 언어에 대해 특별히 관찰해 보면

첫째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었다. 둘째,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말이었다. 이전 말은 문제 해결이나 피상담자의 상황을 알기 위해 사용했다.

셋째,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말이었다. 이것은 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넷째, 정보 내지 지식을 주거나, 권면하는 형식이다. 다섯째, 명령하는 말도 있었다. 명령은 권면의 강한 형태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여섯째, 칭찬하고 수용하는 언어였다. 일곱째, 문제 해결을 선포하였다. 여덟째,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주는 설명적인 것이었다. 아홉번째, 체계적이고 필요에 따라 매우 논리적이었다. 마지막으로

---

63) H.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 p. 12.

그의 언어는 일상적이고 쉬운 말이었다.<sup>64)</sup>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일상적이지요 쉬운 말이었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대화의 특징들을 보면, 사람을 대할 때 특별한 형식 보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대화식으로 접근했다.<sup>65)</sup>

정치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또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연설보다도 아주 친숙한 담화에 의해서 더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그러나 대화란 단지 실용적인 가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기도 하다.

훌륭한 대화자가 되는데는 먼저가 훌륭한 정신이며, 다음은 훌륭한 마음이다. 훌륭한 정신에는 선천적인 능력, 지성,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훌륭한 마음에는 관대한 성품, 솔직성, 동정심, 열정, 진지함, 또 겸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대화자는 단지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sup>66)</sup>

예수님의 대화에는 훌륭한 정신과 마음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선천적인 능력과 지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신에 대한 훈련도 나타난다. 훌륭한 기질, 관대한 성품, 솔직성, 동정심, 열정, 진실함, 겸손 등이 나타난다.<sup>67)</sup>

또한 예수님은 상류사회의 사람이건 하류사회의 사람이건 누구나와 대화를 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화할 때에 그들의 상황과 정황에 맞게 대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64) 고시영, *예수사역에 대한 묵회 상담 분석*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원 논문, 1984), pp. 82-86

65)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 (서울: 지혜문화사, 1986), p. 62.

66) Home H. M, *Teaching of Jesus*, 박영호역,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0), p. 64.

67) *Ibid.*, p. 64.

## 제4부

### 죽 음

여기서는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늘 다른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결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간이 부딪치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가장 크고 최후의 것이 임종이다.<sup>1)</sup> 인류 역사상 성자로 불리워졌던 석가도 죽기 전에 “수레 바퀴가 깨지는 것 같구나!” 라고 했고, 공자도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라는 최후의 종말적 위기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

1) E. Kubler-Ross, ‘임종의 4단계’, 성염역, 신학전망 제31호(1975,겨울), p. 16

## 1. 임종자의 심리적 단계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변화를 통한 성장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각 변화 과정에서는 이전(previous)의 과정과는 다른 심리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퀴블러 로스(Kubler-Ross)는 임종자의 심리도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자는 보통 다섯 단계의 심리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 때로는 일부분이 중복되고, 때론 어떤 단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sup>2)</sup>

### 1. 첫째 : 부정(denail)과 고립 (isolation)의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치병(Terminally illness)에 걸린 것을 처음 알게 될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난 아니다(not me)”, “그럴 리 없다(No, it can't be true)” 라는 강한 부정적 태도가 된다.

어떤 환자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정을 확인받기 위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똑같은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그 결과를 부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최초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되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할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하나이다. 즉 거부하는 뜻밖의 충격적 소식을 받은 뒤 완충작용(buffer)을 하며, 환자로 하여금 자신을 가다듬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덜 강경한 방어 수단으로 대체하는 여유를 주는, 환자 자신을 보호하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3)</sup>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당신은 확실히 그 병에 걸렸으니 의사의 진단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심한 충격을 이해해 주며 “의사진단은 어떻게 됩니까”하고 관심만 보여주면 되겠다. 이러한 환자는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가족과 병원 직원들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족과

2) Elisabe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4), p. 38

3) Ibid, p. 39-40.

자신의 부정(denial)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므로 현재의 건강을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하고, 임종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현실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기 죽음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포기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발악하는 단계로 들어간다.<sup>4)</sup>

## 2. 둘째 분노(anger)의 단계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부정 대신 분노심, 사나움, 그리고 원망 등이 일어난다. 자신은 불가피하게 죽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왜 하필 내가(Why me)”하는 원망이, “나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또는 “나 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나같은 할 일 많은 사람이 벌써 죽어야 하다니” 등등의 생각들이 떠오른다.<sup>5)</sup>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계획이나 자기의 희망이 다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 분노의 근본적인 대상자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자기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씌여 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분노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가피한 죽음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환자 자신도 살아 있다는 확증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몸은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원한다. 환자는 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한 희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만은 이 병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기대한다.<sup>6)</sup>

이런 단계에서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목회자는 더욱 접근해야 한다. 쿠블로스는 환자에게 이해와 존경심을 전달하면 짧은 시일내에 분노 반응이 중단된다고 했으므로<sup>7)</sup> 반론이나 성경강론을 하지 말고 분노를 발산하도록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받아 주어야 한다. 그런 분노는 당연한 것이며 누구라도 그런 경우에 있으면 화를

4) Kubler-Ross, '임종의 4가지 단계' *Op.cit.* p. 19.

5) *Ibid.*, p. 50.

6) 김영한, “죽음에 대한 사목적 배려” *신학전망* 제 31권(1975, 겨울), p. 29

7) 이정숙, “죽음과 임종에 관한 개념 이해와 그에 따르는 사회 사업적 접근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논총* 제37집(1980), p. 10

낼 것이라는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환자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더욱 고독과 소외감을 맛보게 되므로 목회자는 환자의 입장에서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 3.셋째 : 타협(Bargaining)의 단계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려던 태도가 지나가면, 점차 현실을 바라보고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타협의 단계에 도달한다.이 단계는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착실한 행동을 해 보이고, 특별한 헌신을 하기로 맹세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sup>8)</sup>

이때 환자는 죽음이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타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 연장에 대한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임종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과 불편감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이때 타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데, 비록 이전에 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과 타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교회에 일평생 봉사하기로”, 또는 자기 몸의 일부나 신체를 무엇 무엇에, 아니면 어디 어디에 기증하겠다는 식이 되는 것이다.

이때 목회자들은 저들의 말을 받아들여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하고 신앙의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단계가 환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환자로 하여금 집안 일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며 남기고 가는 자녀들의 부양문제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 4.넷째 : 우울(depression)의 단계

환자는 점차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다.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환자는 “어쩔 수 없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상실과 이루지 못 한 일, 지금까지 저

8)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p. 45

지른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불치병 환자는 자신이 큰 상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상실은 여러가지이며, 신체적 기능의 상실 이외에 사회적 위치의 상실이나, 경제적 상실 등에 부딪치게 된다.<sup>9)</sup>

드디어 불치병 환자는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단계를 우울의 단계라 하는데, 반동적 우울(repulsive depression)과 예비적 우울(preparatory deression)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반동적 우울은 수술을 받고 자기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죽은 후에 자기가 하던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는 우울이다.

반동적 우울 다음에는 임박한 상실을 고민하는 데서 생기는 예비적 우울에 도달하는데, 이는 세상을 떠나야 할 때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울이다. 환자는 임박해오는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한다는 슬픔에 말을 잃으며, 자기 죽음에 대해 노골적으로 체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환자에 대해 목회자는 우울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비현실적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 우울 반응은 환자가 그의 가족과 가졌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 이 때는 지나친 확신을 피해야 하며, 언어적 의사 소통은 별 의미가 없고, 그의 곁에 오래 있어주며,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앞일을 위해 기도해 줌이 바람직하다. 또한 목회자들은 환자에게 내키는 대로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을 껴히 허락해 주어야 한다. 다만 영원한 이별과 결별의 시간을 “인간답지 못하고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고, 환자가 싫어하면 문병객을 제한하고, 병리 검사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며, 가능하다면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sup>10)</sup>

##### 5. 다섯째 : 수용(acceptance)의 단계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기분이 드는 상태가 수용의 단계이다. 수용은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 감정의 공백상태를 말

9) *Ibid*, p. 85

10) E. Kuber-Ross, *인간의 죽음*, 성염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9), p. 177

한다.

이 단계에 이를 때 자기의 운명에 대한 분노나 침울은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죽음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분히 기대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행복한 단계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때의 상태는 슬픔이나 행복이나, 분노를 느끼는 감정은 이미다 없어지고, 아픔을 감각하지 못하는 듯 하며, 병과 투쟁하는 것도 이미 끝나고, 어느 환자가 말한 것과 같이 "머나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과 같은 상태이다. 이 상태에는 환자는 자주 수면 상태에 빠지는데, 이 수면은 우울 단계에서의 수면과는 다른 차원의 수면이다. 다시 말하면 우울의 단계에서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절망적인 포기의 수면이지만 여기서는 무감정 상태의 수면이다.<sup>11)</sup>

환자들 중에는 끝까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싸우고,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일수록 평화롭게 수용의 단계에 이르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무난하게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 무난히 도달하는 길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해심을 보여 주고, 지나친 참견만 하지 않는다면 주위로부터 별로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수용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는 곁에 말없이 앉아서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필요하므로 목회자는 계속 심방하여 그 분의 유언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들려 주어서 공포와 절망을 초월한 실존상태에서 죽음에 임하게 해야 한다.<sup>12)</sup>

#### ①희망(hope)

죽음을 눈 앞에 둔 환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병의 과정이라든지, 적응 기제(coping mechanism)에는 상관없이 가장 현실적이고, 운명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한 가닥 희망은 반드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혹시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있지 않을까”하는 가냘픈 희망이다. 이와같이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또한 희망이 없이는 편안히 죽을 수도 없다.

11) *Ibid.*, p. 11.

12) *Ibid.*, p. 178

왜냐하면 희망은 임종환자를 지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적적 치료에 대한 희망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잘 지낼 수 있고 평화를 누리며, 환자의 고통 완화에 대한 희망이며, 사후에 대한 환자의 신앙이다.<sup>13)</sup> 그러나 환자에게는 지금의 일은 모두 악몽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몰래 스며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희망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준다. 그 사명감 때문에 환자는 정신을 지탱하고 온갖 검사를 참아낸다. 의사가 임종환자에게 희망의 여지를 주고 나면 환자들은 그 의사에게 크나 큰 신뢰를 바치며, 좋지 않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희망있는 말을 해주면 고마워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② 충격(shock)

충격은 슬픔의 첫 단계에서 규정지어지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갑작스런 충격은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깨어 버리기도 한다. 정신 생리학적으로 충격은 심장의 고동이 정확한 피의 유출과 함께 그 압력으로 동맥을 통해 각 기관에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전달되었을 때, 신호나 징후로 나타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소식을 들은 사람, 예컨대 딸이 자동차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 심장병이 발생한다.<sup>14)</sup>

이와 같이 충격은 마치 우리의 육체가 어떤 무거운 물체로 일격을 당했을 때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 ③ 심리학적인 수준에서의 공포

이것은 생리학적인 충격의 상태와 서로 관련이 있다. 공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일어난다. 치료자는 응급실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막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먼저 치료자는 공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명확한 리더십과 또한 자기 자신의 불안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포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13) Earl C. Gibbbs, *Caring for the Grieving* (Sanrafael:Crystal press, 1978), p. 71.

14) Kubler-Ross, *On Death & Dying*, p. 142.

다른 사람에게 공포가 전염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충격과 공포는 2일에서 5일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목회적, 의학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하며 돌봐주어야 한다.

#### ④마비 (numbness)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들은 최초의 충격과 공포후에 심한 정신 생리학적인 마비증세를 일으킨다. 그들은 허탈상태에 빠져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보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한다. 그들은 자주 그들의 손, 팔, 이마 혹은 목을 마치 자신이 몸의 일부분이 잠자리에 든 것처럼 마취나 되듯이 문지른다.

마비, 무감각, 무반응을 보이는 가족들은 인간으로서의 정신적인 일 처리를 하지 못하며, 깊은 심연속으로 빠져들고, 자기 결단을 내릴수가 없으며,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른다.

## 2. Hospice program

요즘 서구에서, 또 한국에서도 선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Hospice program이란 것이다. 이것은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돕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오래전만 해도 죽어가는 사람은 가족, 친척, 친구, 자녀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사나 병원의 팀들이 마지막을 지켜보곤 한다. 사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기관들의 태도는 어떤 심각한 자세보다는 직업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곤 했는데,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이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데 대한 반작용(reaction)으로 태동된 것이 이 Hospice운동이라 보겠다.

AD 475년경 시리아(Syria)의 투르만인(Turmanin)이 이Hospice운동의 시조라 보며, 19세기 중엽 메리 아이켄헤드(Mary Aikenhead)라는 사라이 아일랜드에서 시작했으며 20여 년 전에 시셀리 샌드스(Dr. Cicely Saunders)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sup>15)</sup>

어휘적으로는 Hospice와 Hospital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역시 "환대", "후대" 라는 뜻이 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일이 잠시동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 Hospice프로그램은 몹시 괴로운 병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환자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 Hospice에서는 죽음을 약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종결을 맞이하는 사람이 잘 지도를 받아가며 임종을 맞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다. 샌드스(Saunders)박사는 일반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성의들이 없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갈등 따위를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죽어가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나, 염려, 우울증 따위를 어떻게 잘 처리하며 도와 줄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하고 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Hospice프로그램은 특히 북미에서 대단히 선풍적이 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대표적인 두 군데가 있는데, 몬트리얼(Montreal)과 할리팩스(Halifax)이다.<sup>15)</sup>

미국에는 39개주 200군데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1971년에 Connecticut 의 New Heaven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program에서 하는 활동은 어떤 부분들인가?

①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다(Home care). 의사, 간호원 등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 보겠다. 가족들과 함께 죽어가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 환자의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일 등을 해 줄 수 있겠다.

② 병원 안에 상주하는 환자의 경우이다(inpatient care).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결국은 입원을 하게 된다. 각종 staff(의사, 간호원, 직업 치료사, 상업가, 자원 봉사자)이 도울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staff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 고통 조종이다(pain control). 환자가 아직 정신이 있을 동안에는,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15) Vincent W. Franco, "The Hospice prescription" *JPC* (1982, Vol. 36), p. 47.

16) Montreal-Palliative Care Service at Royal Victoria Hospital  
Halifax-Victoria General Hospital. *Ibid*, p. 48.

㉞ 다른 징후를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다(common symptoms). 기침을 자주 하고, 밥맛을 잃고, 지나친 열려, 우울증 등등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㉟ 자녀의역할 - 환자 방에 자녀가 있게 하여 자녀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환자가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자나 staff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caring을 통해서 죽음이나 또 가족들 누구를 잃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된다.

㊱ 자원 봉사자들- 사회 각 계층의 자원자들이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 편지 배달부, 안내자, 또는 연애인(키타맨, 성악가)등을 들 수 있다.

㊲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다. 특히 어떤 예술적인 표현은 (시, 그림 따위)죽어가는 환자의 가장 내면의 사상이나 두려움 또는 기대감 따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때로는 그런 환자를 위해서 음악, 연극,무용, 영화 따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㊳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부속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위한 투약도 신경써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도 남김없이 정리하는게 필요하다.

㊴ 원목(Chaplain)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교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영적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제(Priest)나 랍비(Rabbi), 스님 등 종교적인 필요를 최대한으로 공급하며, 또 소개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Hospice care의 영적인 측면은 어떨까? 영적인 사실 어떤 하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선 환자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라 보겠으며, 또 하나는 원목이나 목사에게 의해 수행되는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관에 의한 것이라 보겠다.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내부와의 관계이며, 타인과의 상호 관계이며, 또 종말적인 방향 제시라고 본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지막을 향한 죽음에 관한 것을 종교적인 측면이라 생각한다.

종교라는 어휘는 사실 Re-Ligio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Ligio라는 말은

"다른 것과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sup>17)</sup> 그러므로 종교란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있고, 또 자신의 삶과 관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세속 세계를 넘어 거룩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죽음의 정의가 어떤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것이 떠나는 것이라면, 자신과 관계(intrapersonal)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프로이트(Freud)가 말하는 식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기회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끝(end)이라는 말은 희랍어로 테로스(telos)라 그러는데, 그 뜻은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이요, 라틴어로는(finis)인데, 희랍의 뜻과는 달리 "마쳤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이란 것은 일의 성취(fulfillment)요, 또한 마침(cessation)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보겠다.

죽음이란 것을 다른 것과의 상호관계(interpersonal)에서 본다면, 그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생각해야 하므로 주위의 모든 것과 잘 정리가 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통이라든가 죽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본다면 저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divine expectation)를 이루는, 즉 새로운 생명과 교환되는 믿음을 갖고 숨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astoral care 입장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측면을 수용하도록 격려해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모든 과거를 화해케 해 주고, 현재에서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미래에 대해서는 죽은 후의 삶에 대해 지나친 강요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에 대해 실패한 것들, 성공한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잘 정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결국 Hospice program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육체적인, 심리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라 보겠다. 이런 도움들을 통해 환자는 복합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들과 화해하고, 잘 정리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

17) *Ibid.*, p. 54.

### 3. 형제 자매의 죽음

자녀가 두셋 있는 가정에서,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슬픔에 대처해야 되거니와 또 죽음을 나머지 형제 자매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고, 그들의 감정을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남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 영향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얘기는 자녀들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므로 얘기하는 것을 피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나머지 자녀들의 필요(needs)를 잊어버리고 만다.

여기서는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가족 중에 어린이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죽음에 관한 느낌들이고, 또 하나는 부모나 전문가들이 그들의 감정에 어떻게 응답하고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사실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의 상담이 필요한데, 자신들의 슬픔에 못이겨 거기에 사로 잡혀 그런 도움을 요청치 못할 때가 있다. 원목이든 아니든 담임목사이든 그들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협조와 올바른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우선 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른 애들에게 사실을 말해 줄 것인가” 또는 “그 애들을 장례식에 데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어린이에게 관계된 내용을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한 가지는, 어린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두번째로는 그런 느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고, 세번째로는 죽음에 관한 개념을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친구나 형제 자매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죽음에 관한 견해를 노출시키도록 자녀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서슴 없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본다.

첫째, 죽음에 관해 얘기 한다든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꼭 가치있는 일이다. 사실 아이들이 죽음에 관한 이해는 어른들의 이해와는 전연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에 대한 언어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만은 사

실이다. 죽음이란 것은 “깊은 잠이 들어버린다거나, 긴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천사처럼 된다”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될 것이다.

사실 죽음을 형제 자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다 하여 말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의혹이서 그들이 헤어나지 못한다. 확실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그들의 슬픔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분노 등을 표현하도록 조성해 주고, 받아주어야 한다.

장례식에도 데리고 가서 확실히 “Good-bye”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때로는 죽은 자(친구 또는 형제)가 좋아했던 인형이라든지 기타 장난감을 같이 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례식이나 장례예배에 참석하게 함으로, 어린이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을 없애주어야 한다.

스토이즘(Stoicism)에 의하면, 자녀들 앞에서 어른들의 슬픔이나 고통 따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도 같은 슬픔을 겪고 있다는 공감을 갖게 하므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다.

둘째로,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한 느낌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우선 잃어버림(loss)과 헤어졌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잃어버렸다는 감정은 언젠가 부모님으로 부터도 헤어지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가끔 이런 얘기, “누구, 누가 굉장히 보고 싶어.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잖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죄책감을 느낀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형제 자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아이는 죽은 형제 자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 뭔가 자신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 자녀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 병, 사고, 등등으로 죽은 것이지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본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이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병이나 사고로 인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의 어린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염려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주어야 한다.

㉔ 형제 자매의 죽음으로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 어떤 부모들은 이런 일로 나머지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보호하는데(overprotective),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반면에 지나치게 자녀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withdrawal) 좋지 않다. 죽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감정(슬픔, 분노, 실망 따위)을 보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 때 보아온, 또 느껴온 부모와는 너무 판판이므로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㉕ 낙담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 형제 자매가 없어졌다는 데에 대한 낙담이다. 분노는 죽은 어린이에 대해, 또는 부모나 의사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적당히 받아주는 것이 좋다.

㉖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가 왜 죽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종교적인 해답을 얻으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주고 받으며,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로 어린애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

우선 그들은 죽음에 대해 부인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마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또 죽음이란 것은 육체적인 기능의 정지로서 보고, 자기들도 그런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도 늘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겠으나, 어린이들이 잘 갖고 노는 게임을

통해서(인형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쪽이 죽는 모습), 동물이나 곤충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책들에서, 이웃집의 장례식을 통해, 특별히 장의사(funeral home)등을 방문하여(전문가 동원)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죽어서 태어난 아기

사산아(죽어서 태어난 아기)를 낳은 부모는 대개 그 사실이나 감정들을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개의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 자신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보다 병원에서 그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In-hospital cremation). 어디서 처리하든지 간에 추도 예배를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경우, 그 사산아에 대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위 환경이 그렇게 종결 짓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병원측이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보통이다. 오직 산모를 알고 있던 목회자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런 경우이기도 하다.

사산아의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개 사람들은 사산아를 낳은 부모(엄마, 아빠)의 슬픔은 별로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유증도 금방 가실 걸로 생각한다. 사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 못지 않게 사산아의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sup>18)</sup>

사산아의 부모들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몇 가지는, 애기의 이름짓는 문제, 장례식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사진들(X-Ray 따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가 애기를 보도록 하느냐, 안 보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병원은 부모에게 애기를 안게 하여 고별을 표현하도록 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울고 싶을 때는 울게 내버

18) G. Davidson, *Understanding death of the wished-for child* (Springfield, IL: OGR Publishing co. 1979), p. 94

려 두는 것도 정신 건강상 펍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개 병원에서 부모에게 보이지 않고 사산아를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부모가 애기를 보고 안아 봄으로 해서 부모 자신이 애기를 장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사산아를 당한 슬픔에 더욱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시체 검사 결과이다. 간호원, 의사 그리고 가족들이 사산아의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을 더욱 가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젊으니까 또 애기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그 길이 당신에게 최선의 길이었어” 등등의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 사산아의 부모로서는 사산아 대신 또 다른 애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애기와 꼭 같은 애기는 이 세상에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시체검사의 결과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애기 부모는 애기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을 많이 느끼느냐, 적게 느끼느냐, 아니면 아주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자칫하면 부모 자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감정 표현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성한 사람이 또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애기다. 엄마의 정신적인 괴로움은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데 죄의식, 염려, 두려움, 침체 따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가지 염려는 애기를 또 갖느냐, 아니면 입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거나, 혹은 입양한 아기와 죽은 애기를 늘 비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 주어야 하는 사람은 역시 목회자이다. 사실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 또는 사회사업가 등 전문가들은 사건 당시 한 두번 부모와 접촉은 하지만 곧 손을 떼고만다.

이러한 경우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병원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가장 요구될 때는 바로 긴급한 상황일 때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 없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목사는 가족에게 그런 사실을 빨리 알리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장례시까지 서둘러서 준비 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병원측과 모든 게 협의되어야 한다. 애기의 부모와 가까이 하여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는 것은 그 애기가 그만큼 부모나 가족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부모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목사가 하는 것이 좋다. 부모들은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찼기에 이것 저것 챙기고 돌볼 여유가 없다. 목회자가 가능한 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판단하여 부모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애기가 죽은지 몇 달 동안은 부모와 다른 가족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까지도 목사가 신경써 주며 교량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친구, 친척 또는 가족이 같은 교회에 나온다면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으로 모색한다. 때로는 당사자와 함께 공개적인 모임도 필요하지만, 또한 본인과 목사와 단 둘이서 대화도 필요하다. 목사의 판단하에 상황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사례연구(정양의 죽음)

이 사례는 실지 있었던 일인데, 이름 장소 등은 필자가 익명으로 바꾸었다. 십대 소녀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병원 원목, 담임목사, 소녀의 가족, 지역 사람들, 그리고 상담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의 원목 김목사(여자)님은 원목으로서 아주 노련한 분이었는데, 하루는 간호원에 의해 정양(환자)과 그녀의 부모들을 만나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양은 고등학교 3학년(17세)으로서 몸에 열이 너무 나서 병원에 들어 왔는데 벌써 3주가 지났다.

정양의 집은 바로 병원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변두리에 있었다. 간호원은 원목에게 그녀의 가족들이 3주 동안이나 꼬박 정양의 곁에 있었다고 귀찮게 주었다.

간호원들은 정양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이라고도 하고, 어떤 의사들은 콜라겐병(Collagen : 열병의 종류)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적당한 약을 썼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다.

김목사가 정양의 방에 들어갔을 때 가족은 다 나갔고 정양 혼자 있었는데

데 방안이 온통 꽃으로 가득차 있었다. 방의 벽과 창문에는 친지들, 친구들이 갖다 준 수십 개의 카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몇 가지 주위 환경이 정양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김원목은 느꼈다. 사실 그녀의 부모들은 한시도 정양을 떠나지 않았다. 원목은 처음에 정양이 외동딸인 줄 알았는데, 후일에 알고 보니 15살난 남동생이 있었다. 그는 늘 친구들 집에 가서 자곤 했는데,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은 집에 와서 누나의 건강상태를 전화로 기다리곤 했다. 그리고 부모와 주고 받은 내용들이 (정양의 건강상태) 그 다음날 지역 신문에 나곤 했다.

김원목은 정양과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 교회 담임목사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서 온 지역 교회들이 정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정양은 병원에서 나와서 가까운 건강센터에 드나들면서 많이 회복되어 대학까지 합격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점점 더 그 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까지 퍼졌다. 그러나 정양의 아버지는 정양의 병이 나았다고 확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끔 아픔으로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원목을 찾아가 좀 불안하다고 염려를 표시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정양의 병이 또 심각해져서 병원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병원에서 정양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서 미소조차 짓기 힘들어 했다.

지역교회 담임목사가 방문해서는 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본교회 목사는 사실 그녀의 건강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기에 매일 밤 기도회를 인도했다.

10월 경에 그녀의 건강은 매우 좋아졌다. 11월 초순에는 완전히 완치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10월 10일 경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더니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의 부모들은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정양의 모든 것을 챙겨서 집으로 갖고 갔으며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첫날까지 약 1주일 간 그 동네에서는 정양을 위한 장례가 펼쳐졌다. 장례 예배는 완전히 부활의 기쁨에 관한 것이었다. 정양의 친구들도 몹시 슬퍼했고, 본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위로식이었다.

본 교회 목사는 그 후에도 원목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양의 병과 죽음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정양의 엄마와 남동생은 교회를 평소처럼 다녔지만, 아버지는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고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한숨 짓곤 했다. 교인들은 정양이 믿음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왈가왈부 하다가, 얼마 지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한편 정양을 담당했던 간호원들의 요청에 따라 병원의 김원목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병원에 일 보는 사람들(cleaning housing staff) 4명과 22명의 간호원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단지 두 전문가들의 견해를 생각해 본다.

#### ㉠ 타병원 목사의 견해

우선 Pastoral care에서 기도의 역할이다. PC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는 종종 신학교에서 주고 받고, 세미나도 갖고는 한다. 정양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사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낫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정양의 죽음은 비극적인 참사다. 신비하게도 그녀의 생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죽었어야만 했다. 교회는 사실(reality)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환상적인 희망(fantasy hope)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녀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남동생, 병원의 원목,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한 해답을 줄 수가 없었다.

단지 아버지만이 현실(실재, reality)을 직시했을 뿐이다. 그만이 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했다. 그는 사실 지방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의혹을 가졌었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교회의 사람들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양의 어머니는 지나친 보호심, 지나친 거절, 딸의 죽음에 대해 부정(denial)했던 부정직한(dishonest)스타일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양의 어머니와 비슷하다.

정양의 남동생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병원의 일을 지역에 알리는 유일한 통신로였다. 누나가 죽은 뒤로 아버지 대신 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정양의 담임 목사(본교)는 아무래도 자신의 소신과 회중의 요구사이에서 애를 먹고 있는 모습으로 부각된다. 기도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혹은 가졌으나 기도회를 인도했다. 지역 교회 목사로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감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대부분의 목사들의 style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병원 김원목의 역할은 꽤 중요했다. 그녀는 정양에 대해 가족들의 현재 입장, 환자의 건강 상태 등등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Pastoral care giver로서 가족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병원의 staff들과 간호원들의 요청을 잘 받아들여 추모예배를 드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이슈를 얘기해 보려 하는데 우선은 "기도"에 관한 것이다.

병원 원목에게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정양이 죽은 후 추모 예배시에는 했겠으나 그 이전에는 발견키 어렵다. 또 한가지는 24시간의 기도에 관한 것인데, 기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생기는 차이점이다. 이때의 기도는 개인들이 희망과,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는다. 병은 종종 죽음으로 인도한다. 두번째 이슈는 죽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의사, 간호원을 막론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에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환자가 잘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 책임이 있다.

#### ⑥가족상담 전문가의 견해

이 사례에 대해서는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좋은 것(good)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죄, 염려, 두려움, 거부, 이기심 따위를 받아 주는 자세이기도 하다.

정양의 어머니의 경우 딸의 건강 상태의 현실(reality)을 부정하려는 자세, 그녀의 두려움, 염려 따위를 거부하려는 것은 일종의 자기 희생적인(self-sacrificial)사랑이다.

정양의 아버지의 경우 딸의 소망에 대한 희망이 없지만, 그것을 표현 안하려는 자세, 그의 이때의 두려움, 거부 등을 속으로만 새기고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협조적이고(supportive), 격려해 주는(encouraging)사랑에 속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원 원목, 지역 교회 목회자, 성도들 모두 다 사랑이라는 내용을 다르게들 표현했을 뿐이다.

가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랑"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가족들 개인의 귀중성과 가치성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 상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두려움, 염려, 부정 또한 사랑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한다.그러나 사실 그것은 서로가 잊어버린 게 사실인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또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간략한다.

## 제5부 가 정

## 1. 노인문제

노인들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가지 즉, 건강, 경제, 사회문제로 볼 수 있겠다.

우선 건강 문제에서 65세 이상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2명이 관절염이 있고, 442명이 심장병이 있다고 한다.<sup>1)</sup>

보통 사람은 의사에게 1년에 평균 5번 정도 가는데 노인네들은 (65+)평균 8번 이상씩 간다고 한다.

그 다음은 경제 문제인데, 사회 보장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42%, 자기가 벌어서 쓰는 사람이 10%, 자녀로부터 도움을받는 것이 0.5%라고 그런다. 그 외의 사회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면 신학 수업에 과연 이런 이슈를 넣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대해 배우는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역시 나이 들어(getting older)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선 목회의 많은 시간이 노인네와 보내게 된다.(심방따위)또한 노인네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은 위기를(Crisis)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점점 더 전문화 시대가 되므로 노인들이 소외되어 가기 때문이다.

## 2. 노인목회(Aging ministry)

그러면 노인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시 필자가 목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세미나 초안을 실어본다. 강의 제목은 "노인 목회" 였다.

어떤 프랑스 작가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오랜 전에 발리(Bali)라는 산골짜기 동네에서는 노인을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노인네를 다 제물로 쓰고 한 명도 남지 않아서 그 전통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이 모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큰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잘라야 했는데, 잘못 자르면 밑에 있는 집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

1) David D.Moberg, "Challenger form our Changing Society', *Review and Expositor*, (Kentucky: Southen Baptist Theological 1991. Summer vo.88.No.3), p.183

그때 젊은이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노인네를 다시 제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이 나무 자르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하니, 그 젊은이가 숨겨둔 자기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와서 그 할아버지가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위험하지 않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참으로 의미있는 얘기라 생각된다. 사실 노인에 관한 것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등한히 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노인의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도 소홀히 여겨져 왔다고 본다. 어떤 인구조사에 의하면 노인네의 인구가 1900년대에 4.1% ,1987년에 12.3%, 2030년대에는 무려 41%나 되어 버린다고 한다.<sup>2)</sup>

21세기 초반을 맞아 더욱 더 부쩍 늘어났다고 그린다. 1950년대를 “Baby Boom”이라 그러는데, 그때에도 노인네 인구는 증가했다 그린다. 캐나다의 한인 교회 경우, 반 수 가량이 60세 노인네들이다. 100명이면 4, 50명은 노인네다.

이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점점 더 늘어나, 최근 학계에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일반대학에서는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과목이 있고,신학교에서도 이 노인목회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했다.

서구 교회는 교회 내의 가장 큰 이슈로 이 노인문제를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전담 목회자가 있는 교회도 있다.<sup>3)</sup>

외국의 신학저널을 보면 거의가 다 몇 페이지씩 이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학자는 노년기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best years)"라고 보고, 어떤 이는 노년기를 "자라나는 젊은이(growing young)"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년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저하해 본다거나, 또는 너무 낙관적으로 과장해 봐서는 제대로 실재를 이해하기 힘들리라 본다.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네의 영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이 꼭 육적인 것의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전체 속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Ibid*, p. 183.

3) 노인문제와 함께 갖기 시작하는 것이 독신자(Singerness)에 대한 목회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 상조 같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PC에서 말하는 영적이란 "교회 간다, 안 간다.종교적으로 헌신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기 보다는 인생의 가장 깊은 내면, 영역을 의미한다.

영적인 의미를 꼭 "종교적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한다면, PC의 대상이 꼭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를 care하고 사랑하기 힘들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내지 이유는 궁극적인 구원과 또한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abundant life)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네가 되어가면 갈수록 종교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교통편이나 건강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고 싶어한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노인네의 실제 당면 문제와는 별개로 아예 그런 분야에 신경 안 쓸 수가 있다. 노인네의 영적인 면은 노인네의 상황, 입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고, 뭘 원하느냐 하는 걸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노인들의 문제는 꼭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life circle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현실을 보면 많은 노년기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을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다.(care-giver)

많은 노인네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 비관적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독이라는 것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병이다. 목회적인 방문으로 그런 고독감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서양의 경우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 아파트(Senior APT)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 아파트 구조도 꼭 감옥같이 직사각형으로 그 안에 부엌, 화장실 등 모든게 다 들어 있다. 하루에 5분도 좋다. 잠시 들어 주는 것만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방문시 말을 꼭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방문은 꼭 필요하다.

노인네를 3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첫번째는 내리막길(down hill)이라는 개념이다. 50세까지는 오르막길이고, 50세 이후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을 즐겁게, 만족하게 보낸 사람일수록 이 down hill을 잘 인정

치 않으려고 한다. "기술을 많이 가지게 되면 될 수록 더욱 더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과 마찬가지로 보겠다.

인생의 짐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고, 자유롭게 되기 쉽다.

목회자는 노인네 인생 스타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노인네 개인마다 독특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네의 육체적 건강에만 신경 쓰면 그런 쪽만 보게 되므로 다른 문제들은 눈에 잘 안 띄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잃은 것도 있지만, 또 얻은 것도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loss some, win some). 인생이 아주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아름다웠다고도 생각지 않는것, 즉 두가지가 늘 존재한다고 보는것이다(Not too bad, not so good). Paul pruyser라는 학자도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노인네는 다른 사람(즉, 자녀, 이웃)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고, 또 외부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갖는다고 하며, 마음에 맞지 않는 현실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개념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뭔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간다(becoming)라고 보는 것이다.

슬픔이나 고독을 되씹는다든가 또한 죽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가 먼저 노인 자신의 가치를 발견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런고 하니 7, 80세가 되면 노인네들은 거의 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style이 되버리기 때문이다(I don't want to buy green bannanas).

교회가 이런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 Robert Buxbaum 은 말하기를 “신학교에서 노인학에 관한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느 세대의 목회도 할 준비가 안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바 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회의 사정이나 또 노인네의 상황에 따라서 독특하게, 현실에 맞게 세워져야 될 걸로 생각한다.

몇가지 양식을 소개하며 설명하려고 한다.<sup>4)</sup>

1. 우선 교회가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더 필요성을 알아야 협조가 가능하다. 교회의 협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회의 중직이든 아니든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program을 만들때 노인들의 반응과 협조를 통해 구상하는 것이 좋다.
2. 목회자, 위원장,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프로, 특별프로 등을 검토하면 좋겠다.(#1,2)
3. 노인네들의 필요와 관심이 뭔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 자체 조사도 필요하지만 관심있는 교인들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면 참고할 게 많다.(#3)
4.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며, 또한 다른데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6. 회장, 부회장 등 조직을 만드는데(#4, 5) 특히 #4의 원위원회는 늘 교육이 필요하다.

#### <별지#5. 담당자의 할 일>

- 회장 - 노년 목회 책임자와 가까이서 일한다. 각종 모임의 사회, 특별 모임 준비, 활동들을 확인하고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필요시 직무 대리, 연락망(전화)조직 특별 모임시 회장을 도운다.
- 총무 - 각종 모임 정리 및 유인물을 철해서 보관, 특별활동 모임시 손님으로 온 사람들 명단 정리, 1년 계획서와 연말 보고서를 준비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 - 일반 모임의 계획을 세우고, 특별 활동 계획

---

4) 별지 #1~5참고. *Ibid* (Review and Expositor, pp. 223~227)

시에에는 회장을 도운다.

여행 담당자 - 회장과 목회 책임자와 여행에 관한 것을 상의하고, 거기에 관한 각종 업무를 위원회와 의논한다.

사회활동 담당자 - 각종 사회활동, 교제, 그리고 파티 따위를 계획, 실시한다.

그 외 출판 담당자, 경조 담당자, 접대 담당자, 그리고 장식 담당자 등을 둘 수 있겠다.

<노년기 성도를 위한 교회의 일반 준비(대비)

별지#1

|         |  |
|---------|--|
| 예 배     |  |
| 봉 사     |  |
| 활동 및 교제 |  |
| 특별강조부분  |  |
| 설교,목회기획 |  |
| 예 산     |  |
| 교 회 장 소 |  |
| 기 타     |  |

## &lt;노년기 성도 현황&gt;

-

## 교 회

## 양식#2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1/<br>교인 전체인원 |      |      |      |      |      |
| 교회내 65세이상     |      |      |      |      |      |
| 60 ~65 세      |      |      |      |      |      |
| 55~ 60 세      |      |      |      |      |      |
| 2/주일학교등록      |      |      |      |      |      |
| 65 세 이상       |      |      |      |      |      |
| 60 ~ 65세이상    |      |      |      |      |      |
| 55 ~60 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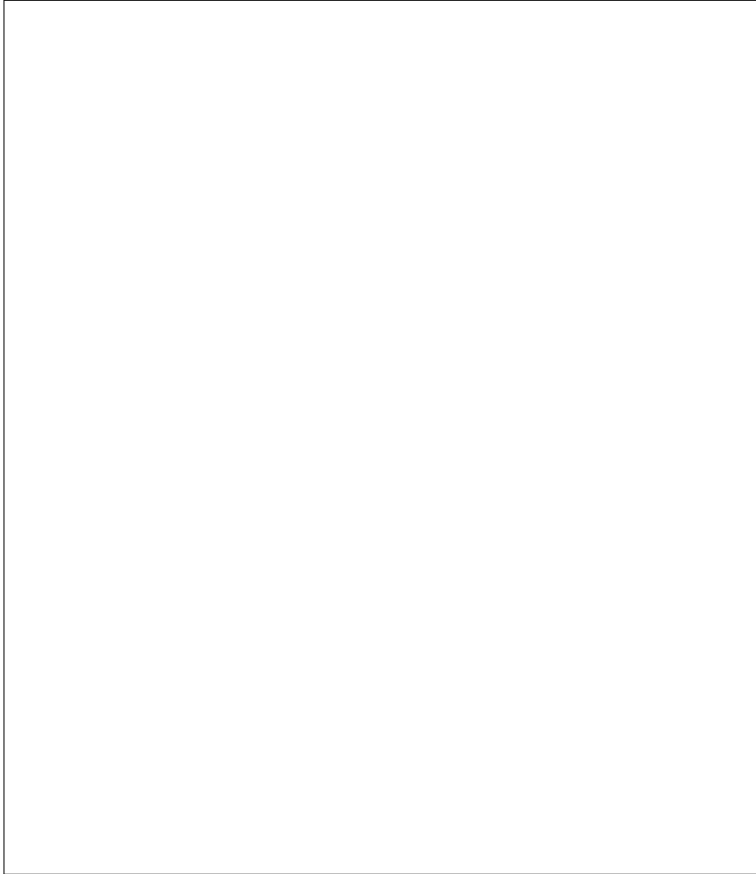
< 현재 노년들을 위한 교회의 활동 >

|                               |                            |
|-------------------------------|----------------------------|
| <p>영적 성장</p> <p>_____</p>     | <p>배우는 기회</p> <p>_____</p> |
| <p>사회와의 상호관계</p> <p>_____</p> |                            |
| <p>봉사 기회</p> <p>_____</p>     | <p>기 타</p> <p>_____</p>    |

양식#3

< 노년기를 위한 목회 조직 >

양식#4



별지#3을 좀더 설명하면,

- ① 영적 성장-계절 성서학교, 수련회, 기도회, 헌신생활, 선교협조, 노인상호 방문등.
- ② 배우는 기회 - 노후 관리, 수공예품 만드는 법, 전시회, 운동법, 보건소, 진료소 방문.
- ③ 사회와의 관계 - 각종 놀이, 운동 경기, 전시회, 노년 회관 방문, 역사유적 관람.
- ④ 교회 서비스 - 간단한 식사 제공(“노년 주일”), 각종 정보 제공, 전문가 연결, 시력, 청각 돕기, 자녀와의 연결 등.
- ⑤ 기 타 - 자원봉사 따위

이런 계획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장년으로 구성된 노인방문 팀인데, 목회자 자신이 다 못하므로 평교인 중 몇 명을 뽑아서 교육시켜 방문자로 일하게 할 수 있겠다.

방문해야 할 대상들(노인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시간을 내어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능력 있는 사람들), 계획 구조가 개발되어야 한다.

방문 후 모여서 평가회를 갖는 게 필요한데, 평가회시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role play를 해봄으로 분석, 평가,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다음 방문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본 바로는

- ① 매주 목요일 동네별로 노인네를 교회로 모시고 와서(교회 버스 운용) 간단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목회자의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오락이나 유희같은 것을 재미있게 한다. 메시지 전달시 너무 종교적으로 짙으면 거부 반응을 가지므로 평범한 진리를 소개하는 식으로 한다.

노인네 20여 명이 오는데 본 교회 신자는 10명 정도 나와서 두명당 한명이 옆에 앉아서 도와준다. 1명 당 1명이면 더욱 좋으리라 본다.

- ②주일날 교회올 때 모시고 오기 운동인데 혼자 오시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말아서 교회까지 같이 오는 것인데, 걷기에 불편한 노인제도 있고, 또 말동무도 되고 해서 참 좋은 걸 보았다.

일년에 두 세번씩 노년 주일을 정해 불신 노인들까지 초청하는 식

으로 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특별 program을 갖는 것도 보았다.

### 3. 결혼

#### ㉠ 결혼전 상담

앞으로 결혼하게 될 예비부부(premarriage)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편만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고하니 결혼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결혼 전에 한번쯤 생각되고 서로 얘기되었어야 할 것들인데, 그런 과정(pre- scription)이 없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주장하기를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 program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sup>5)</sup> 우선 목회자와 예비 부부들 간의 신뢰성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예비 부부들이 자신들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알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서로의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내게 하고, 결혼의 의미를 그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한 번 내지 그 이상의 결혼 후 모임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도와 주려는 데 상담의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결혼 전 상담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결혼의 목적이다.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기에 관계된 얘기들을 서로 자유로히 해 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맞다, 틀리다"식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결혼의 목적을 충분히 검토, 생각해 본 후에 서로를 아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해서 적어 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① 우선 가족 배경이라 보겠는데, 나이, 태어난 곳, 이사는 어디서 어디로, 형제 자매는 몇 명이나 되며,그들 중 결혼한 사람은 있는지, 부모의 나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고,시기별로 어려서부터 10살까지, 11살에서 18살까지, 그리고 대학 시절 등등으로 설명하

5) 이종현 역 (하워드 클라인벨저), *성장 과정을 통한 부부 과정* (서울: 기독교회사, 1990), p. 81

여 적어보게 한다.

② 그 다음에는 사회 배경에 대한 관점(돈, 교육, 직업)이라 보겠는데, 생활에서 돈은 늘 충분했는가, 불충분했는가, 누가 돈을 관리했고, 직업은 어떤 것을, 어디서, 또 은행 돈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공부를 더하기를 원하는가 따위를 적어보게 한다.

③ 세번째로 성(sexuality)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sex)의 토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open topic or taboo), 데이트는 언제 시작했는가, 상대와 헤어질 때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느낌이 어땠는가, 성적 충동이 강한가, 약한가, 자녀를 몇이나 갖기를 원하는가 등등을 표현하도록 해본다.

④ 종교에 관한 것인데, 어릴 때부터 종교는 가졌는가, 누가 인도했는가, 지금은 교회에 잘 나가는가, 종교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등등이다.

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관점인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상대방에 대한 관점을 말해 보게 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려해 보는 과정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목회자와 셋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각자와 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목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⑥ 원만한 부부생활

현대 부부들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부가 드문 이유는 부부 각자가 자신들이 어릴때부터 결혼 전까지 성장해 오면서 가지게된 마음속의 갈등, 의혹, 의심, 분노 따위들이 해소되지 않고 결혼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결혼 생활에 내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잠재력 개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마틴 부버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영원한 보물과 그것을 발견해야 할 의무”를 갖도록 돕는 과정이라 하겠다.<sup>6)</sup>

6)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Boston : Beach publishing co, 1955), p. 84.

첫째는 사람안에 있는 능력들(지적, 영성적, 창조적)을 개발시키고, 인간의 깊은 욕구를 서로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돕는 단계로 한걸음 더 차원 높은 것이라 보겠다.

이런 것을 도우는 방법으로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 신과의 관계를 개발시켜 주고, 건설적인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해 주고, 위기의 고통과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이용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라 보겠다.<sup>7)</sup>

그러나 또 한가지 다른 방법으로는 계획적(intentionally)으로 결혼생활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4단계가 있겠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표현하게 하고, 둘째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게 하고, 여기서의 비슷한 요구 사항이나, 대립되는 것 그리고 다른 것 등을 구분해 보게 하고, 셋째는 위에서 표현된 내용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세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천에 옮기는 단계인데, 성숙한 부부나 소규모 그룹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sup>8)</sup>

위에 것들은 방법론인데 과연 원만한 부부생활이 영위되자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선 부부 대화의 시간과 기회가 종종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서로 표현(communic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 안에 좋은 점(merit, strengthen)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충안에 타협함으로써 갈등을 즉시 해소하는 게 좋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따라 주고 자기 의사를 설득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기회가 있는대로 순간 순간 천진난만하게 놀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과 더불어 또는 혼자라도 깔깔대고 웃어보는 법도 익혀야 한다. 그것이 서로에게 축소판 휴가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뢰성, 이해심 따위가 항상 필요하다.

## ㉞ 결혼과 애기

7) H,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 p. 179

8) *Ibid*, pp. 27-30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애기를 나으면 언제 애기를 갖고, 몇 살 차이로 생기게 하고, 그리고 몇 명의 애기를 낳느냐 하는 애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질문, "과연 자녀를 갖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이냐, 또는 계획하지도 않게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던져 볼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로서는 이런 계획과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있어야 할 뿐아니라, 그들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자녀를 갖든 않든, 결혼한다는 자체는 의무와 책임을 서로가 수반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가 목회자에게 찾아왔다. 아파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들은 가구를 사고 벽에 예쁜 벽지를 바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일해서 몇년 내로 집을 살 계획이었다.

목사는 자녀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설명하기를 곧 바로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대신 집을 사고, 그리고 돈을 먼저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먼저 우리는 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확실히 알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애기를 갖겠습니다."라고 여자쪽이 말했다.

목사는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하고, 애기를 갖게 되면 몇이나 나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둘 다 동시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했다. 그러나 목사는 자녀에 관한 얘기를 이모저모로 나누었다.

요즘에 와서는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되니 그런 것들이 자연히 자녀문제(갖느냐, 안 갖느냐, 몇 명)와 관련짓게 된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안 가지려는 생각이 현대 여성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도 한다.<sup>9)</sup> 결혼을 하고 애기를 갖는 것이 꼭 여자로서 할 일만은 아니라고들 생각한다.

결혼 후 애기를 바로 갖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첫째로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 보자는 것이다.<sup>10)</sup>

어떤 의미에서 현대 여성들은 여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아내되고 엄마

9) Judith Ann Erlen, 'Facilitating a Responsible Decision About parenthood,' *JPC* vol 36, 1982. p, 251

10) *Ibid*, p. 252

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만이 여자로서의 할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겠다. 특히 여성 운동가들(woman's movement)은 이런 방면에 선구자들이라 보겠다.

목회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상황이나, 인생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고려할 필요는 있으며, 반면에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parenting decision)에 대해서도 권면할 필요는 없다.

#### 4. 청소년(Teens)

소크라테스는 “내가 만약 아테네(Athen)의 최고 지위에 오를 수만 있다면, 시민들이 돌을 다듬어서 재산을 모으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하여 모든 것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지 소리 질러 묻고 싶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십대(Teens)에 대한 상담은 어떤 세대의 상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십대는 어린이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인도 아니고, 상대만의 독특한 관심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Teens)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어른들이 자기들을 이해해 준다고 믿어지면, 솔직하고 담백한 마음과 태도로 어른들과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sup>11)</sup>

그러면 십대들의 독특성은 무엇일까?

- ① 우선 그들은 과도기에 있는 자들이다. 과도기란 것은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른스런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전적으로 긍정하여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그들의 입장에서)하여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 ② 십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들이다. 십대들에게 투자한 것은 머지 않아 결실을 보게 되며, 능력있는 훌륭한 인물이

11) 양승달 역 (클라이, H. 내래모어), *상담학 개론* (서울:성암사, 1984), p. 158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십대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므로 그들의 잠재 욕망과 능력이 성년기로 들어가서 꽃 필 수 있도록 훈련되어 지고, 또 다듬어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 주어야 할 책임인 것이다.

③ 십대는 이상주의자들이다. 십대는 세상을 낙원인양 생각한다. 그리고 십대에게는 유토피아(utopia)가 현실로 생각된다. 그래서 진리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빛나가고 허위같이 보이면 울분을 가지며 참지 못해 한다.

④ 그들은, 능력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다. 미성숙, 경험 부족 따위가 그들을 대표하는 용어라 보겠다. 사실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능력은 자신(self)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부족한 경험을 지혜롭게, 적절히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

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자들이다. 이러한 때에 청소년에게는 제어하는 힘이 약하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 성장에 자연히 호기심이 생기며, 자신의 의문을 풀려고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한다.

⑥ 십대는 도전적인 것에 감흥되기 쉬운 자들이다. 이들의 생각은 자신을 자극하여 주는 자들에게 늘 사로잡힌다. 그래서 운동 코치는 이러한 점을 알기에 늘 승리에 대한 강한 충동을 불어 넣어 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십대들은 어둡고 도전적인 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꿈꾸기도 하고, 편안한 데에서 만이 아니라, 장애물 있는 곳에서도 일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십대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다. 더 나아가 뭔가 활동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의심할 것 없이 종교적인 봉사 활동은 이러한 세대의 활동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 이러한 것들이 십대들의 특징이므로 먼저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십대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사춘기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열쇠는 “관심(호기심)”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생애를 바쳤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때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한

다.<sup>12)</sup>이들의 참된 관심을 파악하려면 이들의 성장 과정, 이들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① 우선 십대는 재미있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걸쳐 있다고 보겠는데, 즉 무의미하게 히히덕 거리고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헌신하여 일해야 할 심각하고 차원 높은 기술적 취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동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가지는 재미의 대상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없이 중요한 사업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

② 그들은 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우정을 지속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그 형태가 어떠한지 친구를 사귀려 하는 십대의 욕망은 끝이 없다. 마치 혼자 있는것이 고통스러운 것인 양 행동하면서 대부분의 사춘기의 젊은이들은 함께 사귄 동무를 찾고 있는 것이다.

③ 십대는 계속하여 부모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어떤 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심할지 모르나, 그러나 부모의 관심을 얻으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와 잘 지내기를 바란다. 때에 따라서는 용돈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십대들에게는 부모만이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갑고 험한 세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가장 가까운 안내자인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더불어 삶을 배운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④ 십대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주요한 결정들이 십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을 전공으로 하며, 어느 학교를 갈까, 장래 직업은 무엇을 할까” 등등을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일생을 통하여 어떤 때보다 십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⑤ 십대는 외모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은 유행에 쫓겨 민감하다. 인

---

12) *Ibid*, p. 169

기 있는 청소년은 사실 캠퍼스 안에서 가장 유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필자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모자 쓰는 것이 정말로 유행이었다. 청소년치고 모자 안쓰고 다니는 학생이 드물었다.

⑥ 십대는 특별히 데이트와 결혼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이러이러한 남학생(여학생)을 좋아한다”식의 대화들이 서슴없이 오가고, 친구가 누구와 데이트 하느냐에 쫓겨 관심을 가진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십대들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사실 권면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사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서구의 경우 결혼은 특히 18세나 19세의 연령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3학년들의 사생활을 조사해 본 결과, 이미 1/4이 약혼이나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sup>13)</sup>

그러면 십대의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① 십대들을 돕는 첫 단계에서는 이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임을 잃은 지도자는 결코 그들을 지도하고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고 이루어져야지 결코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어느 누구라도 청소년들에게 강제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신임이 갈 때 자유롭게 상의하고 싶어지고, 가까이 함에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② 십대들에게 잔소리식의 권고와 충고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른들은 사실상 그들의 수 년간 경험으로서 십대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십대들에게 권고들이 잔소리가 되고, 그런 잔소리는 청소년과 상담자(helper)와의 관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 자칫하면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는 커녕 둘 사이에 전에 없던 장벽이 쌓이게 되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하게 된다.

십대들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강요성을 띄고 충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

13) *Ibid.*, p. 174

③ 십대들은 사전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그들은 유년기를 갓 넘었기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므로 어른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십대들은 상담할 때 십대들의 지식 부족을 알고 놀라거나 실망하는 빛을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④ 또 한가지는 십대들의 외형적인 평범한 환경 뒤편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엉뚱한 추측을 해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즉 십대들의 문제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무서운 사실들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한 번 일어났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만지다가 주머니에서 Pop song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꺾데기의 그림이 성인들만 볼 수 있도록 된 것과 같은 것이어서 깜짝 놀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내용은(노래의) 확인도 않고 꺾데기의 그림만 보고 나쁜 노래(sexy style)인 줄 알았던 것이다. 교회 집사님들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노래(Tape)를 공개적으로 들어 본 결과, 그저 사랑에 관한 평범한 가요에 불과했다.

십대들의 일거일동에 무관심해도 안되지만, 너무 과민해서도 결코 안된다.

## 5. 성(sexuality) 문제

목회자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수가 성(sex)문제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가 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는가, 한 쪽이 만족을 못하든가, 아니면 혼전, 혼외 등의 성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자위행위에 대한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 왜 성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① 우선 성(sex)이란 것은 인간이 본능적 욕구임에 틀림없다. 성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다. 사실 성적 충동만큼 끈질기고 강한 것은 없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욕망들은 쉽게 단념해 버리거나 승화시킬 수 있어도 성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강한 성욕에 굴복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큰 강물과 같이 소용돌이 쳐서 성이 눈 뜨는 곳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남겨 놓고야 만다.

② 어떤 성문제는 단순한 것에서 보다는 복잡한 요소들이 기인한다. 성(sex)은 생의 단순한 한 양상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곧 정서의 혼합, 지성, 육체적 특성들과 영적인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실로 성적인 기능은 신체적 측면에서 생각되어야 하나, 또한 인간의 정서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감정 여하에 따라 성적 욕망도 어느 정도 좌우되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성적 욕망, 혹은 성 생활이 감정에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성은 전 인격에 확대되어 이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순결에 관계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신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자학할 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식을 가지므로 인해 육체적 이상 징후까지 연결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그 결과 잠재력으로 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

③ 많은 성문제들은 성욕의 격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만약 부부가 똑같은 정도의 성욕을 가지고 있다면, 기혼부부의 문제들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sup>14)</sup>

많은 부부들이 사실 성욕의 차이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성적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결혼 상담자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혹은 목사 등은 전문가들이 성욕의 차이점 때문에 찾아와 상대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기만도 바

---

14) *Ibid.*, p. 246

빨 지경이라고 그런다.<sup>15)</sup>

이러한 성적(sexuality)인 차이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심각한 갈등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부부가 그 방면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부부들이 그 도움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로 점점 더 이 끌어 가게 된다.

④ 그 다음으로는 성교육의 결핍에서, 그리고 또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인상은 성장해서 성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요즘같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 세속사회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 즉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다.

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현대 세속사회가 주는 성문제에 민감한 상담자는 상담자들 자신이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을 평가해 보도록 도와 주는 게 좋다. 바람직한 평가는 성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는 초석이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상담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6. 동성연애(Homo - Sexuality)

상담자가 취급하는 성문제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필자는 캐나다에 있을 때 동성연애자인 친구(목사)를 가진 사람과 한동안 얘기한 적이 있다. 나는 적잖게 놀랐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표현하고 또 얘기하곤 했다.

동성연애란 성적인 욕망과 외적인 행동이 동성(Homo)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성보다 동성에게 더 성적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을 말한다. 이들은 동성에게는 지나치게 매력을 느끼나, 이성에게는 육체적인 매력을

---

15) *Ibid.*

느끼지 못한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이상할지 모르나, 그네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서양의 경우 공개적으로 동성연애자라고 하면서 활보하는 사람이 교회 안팎에 무수히 많다.

그러면 동성연애의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① 우선 지배형 어머니와 무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 자녀는 동성연애자가 되기 쉽다. 아들일 경우, 어머니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아들의 남성다움을 너무 지배하여 버리거나, 얽잡아 볼 때 그 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신념(“나는 남자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모든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여자와 결혼한다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게 된다.

지배형 어머니는 흔히 나약한 아버지와 짝지어진다. 이것은 아주 불건전한 상태를 조성한다. 아들은 남자가 되기 위한 투쟁에 요구되는 힘과 의지를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한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고 또한 딸은 아버지의 무력함으로 인해 일반 남성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가 동성과 친해지려는 경향이 짙게 된다.

② 그 다음로는 방임형 어머니와 잔인한 아버지 스타일이 있다. 지배형 못지 않게 나쁜 것은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방임형 어머니이다. 남편에 대한 애정의 결핍으로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을 심리적으로 추켜놓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혐오를 갖게 된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잔인스러울 때 그런 집의 아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두려워한다. 다른 아이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성연애로 연결되기 쉽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딸은, 늘 고통 당하는 어머니를 보아왔기에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곤 한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미움이 일반화 되고 그 두려움의 영향으로 소녀 시절에 동성연애로 기울어지게 된다. 동성연애 행위에 가담하는 소녀들은 흔히 결핍된 사랑의 희생자들이다.

동성연애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기독신자인 10대 소녀로 키스까지 한 적이 있다. 기독신자인 30대 남자가 미소년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성적 매력을 지녀왔던 두 젊은 여인이 침대에서 껴안고 oral sex까지 했다. 12살 난 두 소년이 서로 맞사지 했다. 사촌 남자끼리 한쪽은 여자로 분장하고 성관계를 가졌다.<sup>16)</sup>

그러면 이런 성에 관한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동성연애자들은 그런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우선 내담자로 하여금 그가 본래부터 동성연애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사실 동성연애라는 것이 특수한 문제 내지 형태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염려 내지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다른 친구를 사귀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좋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를 동원시켜도 좋을 것이다. 너무 서두르는 치료보다는 시간을 갖고, 또 인내를 갖고 도와야 한다.<sup>17)</sup>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성문제는 인격적 부적응, 과격한 태도, 영적인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부인이 자기는 결혼 생활중에서 "성" 행위를 싫어한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상담자가 그녀의 얘기하는 동안 그녀의 고민의 근거는 성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남성들에 대하여 그녀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불건전한 남성관에 그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성(sex)적인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하곤 한다. 성문제는 가끔 깊은 인격적 불균형의 징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자는 그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와 생활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도록, 즉 그의 전체 생활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에 어느 기독교 소년이 자위행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왔다면 그것을 단지 "성(자위행위)" 자체만 갖고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전체 즉 학교생활, 가정환경, 영적생활 등등을 검토해 가며 상담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 쌍방의 문제일 때는 가능한 쌍방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

16) 양승달 역, *Ibid*, pp. 260-270

17) *Ibid*, pp. 270-271

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좋다. 물론 한쪽이 같이 상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다. 그때는 한쪽만이라도 상의해 주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성(sex)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또한 필요하기도 하다.

## 제6부

### 심리학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인간의 내적 결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반응을 연구하는 인간중심의 학문이다.<sup>1)</sup> 그러므로 심리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1) 전찬화외 4인, *일반심리학*, (서울: 이대교육심리학 연구론,1969),p.21

## 1. 심리학적 인간이해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이해에는 크게 3사람의 이론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세사람은 프로이드, 칼 융, 그리고 알프레이드 아들러이다.

### ①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하는 체계를 발달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는 신비한 인간성의 베일을 벗기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심리학은 인성의 깊이와 복잡함을 조명하고 있으며, 깊숙히 차단된 성장의 본질과 역동에 대해 통찰하고 있다.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a) 인격의 구조

프로이드의 견해에 따르면, 인격의 구조는 세개의 동일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본능(id)과 자아(ego)와 그리고 초자아(superego)이다.<sup>2)</sup>

인격의 이러한 각 영역들은 그것 자체의 기능, 특성, 구성요소, 작용원리, 역동 및 기제들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의 영향을 가려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행동은 거의 이 세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것이며, 다른 두 체계를 떠나서 한 체계가 작용하는 일은 드물다.

#### (i) 원본능(id)

원본능은 인격 구조의 근본이다. 즉 그 속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 모체이다. 원본능은 유전되는 것으로 출생 때 이미 존재한다. 원본능은 정신 에너지의 근원이며 본능적인 힘이 여기에서 솟아난다.

원본능은 긴장으로 인한 증대를 견뎌내지 못한다. 외적 자극의 결과에서

2) 켈빈 S. 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 최혜란 역(학일출판사, 1985), p. 33

든 내적으로 생긴 흥분 때문이든 유기체의 긴장 수준이 올라가면 원본능은 긴장을 즉각 발산하여 유기체를 편안하고 안정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작용한다. 원본능이 조작하는 이 긴장 해소의 원리를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라고 한다.<sup>3)</sup>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본능은 두 가지 과정을 통괄하는데, 그것은 반사작용(Reflex Action)과 기초과정(Primary Process)이다.

반사작용은 재치기나 눈 깜박임과 같은 생리적이고 자동적인 반응들이다. 이것들은 보통 즉각적으로 긴장을 해소시킨다. 유기체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흥분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반사를 가지고 있다.

기초과정은 좀 더 복잡한 심리적 기능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긴장을 제거해주는 물체의 양상을 떠올림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기초과정은 배 고픈 사람에게 물체를 음식물의 심상(心象)을 제공한다. 기억 심상의 형태로 원하는 물체를 존재케 하는 이 환각적 경험을 소원 충족(Wish-Fulfillment)이라 한다. 정상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기초 과정의 예는 밤에 꾸는 꿈이며, Freud는 그것을 소원의 충족이거나 기도된 충족이라 믿었다.<sup>4)</sup>

정신병 환자들의 환각과 환영도 또한 기초과정의 예이다. 자폐적이거나 희망적인 생각은 기초 과정의 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ii) 자아(ego)

자아는 외부 세계의 현실과 접촉을 갖는다. 자아는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을 짜며, 보통 그 계획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행동을 검토해 본다.

예를 들어 배 고픈 사람은 어디에서 음식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서 그 곳으로 찾으러 간다. 이것을 현실 검증(Reality Testing)이라고 한다.<sup>5)</sup> 자아는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이며 지적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자아는 행동을 통제하며, 반응할 환경의 특징을 선택하고, 어떤 본능을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격

3) C. S. Hall and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이상노, 이관용 공역,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0), p. 36.

4) *Ibid*, p. 36

5) *Ibid*, p. 37

의 집행자라고 불리운다.

아래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아는 갈등하는 원본능과 초자아와 외계의 요구를 통합해야 한다. 자아의 주요역할은 유기체의 본능적인 요구와 주위 환경의 상태와를 조정하는 것이다.

원본능과 자아의 관계를 보면 자아는 지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원본능의 맹목적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욕구 충족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sup>6)</sup>

원본능은 주관적인 실재 밖에는 모르나, 자아는 심리속에 있는 이미지와 외부세계의 실존하는 사물을 분간 할 줄 안다.

### (iii) 초자아( superego)

초자아는 도덕적이며, 법적인 인격의 요소이다. 초자아는 사람의 도덕법으로서의 그의 관심사는 오직 그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 또는 바르냐, 틀리냐에 있다.

초자아는 실재보다는 이상을 대변하며,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완전을 추구한다.

행위의 내면화된 도덕적 결재자로서의 초자아는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에서 발달된다.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이는 부모가 설정한 노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말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초자아의 두 하위 체계의 하나인 양심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또 행동을 승인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은 초자아의 다른 체계인 자아이상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열등감을 갖게 함으로써 벌을 주고, 자아 이상(ego-ideal)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기애(self-loving)를 느끼게 함으로써 보상을 준다.

초자아의 주요 기능은 ① 원본능의 충동, 특히 성적 또는 공격적인 것을 억제하고 ② 자아가 현실적인 목표 대신에 도덕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납득시키고 ③ 완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sup>7)</sup>

6)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오성춘 역, *상담학 개론*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3), p. 33

7) Hall and Lindzey, *성격의 이론*, p. 38

초자아는 원본능과 자아에 대립하기 쉽고, 세계를 그것 자체의 영상에 맞추어서 개조하려고 한다. 자아와는 달리 초자아는 단순히 본능의 충족을 연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영구히 방해한다.

#### b) 의식과 무의식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프로이드는 의식세계가 인간 정신세계 중에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물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비유할 수 있다.<sup>8)</sup>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과 인격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려면 무의식을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심리현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①꿈: 무의식의 필요와 욕망과 갈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현상이다.

프로이드는 꿈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는 견해를 피력했다.<sup>9)</sup>

②말의 실수와 잘 아는 것을 잊어버림

③최면 상태의 암시를 최면이 깨어난 후에 무의식 중에 행한다.

④ 자유 연상에 의해 튀어 나온 말들

⑤투사(project)의 기술로부터 얻어낸 자료들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의 모든 경험들, 기억들, 그리고 억압된 욕망과 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욕망들과 동기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이다.

프로이드는 거의 모든 정신기능 활동의 원인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무의식은 사람의 의식에서는 숨겨져 버렸을 지라도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의 목적은 무의식적인 동기를 의식화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치료라는 것은, 건강을 저해하는 증세의 의미와 행동의 근본 원인과 억압된 욕망과 감정 등을 찾아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기 아동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성장 부진은 계속하여 현재에서 창조

8) Corey, *상담학 개론*, p. 35

9) Howard Clinebell, *Contemporary Growth Therapies*, 이종현 역, *현대 성장 상담요법*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p. 30

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방해하는데, 이것은 무의식내에 있는 억압된 기억, 소망, 갈등, 충동에서 나온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억압된 요소들을 의식의 수준으로 끄러올려서 종종 치료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예를 보였다.

### c)불안 (Anxiety)

환경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 환경은 또한 쾌락과 긴장해소를 주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통을 일으키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한다. 위안을 줄 때가 있고, 또 해칠 때가 있다.

사람은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외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습관적인 반응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 자아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에 압박되면 그 자아는 불안감에 쌓이게 된다. 프로이드는 세 가지 유형의 불안을 말했다.

- ① 실제적 불안(Reality Anxiety): 이것은 외부 세계로 오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안은 실제 외부 세계에 얼마나 위협이 있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 ②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이는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이 통제를 벗어나서 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무의식적 행위에서 온다.
- ③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 이는 자신이 느끼는 양심과 심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다. 초자아가 잘 발달된 사람은 그가 교육된 도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거나 심지어 생각만 해도 죄의식을 느낀다. 도덕적 불안은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과거에 도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까봐 항상 두려워 한다.<sup>10)</sup>

불안의 기능은 사람에게 절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것이다. 즉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아가 전복될 때까지 위협이 증가하리라는 일종의 자

---

10) Corey, *op.cit*, p.36.

아에 대한 신호이다.<sup>11)</sup>

불안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동기화 시킨다. 그는 위협받는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거나, 위험한 충동을 억제하거나, 양심의 소리에 따라야 한다. 불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고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해로운 일이 발생한다.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당하거나 물질적 결핍과 박탈을 경험한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람들은 해를 면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룰 수 없는 불안을 외상적 불안이라 한다. 불안은 인간을 어린이처럼 무력한 상태로 만든다. 만일 자아가 합리적 방법으로 불안과 대적하지 못할 때는 자아가 비현실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의 방어기제이다.

#### d)방어기제(Ego-Defense Mechanism)

과도한 불안에 눌리게 되면 자아는 때로 압력에서 빠져 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대처하여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모든 방어기제들은 두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로 사실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것, 둘째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본인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sup>12)</sup>

방어기제들은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억압(Repression): 충격이나 상처 또는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을 잊어 버리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나 고통을 가져오는 것들을 무의식에 밀어 넣고 결코 의식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 노력을 말한다.

억압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거나 정신병 증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sup>13)</sup>

② 투사(Projection): 자신의 자아에 내재해 있으나 받아들이지 수 없

11) Hall and Lindzey, *op.cit*, p. 49.

12) Corey, *op.cit*, p. 36

13) 켈빈 S. 홀, *op.cit*, p. 107.

는 것들은 타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수단이다. 투사를 할 때 사람은 “내가 그를 싫어한다” 대신에 “그가 나를 싫어한다”식으로 말해 버리는 것이다.

투사는 흔히 목적으로 쓰인다. 즉 그것은 큰 위험 대신에 적은 위험을 대치시킴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투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가운데 그의 충동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③ 합리화(Rationalization): 상처 입은 자아를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 내어 빠져 나가려는 방어 수단이다.

이것은 실망을 주는 현실로 인해서 자아에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자기 방어 수단이다. 취직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그 직장 취직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④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 불안을 일으키는 충동의 의식이나 감정에 반대되는 것을 대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오에는 사랑이 대치된다. 보통 반동형성은 지나친 과시성이나 강박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모든 종류의 극단적 행동 형태는 일반적으로 반동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거부(Denial): 위협적인 현실에 눈을 감아 버림으로 불안을 방어하려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현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sup>15)</sup>

⑥ 고착(Fixation): 인격성장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에 고착하여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단계가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보려는 방어수단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는 성숙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 성장하기를 거절하고, 유아기에 병적으로 고착하려는 것이다. 심리

---

14) *Ibid.*, p. 111.

15) Corey, *op.cit.*, p. 37

적 발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주로 불안정, 실패, 그리고 처벌이다.<sup>16)</sup>

⑦ 퇴행(Regression): 어떤 발달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공포 때문에 전단계로 후퇴하여 안주하려는 수단이다.

젊은 부부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불안해지면, 지난 달 안전했던 부모와의 가정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건전하고 잘 적응되어 가는 사람들도 불안을 줄이기 위해, 또는 그들의 울분을 풀기 위해 때로 퇴행을 일으킨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법을 어기고, 물건을 부수고, 자위행위를 하고, 도박을 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등 수많은 유치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의 방어기제(Ego-Defense)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처리한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부인하여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방어기제들은 보다 유익한 자아 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사실 지니고 있다. 방어가 활발히 작용할 때면 그 방어가 자아를 지배하고 자아의 융통성과 적응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방어가 실패한다면 자아는 다시 돌아갈 현실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압도당한다.<sup>17)</sup> 그 결과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신경 쇠약이다.

방어는 자아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포기할 수 없고 또 그 방어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자아는 허약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아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방도는 성숙하는 것이다. 자아는 유기체 자체의 내재적 변화, 특히 신경계에 변화가 일어날 때 성장한다. 성숙의 영향을 받고 자아는 발달해야만 한다.

자아가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도는 환경을 통해서이다. 환경은 사람에게 그 능력에 부합되는 일련의 경험들을 겪게 해 준다. 그러나 경험하게 되는 위험과 곤란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6) 켈빈 S. 홀, *op.cit.*, P.117

17) 자아가 돌아갈 현실이 없는 것은, 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강해서도 안되지만, 또한 자극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약해서도 안된다.

#### e)발달 단계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고유한 갈등과 성장 잠재력들이 내재된 각각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sup>18)</sup>.

그러한 조망은 건강한 발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자원으로 매우 가치있다고 볼 수 있다.

생의 특별한 단계에서, 그 발달상의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 심리적 장애가 야기 되어진다. 이러한 특정 단계에 성장이 고착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발달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프로이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의 생활에서 역동적으로 차이있는 한 계열의 단계들을 통과하고, 그 다음 5~6년간, 즉 잠재기에는 그 역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믿었다. 사춘기가 되면 역동성은 또 다시 폭발하였다가 성인이 됨에 따라 차츰 안정된다고 한다.<sup>19)</sup>

프로이드는 생의 초기단계의 경험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발달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인성의 기초는 아동과 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성인과의 밀접한 관계의 질에 따라, 생의 초기 6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다.<sup>20)</sup>

#### ② 칼. 융(Carl Jung)의 인간 이해

칼. 융의 심리학은 무의식 과정에 강조를 두었다는 점에서 정신분석 이론과 일반적으로 동일시 되고 있으나,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뚜렷이 다른 점이 있다. 융의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현격한 특징은 목적론과 인과율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과 종족의 역사와 ,그리고 목적, 욕망에

18) Clinebell, *현대 성장 상담요법*, p. 34.

19) Hall and Lindzey, *Op.cit.*, p. 55.

20) Clinebell, *op.cit.*, p. 35.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으로써, 실재했던 과거와 가능성을 가진 미래가 동시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sup>21)</sup>

융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미래의 발달면을 내다본다는 점에서 예기적이고, 과거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회고적이라 할 수 있다.

융은 인간 성격의 근원과 발달을 탐구하기 위해서 꿈, 신경증의 증상 및 정신병자의 망상, 환상 등과 함께 신화, 종교, 고대의 상징과 의식, 풍습 및 원시인의 신앙 등에 관해서도 연구하였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사용된 융의 주요 개념은 자의, 무의식, 펄로나, 그리고 아니마와 아무스 등이 있다.

#### a) 자아

자아는 의식적(意識的)인 마음이다.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 기억, 사고,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2)</sup> 정신 전체 속에서 자아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의식의 문지기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자아에게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념, 감정, 기억, 지각은 지각될 수 없다.

사람은 매일 다양한 체험을 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자아에게 제거되어 의식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한 기능이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의식에 짝 들어찬 대량의 재료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자아가 의식화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가?

- ① 그것은 자아를 우세하게 지배하는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sup>23)</sup>
- ② 부분적으로 그것은 경험이 자아에게 얼마 만큼 불안을 자아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불안을 자아내는 관념과 기억은 자각되기 어

21) Hall and Lindzey, *op.cit.*, p. 124.

22) C. G. Jung: C. S. Hall and Jacob, *Interpreting Jung Psychology*, 설영환 옮김. 융심리학 해설 (부산: 선영사, 1986), p. 84.

23) 심리적 기능에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네가지가 있다. *융심리학 해설*, p. 155

럽다.

③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개성화가 달성되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고도로 개성화된 사람의 자아는 더 많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할 것이다.

④ 또한 경험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약한 경험은 자아의 문에서 간단히 거부 당하지만, 매우 강한 경험은 문을 돌파하기도 한다.<sup>24)</sup>

#### b) 무의식(Unconsciousness)

무의식에는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의 무의식은 한때 의식하고 있었으나, 그 후 억압해 버렸거나 잊어버린 경험들로 구성된다. 융은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말한다.<sup>25)</sup> 개인 무의식은 의식적인 개성화 또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심리적 활동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또는 괴로움을 주는 생각, 미해결의 문제, 개인적 갈등, 도덕적 갈등 등과 같이 일단은 의식적 경험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억압되거나 무시된 것들도 있다.<sup>26)</sup>

경험 되었을때 무관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였기 때문에 잊혀진 것들도 적지 않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의식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험은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다.

집단 무의식은 융이 일반적으로 “원시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잠재적 이미지의 저장고다. “원시적”이란 말은 “최초의” 또는 “본래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원시적 이미지는 정신의 제일 첫 단계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이미지를 조상 대대의 과거에서 물려받고 있다. 과거의 조상이란 인류로서의 조상 뿐만 아니라 인류 이전의 선행인류 및 동물의 조상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종족적 이미지가 유행한다고 해서 개인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

24) *Ibid*, p. 86.

25) *Ibid.*, p. 86.

26) C. G. Jung, *Analysis of Unconsciousness*, 설영환 옮김, 무의식 분석 (부산: 선영사, 1986), P. 190.

억하고 있다거나, 조상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상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에 반응하는 소질 혹은 잠재적 가능성이다<sup>27)</sup>

인간은 어둠이나 뱀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원시인이 어두운 데서 많은 위험을 겪었고, 독사에게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잠재적 공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특수한 경험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영향은 남아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의 결과로서 학습하는 것은 생의 시초부터 인간의 행동을 이끌며 선택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 받는다.

#### c) 펠소나(Persona)

펠소나는 인간이 사회의 인습과 전통의 요청과 그 자신의 내적 원형의 요구에 부응해서 채택한 가면이다.<sup>28)</sup> 이것은 사회가 그에게 부과하는 역할이며, 사회가 인간 생활에서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배역이다.

펠소나는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이다. 즉 사람이 세상에 나타내는 양상이거나 사회적 외관 뒤에 존재하는 개인적 성격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일반 여론이 인간에게 고착시키는 국면이다.

개인은 펠소나(Persona)에 의해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성격을 연출할 수가 있다. 펠소나는 개인이 공적으로 보이는 탈 내지는 겉보기이며,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회사에 취직한 젊은이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된 가면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빠지거나 실직할 것이다.

인격에 있어서 펠소나의 역할은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자신이 연출하고 있는 역할에 너무 말려들고 사로잡혀, 자아가 이 역할과만 동일화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격의 다른 측면은 제거될 것이다. 이와 같은 펠소나에 압도된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서 소외되고, 지나치게 발달한 펠소나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인격의 부분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긴장

27) 켈빈, 홀, *융심리학 입문*, P. 49.

28) Persona는 원래 관리가 썼던 가면이며, 관리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속에서 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나를 자녀에게 투영하는 부모도 있는데, 결말은 불행하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기만이나 위선도 배제하는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사회적 역할에 지나치게 동일시되고 바깥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도취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나와 경직성과 무게를 줄이도록 치료적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하고 건전한 필요나를 우리를 사회로부터의 도전과 힘의 큰 충격에서 보호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 d)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융은 필요나를 정신의 "외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아니마", 여자의 경우에는 "아니무스"라고 불렀다.<sup>29)</sup>

다시 말하면 아니마는 남성 정신안에 있는 여성적인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정신안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이다. 모든 인간은 남녀를 막론하고 태도나 감정 등의 심리학적 의미에서 이성(異性)의 성질을 갖고 있다.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함께 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남녀가 이성에게 적절히 반응하며 이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의 유형은 생존을 위해서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격이 잘 적응하고, 또 조화있게 균형을 유지하려면,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남성적 측면만을 나타내면 그의 여성적 특징은 무의식에 그치며, 따라서 발달되지 못하고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남자다와 보이고 남자답게 행동하는 사나이가 내면으로는 연약하고 고분고분한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외면생활에서는 지나치게 여성다운 여자가 남자의 외적 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완강한 성질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니마만 강조하고 또 갖고 있어도 안되며, 여자 또한 아니무스만 발달해서도 안된다. 양면을 다 갖고 있을 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겠다.

29) Hall and Jacob, *융심리학 해설*, p. 98.

### ③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인간이해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프로이드의 가정 및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융의 원리와는 대조적으로, 아들러는 인간은 주로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가정하였다.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sup>30)</sup>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개발한다. 아들러는 인격의 사회적 결정요소들을 강조하고, 성적 결정요소들(Sexual Determinanus)을 강조하지 않는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지 성적 동물은 아니며, 사람은 사회적 관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지, 성적 관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무의식보다는 의식이 인격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므로 보통 자기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는 자기열등감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가 추구하는 목표를 알고 있다. 더우기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

아들러는 인간이해에 대한 개념 몇 가지를 얘기 했는데, 우선 가공적 목적론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견해이다. 또 열등감과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려서 말더듬이였던 데모스 테네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웅변가가 된 것은 신체기관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한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아들러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적의 기억(최초의 기억)이, 그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sup>31)</sup>

최초의 기억은 생활양식을 그 근원적인 면과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최초의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응석받이로 자랐는지, 혹은 무시당하고 자랐는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로 협동하도록 훈련 받았는

30) Hall and Lindzey, *성격의 이론*, p. 162.

31) *Ibid.*, p. 178

지, 어떤 문제를 겪어 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과 어떻게 싸워 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우울증

### a) 일반적인 것

인간은 가끔 우울한 기분과 싸울 때가 있다. 약간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큰 불만에 이르기까지, 약간은 불만을 느끼는 데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까지 다양한 기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징후가 심할 때 그들은 의논할 상대를 찾게 된다.

우울증이란 슬픔, 낙담, 고독, 외로움 같은 감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또는 주관적 감정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sup>32)</sup>

이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다가 특히 지나칠 정도로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갑자기 불면증에 사로잡히거나 소리치고 싶은, 억제하기 힘든 충동을 받을 때가 있다.

우울증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겠는데,

첫째로는 정상적인 우울증세와 병적인 우울증세라 그린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란 것은 특별한 삶의 상황에 대한 지극히 함당한 반응일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우울증세를 보일 때는 육체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또는 부분적인 마비증상 등의 병적인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일차적인 증상과 이차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울증세는 자기 존중의 상실, 자기 비난의 감정, 후회, 자기 파괴적인 생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성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우울증은 피곤, 불면증, 성욕 감퇴, 식욕부진, 기억 장애, 무관심,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강박 관념에 의한 충동적 행동, 주기적인 실패감, 자기 비난을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셋째, 신경적 우울증과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는데, 신경적 우울증은

32)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87), p. 236.

현실과 접촉된 것에서 비지뚫되지만, 정신병적인 우울증은 착각, 환상 따위로 생기며, 심지어는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는, 내인성 우울증과 외인성 우울증인데, 외인성은 외부 사건에 의해 오는 것으로써 의타심이 강해지거나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내인성 우울증은 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자기 신뢰감 약화, 무관심, 직업 기능장애, 성 불능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로는 조울증적 정신이상이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증세는 주기적으로 저조한 감정을 가졌다가 또 고조된 감정을 가지는 것을 되풀이 하여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산후 우울증세와 유아의 우울증세이다.

산후 우울증세는 출산 후 3주에서 3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공포, 두려움, 아기 양육에 자신이 없음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고, 유아의 우울증이란 것은 부모 상실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겠는데, 그 증세는 흥미를 잃고, 식욕이 없으며 불면증에 걸리고 또한 불안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sup>33)</sup>

그러면 이런 우울증에 관한 치료가 가능할까?

대개 상담자까지 찾아오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 상태가 여간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자가 그들(내담자)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표현하고 싶은 모든 감정들(분노, 복수, 욕망, 죽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건 집단(group)상담인데, 이런 집단의 모임에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지녀온, 좌절감, 눈물, 그리고 고통 따위를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즉 약물치료, 전기 충격요법, 정신과 의사들의 행동요법 따위라고 보겠다.<sup>34)</sup>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33) *Ibid.*, pp. 237 - 249.

34) 우울증의 치료는 프로이트적 방법과 로저스의 방법이 또 있는데, 전자는 무의식속에 억압된 과거 감정의 덩어리가 정상적으로 발산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기므로 과거의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의식으로 떠오르게 함으로써 치유

사용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b) 신자에게 있는 우울증(침체)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몇을 예로 들어보면, 마틴 루터(Martin Luther),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n),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David), 사울(Saul)등이 있다. 성서 속에서 찾아보면

우선 시편 102편이 대표적인 것인데, 죄책감에서 오는 침체가 있다. 올바른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 또 건강한 죄책감, 건강치 못한 죄책감, 그리고 정상적인 죄책감과 불건전한 죄책감인데, 올바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죄책감은 필요 적당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건설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뜻이며,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죄책감에 대한 해답은, 화해의 경험 쪽으로 옮겨 가면서 용서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해결된다. 그러나 잘못되고 불건전하며 신경관민적인 죄책감은 문제가 다르다. 올바른 죄책감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요, 잘못된 죄책감은 하나님 앞인 아니 인간 앞에서만 갖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어떤 일의 실패에서 느끼는 침체이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침체는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생활 했는데, 매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우울증 더 나아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세번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힘으로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이다.

“너 희망 없다”, “너 지옥 간다” 등등의 괴롭힘으로 겪게 되는 우울감(침체, 의기소침)이다.

많은 라디오 TV전도자들이 그런 스타일이다. 특히 보수적인 신학의

---

된다는 것이고, 로저스 방법은 상담자가 면담자를 무조건으로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Ibid.*, pp.242-246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므로 듣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버린다.

네번째는 어떤 기대를 가졌다가 상대방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경우 생기는 우울증이다.

성서에 나오는 우리아(Uriah)의 아내(Bath-Sheba)를 범함으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 때에 갖가지 감정이 우리아를 괴롭혔다. 그 중에서의 하나가 배신감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깊고 깊은, 그러면서도 단순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말로만은 달콤한 소리들을 교인들의 귓전에 맴돌게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실망감, 우울감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정직한 요구가 있다. 사랑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신뢰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필요, 요구들이 채워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것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간다고들 한다.

#### c) 중년 여인네의 우울증(침체)

우울(depression 침체, 의기소침)은 기쁨을 빼앗아 가고 더 나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두절된다.

특히 여자일 경우에는 우울이 슬픔으로 발전되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감만이 가득차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에도 의심이 갈 정도이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자신에게조차 관심이 없어지며 결국에는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멀리멀리 떠나고 싶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죽고 싶어하기도 한다. 에너지가 감소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음식 맛도 잃게되며 또한 성 관계도 하기 싫어진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갖기 싫어진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어짐

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의욕이 상실된다.

그런데 우울증(의기소침)이란 것은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적인 것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우울증을 유발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여자들의 경우 40대 50대가 되면 자주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본다.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녀의 관심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며, 또한 결정권의 책임감마저 잃게 된다. 동시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지 수 없다고 말하며, 아마도 자녀를 더 갖기를 원치 않으며, 성숙한다든가, 생기있다든가, 성생활이 민감하다든가, 엄마로서의 이미지 등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자녀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여인이라면 월경이 멈추게 될 때는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더욱 더 우울증(의기소침)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중반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서서히 쓸모없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편들이 점점 더 정상(height)을 향해서 달려감을 바라볼 뿐이다. 남편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남자에게는 성공이란 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며, 또 그것보다 더 이상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반의 남자들이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멋있게 보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자들의 경우는 흰머리카락이 생기며, 얼굴의 피부는 늙어가고,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리고, 근육이 활력성이 약해질 때는 오히려 슬프고 처량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비결이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 있고, 또한 독일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여성의 미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self-love)하느냐에 따른다는 의미를 늘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중반에 있는 여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이 남편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인식하고,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교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예술활동에 들어가서 움직여보는 것도 떠난 자녀나 바쁜 남편으로 인해 비어 있

는 정신적인 공간을 메울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여인네들은 그들의 젊음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 대한, 또 먼 미래에 대한 희망같은 것이 사라져 가는 것 같이 보이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또 지역사회의 활동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지나친 피로도 사실 우울증(의기소침)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육체적 피로는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피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자들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되어져서 밖에서의 직장,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자보다도 더 피곤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여자가 이런 우울(의기소침, 침체)에 민감할까?

주로 완전을 추구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sex)에 대해서 숙녀인 체 하고, 또 하나는 자신 보다도 남편에게 더 의존하는 여자들은 이런 우울(의기소침)에 빠져들기 쉽다.

목회자나 상담자는 과연 당사자의 우울(의기소침)이 흔히 있는 가벼운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것인지를 구별해야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 70%내지 95%까지 치료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sup>35)</sup>

#### 목회자 가족의 스트레스

목회자와 그들의 사모는 과연 얼마 만큼의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남을 위한 상담은 잘하며, 교인들의 온갖 문제에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동서양의 목회자와 사모들이다.

어떤 스트레스에 관한 워크숍(workshop)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43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21명이 담임 목회자였고 11명이 사모였다고 한다.<sup>36)</sup>

목회자의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교회 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모의 스트레스 역시 그 목회자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

35) *JPC*, vol 31, 1977, p. 52

36) *Ibid.*, p. 248.

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있을까?

목회자들이 받는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내용은 자신이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느낄 때이고 또 신자들이 시험들 때에,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일의 결과가 너무 희박할 때이다.

사모에게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신자들이 시험 들어 목회자와 사이가 안 좋아질 때이고,

둘째로는 어항속에 갇혀 있는 고기와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사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할 때 오는 스트레스이다.

제7부  
기 타

## 1.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

예수님의 목회는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는 그 방면에 탁월한 전문가였음에 틀림없다. 우선 목회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신약성서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Diakonia)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37)</sup>

마태복음 23절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to be served)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to serve),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려고 함이라”라고 기록한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는 식당에서 시종드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이것은 말씀의 봉사자(행 6:4)로까지 발전되었다. 후에는 집사라는 명칭으로(딤후 3:8) 표현되었으며, 그들의 기능은 교회에서의 병든자 치료(healing), 가르침(teaching), 예언(prophecy), 화해(reconciliation),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었다.

여러가지 학문적인 측면을 피하고라도 우리는 목회의 본질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봉사만 했지 어떤 권위는 없었는가? 아니면 그의 목회에 권위도 있었는가? 사실 예수님의 목회에서 많은 권위가 나타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히랍어에서 권위라 말은 능력(power)이란 말로 표현된다. 권위에 대한 유대인(Jewish)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a) 랍비적 유대교의 권위

1세기 경 랍비적 유대교의 권위는 토라(Torah)에 잘 기록되어 있다. 토

---

37) JPC, vol 36, 1982, p. 255.

라의 재해석은 단지 산헤드린(Sanhedrin) 공회에서만이 할 수 있었다.<sup>38)</sup> 고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친 것은 나름대로의 해석에서가 아니라 해석된 것을 전달하는데 불과했다. 마가복은 1: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으나 서기관들은 전달의 도구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 b) 예수님의 목회에 있어서의 권위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버나움의 사역에서 그의 권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막 1:22).

마태복음 7:2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 8:8~9절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깨달기를 예수님의 권위는 군대의 지휘자인 자기 권위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가복은 1: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놀란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그 권위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이고(막 2:10, 마 9:6, 눅 5:24), 둘째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권위(마 10:1, 5, 묵 10:17~19)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율법을 통제하는 권위(안식일 마3:1~6, 성전 막 11:27, 마 21:23, 눅 20:2~8, 막 11:28 등) 이다.

#### c) 그러면 이런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마가복음 11:29~33을 보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말하면서 그와 같이 결국 자신의 권위도 하나님으로 온다고 암시해 준다. 그러므로 그의 권위는 랍비처럼 후세에게 전수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권위 보다는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는 과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하

38) JPC, vol 36, 1982, p. 257.

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목회를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신들린 자 치료에서(막 2:27), 산상 설교 후에(마 7:28),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눅 5:4),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마 8:27)에서 우리는 그의 권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셨는가?(who was Jesus?) 또는 그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가?

우리는 흔히 몇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메시아,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또는 고난받는 종 따위로 말이다. 사실 목회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self awareness)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메시아적인 역할(Messianic role)만 했다면 그것은 그의 목회 전체 영역을 제한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아들의 신분(Sonship)<sup>39)</sup>이나 종의 신분(Servantship)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이나 사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목회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이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도 목회사역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랍비보다 높은 권위를 주장, 행사할 수 있었고, 자신감(self-confidence)을 가졌고, 또한 가르치고 고치는 데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목회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목회 구조나 방법 등은 늘 다양(diverse)했고, 또 항상 변화하는 스타일이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셨지만, 또 다른 때는 해 주시지 않고 반대입장(confrontation)을 표시할 때도 계셨다.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에 따라 다르셨다. 때로는 작은, 큰 그룹을 대상으로 일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자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도 하셨다.

이러한 특징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목회는 인간에게 관심(Human concern)을 가지신

39) 참고: 막1:11, 마17:9~13, 눅9:35, 요12:28~29, 마11:27, 눅 10:22

것이다. 마태복음 9:36에 보면 그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현대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정심(sympathy)보다 훨씬 강한 의미로 “이해하고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럴 때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셨다.<sup>40)</sup>

마가복음 1:40~45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41절에 “민망히 여기사”(Empathy)라고 표현되었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와는 달리 예수님은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Be with them).

둘째로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닿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지니셨다. 이것이 너무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안다. 필자도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외국인 교수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느낌(feeling)을 꼭 같이 느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낮추기는 힘들다.

히브리 기자는 4: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표현한다. 예수님 역시도 고통도, 배반도, 사랑도 다 갖고 계셨다.

세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늘 동거동락하시므로 인간관계가 넓으셨다. 마가복음 기자는 1:45절에서 사람들이 늘 사방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할 수가 없었으며, 늘 사람들과 또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셨다.<sup>41)</sup>

그가 그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대는 것(touching) 이었다. 문둥병자에게, 제사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경에게, 어린 아이에게 손을 대고, 잡아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스타일도 펍이나

40) 참고: 막 2:19, 2:5, 2:14, 5:32 등등.

41) 참고: 막1:33, 8:1~3등.

독특하다.<sup>42)</sup> 그와 상대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함과 자유를 얻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결코 남을 정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사실 그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에는 걸맞지 않은 태도였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워졌을 정도였다.<sup>43)</sup> 이러한 태도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징은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은 대화식(dialogic approach)이었다. 당시의 철학 교사와는 전혀 다른 식이었다. 그네들은 일상적인 대화식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원칙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만나는 사람의 느끼는 수준(feeling level)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때로는 반대 입장을 취한 적도 적지 않다.<sup>44)</sup> 그러나 이런 반대 입장은 상대방을 도우려고 한 마음에서이지 전혀 다른 뜻은 없었다. 어느 측면으로나 예수님은 모든 목회자의 모델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요소<sup>45)</sup>(감정이입, 따뜻함, 순수함)도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다.

## 2. ‘왜(Why)?’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가끔 죽어가는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why),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질문과 고뇌를 갖게 된다. "왜(why me)?" 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런(the most painful)질문인 것이다. 환자일 경우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담배도 안피우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나? 나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가족일 경우 “왜 우리 아저씨가 암에 걸려 죽어가야 하나, 그는 모든 사

42) 막9:28, 요12:22, 마19:13, 막10:47~49, 눅7:37, 12:13, 10:40

43) 마11:19, 눅2:34, 15:2 등

44) 마23전장, 막10:35, 막8:33, 막14:30, 막14:37, 마17:17,19:14,막 4:40 등등

45) Charles B. Truax and Robert R. Caskhuff,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p. 161.

람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었는데, 술 많이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제 막 은퇴해서 쉬려고 하는데, 이제 막 자녀들 다 자라서 좋은 세월 보게 됐는데. 그 여자는 좋은 엄마였고, 늘 교회에 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등등이다.

이런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해답이 없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상을 받은 것이고(reward), 나쁜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은 것(punished)이라고 생각해 왔다. 특히 이런 생각은 어릴 때에 마음에 많이 심겨지기도 하는 개념이다.

사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왜(why)"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괴로움의 몸부림이요, 어떤 것과도 대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과 대화하고, 또 보살펴 줄 때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방법(methodology)이 필요한데, ① 감정표출(Ventilation), ② 구별(분간, Differentiation), ③ 통합(Integr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46)</sup>

① 감정표출(Ventilation)은 상대방(Questioner)으로 하여금 감정을 표출(to express)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② 구별(Differentiation)이란 것은 감정을 표출할 사람에게 어떤 이슈가 문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를 분간하고 구별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은 그의 삶이나 인격을

③ 통합할 수 있는기회를 갖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감정 표출에서 "왜(why)"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요소(emotional component)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적인 요소(existential component)이다.

가령 흐느껴 울던가, 아니면 몸부림 치면서 "왜(why)"라고 외치는 사람은

46) James Hillman, *Emotions* (Evanston: Northwestern Univ.Press, 1961), pp. 172-176

그것이 단지 질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감정, 느낌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의 고저에, 또한 몸짓을 통해 "나는 두렵다(I am afraid)", 또는 "나는 화났다" 따위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문 대화(Verbatim)를 보자. 미세스 김이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다.

목사 -Mrs. 김, 안녕하십니까?

김 - 목사님 별로 좋지 않아요. 의사도 좋아진 것이 없대요.

목사 -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김 - 그들이 말하기를 95% 가망이 없대요.

그러니 희망이 5% 밖에 없잖아요.

왜(why) 꼭 5%밖에 없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미세스 김의 감정은 성냄, 슬픔, 쓰라림, 또는 놀람 따위로 섞여(emotional component)있다. 의사나 원목(helper)은 그들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감정 표출은 종종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감정 표출의 대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들어 주고 수용(accepted)만 해 준다면 자기 자신을 통제(control)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표출할 때에 그 이면에는 무시 당함, 고독, 외로움 등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두번째 구별(분간, Differentiation)이란 것은 환자의 감정 표출을 들었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의 의미(the meaning of existence)를 찾아 분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염려와 평화, 신앙과 의심" 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분간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에게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격려해 주고, 예로 정의, 공평, 정죄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등등...그 다음에 "왜(why)"라는 질문을 "그게 무슨 뜻이냐?(what does it mean?)"라는 질문으로 바꿔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통적인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 ㉠ ‘왜 (why)’라는 질문은 공평(Fair), 공정(Just)과 관계 되었었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다, 또는 불공평하다 등의 생각이라 보겠다.
- ㉡ 이러한 공평함(Fairness)은 상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로 표현되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상 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벌 받는다는 식이었다.
- ㉢ 그 다음에는 내가 고통받는 것은 과거의 나의 잘못(previous life)때문에서이다.
- ㉣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이다”로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대답(간주)해 버리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나,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말(empty words)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의미 없고 상투적인 말투(ready-made words)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cut off)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그런 의미를 다 찾은 다음에 그것을 통합(Integration)하고 재통합(Re-integr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환자일 경우 그 암의 이유(reason)와 그 암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의미(meaning)의 다른점을 자신이 발견하게 된다. 의미(meaning)와 이유(reason)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여자가 애기를 낳을 경우 왜 애기를 낳느냐(이유) 하는 것과 엄마가 된다(의미)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왜(why, 이유)"라는 질문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경험의 또 다른 단계(Level)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위와 같은 상투적이고 전통적인 대답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my own existence)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의 생(life)은 실제(real)가 되고 순수(authentic)해지고, 또한 의미(meaningful)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3. 학대(Abuse, 남용, 오용)

어떤 부부가 수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마침내 아내가 목사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 여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내리막길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나서는 더 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는 아내를 못살게 굴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가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목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장로이고, 또 성경공부 지도자요, 또 온 회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를 때리기까지 한다고 고백했다. 맞은 후 상처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애들이 있는 데서는 안 때렸는데 이제는 애들이 있건 없건 상관치 않는다고 하였다. 이혼은 결코 생각지 않지만 자꾸만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진다고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에게 찾아왔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학대(abuse)는 도시거나 시골을 막론하고, 또 동양 이거나 서양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로 판명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서양의 어느 교회고 간에 외국인 교회건 한인 교회이건 이런 일은 허다하다.

미국의 경우 매해 18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위와 같은 부모님들 밑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도 그런데 170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배우자가 총이나 칼로 협박하였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날수록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또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이런 방면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학대(abuse, 남용)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를

---

47) Randy Christian, "Three Strategies to prevent Abuse", *Leadership* vol. No. 2 (IL: Christianity Today, 1990), p. 96

들어 어떤 사람을 성적(sexually)으로 괴롭히는 것, 자녀들을 사랑치 않는 것, 자녀를 때리는 것 등은 분명히 학대(abuse)하는 것이고, 또 배우자를 때리는 것도 포함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학대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학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학대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서는 안되며, 둘째, 어느 가정이고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나, 더 나아가 공포감을 자아내게 한다면 그것은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와 당사자 서로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일개의 가정 문제이니 내 업무가 아니라 무시하기 보다는 늘 그런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작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즉 스트레스, 주위 환경, 그리고 지각력(perception)문제라고 본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 결혼 생활에서, 미혼모, 미혼부, 홀어머니, 자녀가 너무 많은 경우, 안정치 못한 직업,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 스트레스(병 따위), 이사 자주 하는 것,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받는 것 등이라 보겠다.

주위환경에서 받는 경우는, 경제문제, 사회로부터 고립, 열등감, 불신앙(신에 대한), 공부 많이 못한 것, 자녀 양육방법 부족, 고지식한 성격, 절제 못하는 성격 등이다.

또한 지각력(인지)에서 오는 것은, 자기 평가 절하, 가문으로 내려오는 학대 역사, 특별히 좀 다른 자녀 때문에, 자녀 탄생에서 좀 좋지 못한 경험, 예상치 않던 자녀 탄생, 남존여비 사상 등의 요인에서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학대들을 과연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한 학대들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우는 게 필요하나, 몇 가지 징후로 구별해서 도와 주는 방

법도 모색할 수 있겠다. 크기와 정도에 따라 세가지 정도(level)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번째 Level에서는 치료해야 할 깊은 상처(마음)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두번째 level은 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한 것이고,

세번째 level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단계라 본다.

첫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침, 결혼 전 상담, 결혼 상담, 부모 교육, 사회와의 연결 등을 시도해야 하고,

두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식의 설교를 해야 하고, 또한 지원 그룹이 있어야 하며, 평신도 상담소 운용, 스트레스 취급 훈련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세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 중재, 치료, 기본적 도움(음식, 피난처 소개)등등이다.<sup>48)</sup>

그러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학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교회가 완전한 도움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첫번째 단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인데, 우선 학대에 대한 지식(abuse awareness)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 미리 마음에 그러한 사실, 정보들을 간직해 둔다. 그 다음에는 용서, 평화, 협상, 오래 참음, 사랑 따위의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데 그것이 남을 학대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교회가 부부와의 대화방법, 문제 해결, 스트레스 취급 방법 등을 가르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 결혼, 부부가 된다는 것, 은퇴 등에 관해 들을 기회를 준다.

---

48) 필자가 외국에 있을 때 교회나오는 신혼부부가 너무 많이 싸워서 결국 여자가 경찰에 의해 피난처(Shelter)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남편의 약속 하에 3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교회는 그런 공식적인 세미나를 자주 갖기 힘들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정방문이라든가, 개인 접촉시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다.

두번째 세번째 단계에서는 학대자체가 밖으로 드러난 상태인데, 우선 강단(pulpit, 설교)을 통해서 미리 교육시킬 수 있겠다. 한 설교자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 학대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주간에 각기 다른 여섯 통의 전화가 와서 자신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sup>49)</sup> 어떤 엄마는 아이가 울기 때문에 때렸다 그리고, 어떤 십대 소녀는 남자 친구가 때렸다고 했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사실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두렵다. 그러나 강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설교할 때 그들은 문제를 쏟아 놓기 시작한다. 가정의 어떠한 문제이건 교회가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험해지기 전에 막을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시켜서라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어떤 신혼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평신도들이 한 팀을 만들어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1년 계획으로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화로써, 어떤 사람은 자녀를 도와줌으로써, 어떤 사람은 직업을 알선해줌으로. ...

결국은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고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까지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모했다고 한다.

역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4. 기쁨

슬픔에 대한 경험과 표현은 많지만, 사실 기쁨을 표현한 것은 그리 많이 표현되지 않았고 또 토론되어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 경험도 슬픈 경험 못지 않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또 가치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경험은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49) Randy Christian, *op.cit.*, p. 99.

때문에 많은 기쁨의 경험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면 왜 그 많은 기쁨의 경험들이 무시되어 왔을까? 아마도 몇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 무아지경의 기쁨은 신학적으로 볼 때 주로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비적인 기쁨은 사실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우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비적인 경험의 묘사는 사실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본인 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그런 경험은 개인적이며, 또한 이해의 제한성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그리 큰 관심을 주지 못한다.

두번째로 신학자들이 이런 기쁨의 경험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와질 수 있다는 편견적인 선입관에서이다.

예를 들어 속죄, 구원, 화해 그리고 용서 따위를 얘기할 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악(evil)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해되어진다.

즉 인간은 멸망으로부터 구속되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었고, 분리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해 되었고, 또 죄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법인 "당신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한다.

그러면 왜 긍정적인 경험, 사랑, 아름다움, 신뢰, 기쁨 따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인간의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다에는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죄를 짓고, 절망하고, 또 공허한 상태에서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 아름다움, 신뢰, 그리고 기쁨의 경험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어쩌면 이같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도 모른다.

세번째로 기쁨에 대해 별로 표현치 않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꺼려하는 데도 있다.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다가 혹시 잘못 이해 되거나 않을까, 또는 거절 당하지 않나, 또는 타인이 그런 경험을 못해 보았다면 마음에 상처나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이다.

기쁨의 예를 들어보면 예술(음악, 연극, 영화), 자연(동식물, 아름다운 경

치), 운동(스키, 보우링, 댄스)을 통하여, 또한 용서함, 창조, 발견, 사랑, 섹스, 애기 출생 등등이라 보겠는데 그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쁨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기쁨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결코 남의 기쁨만을 경험치 않고 자신의 기쁨(환희, 희열)도 경험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목회할 때에 그것을 소중히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한번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대답(자신에 대한 인식, 인정)에 대해 꽤히 만족하셨다. 변화하신 모습이 되셨을 때에는 그 신비한 환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 한 여인이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셨을 때 그 환희, 그리고 그 사건은 영원토록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빅토르 프랭클(Viktor Frankl)은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2)때 독일 나찌스(Nazis)에 의해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는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나타냈다.<sup>50)</sup>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11살 때 할아버지의 집에서 작은 말을 타고 놀던 일이 지금도 기쁨과 환희의 기억으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sup>51)</sup>

영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오랫동안 써온 C. S. 루이스(C. S. Lewis)는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 주위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궁(자랑, 교만, 오만)이다. 이것은 사람을 늘 올려지게만 보이도록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사건, 느낌, 또한 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

50) Viktor Frankl, *From Death Camp to Existentialism* (Boston, MA: Bearon Press, 1961), p. 35

51)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Boston:Beach publishing Co., 1955), p. 176

다. 그러므로 현실의 생활에 늘 만족이 없다.

두려움이나 염려 따위를 자신의 힘으로 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또한 기쁨의 방해가 된다. 그리고 침체, 우울, 죄의식 등이 기쁨을 방해한다. 이런 경우는 자기를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쁨을 되찾는다.

기쁨은 계획되어지고 또한 소유하려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투자할 때, 그 때 생겨지는 부산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리고는 곧장 사라져 버린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어하게 되면, 그것은 벌써 가치가 없게 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해물을 제거한다고 곧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 이미 말했듯이 기쁨이란 것은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게 되는 부산물(by-products)이다.

어떤 기쁨은 기대치 않은 것으로부터 올 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기쁨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기쁨은 희망을 창조케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결된다. 기쁨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 결론 설교

예수님의 전도  
(요 4 : 3 ~ 42)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7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시게 된다.

지도상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사실 더 먼 길이지마는 빙 돌아서 간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댁에 갈 때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좀 보기 싫은 사람 집이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좀 돌아가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아무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로 들어가셨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우물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시는 물에 관해, 그 다음에 남편에 관한 얘기, 예배, 내가 그리스도다, 또 양식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

마지막 39~42절 부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실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보기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해 달라고 해서 계획에도 없던 이들을 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계시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곳이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주석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식민지의 후손으로 결혼을 타민족과 마구 해서 피가 섞여 있다고 한다. 우리말로 혼혈족이라 표현되겠다.

서양에서 보면 아버지는 미국인, 또 캐나다인 그러는데 엄마는 영국인, 독일인, 심지어는 동양인이니 일본인 한국인이라고 그런다.

왜 그런고 하니 서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객지에 나가서 만나는게 같은 나라 남자, 여자가 만나기보다는 외국 사람과 만나서 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의 남편이, 6번째 인 것을 봐서 전형적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볼 수 있다.

이혼을 다섯번 했는지, 다섯번째 남편까지 다 죽었는지, 아니면 서양같

이 결혼 같은 것은 거의 안하고 그냥 남자를 6번 바꿔 가면서 살아왔는지 몰라도 좌우간 6번째 남편인데도 남편은 없다, 그렇게 대답한다.

그런데 이상하리 만치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께서 애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자, 여자가 서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아마도 이 여자가 여기저기로 팔려 다니는 여자 노예였을 지도 모른다고 그렸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버림받은 여인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상대방의 직업, 사회 위치,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서 그런 것들은 아랑곳 하시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얘기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놀랐지만, 예수님을 놀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놀랐다.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 주위 환경으로 봐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정말로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다.

관심을 보여서는 안되는, 관심을 보일 수도 없는, 관심을 보일 필요조차 없는, 뭐하나 건져질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다.

교회에 잘 나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야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하니!”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단순한 관심,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인생의 생과사가 결정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린다.

말들은 안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가 관심 가져 주기를 그들은 기다린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에게 관심 없으면, 나, 교회 데려가기 힘들어”

미국의 어떤 신학자<sup>16)</sup>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If there is no care, there is no church”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교회가 아니다.

여기 바로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따뜻하고 인정이 담뿍 담긴 말한 마디, 전화 한 통...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기력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가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섭섭함을 느끼고 교화와는 한없는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간다. 영원히 무너지기 어려운 담들, 과연 누가 쌓았는가?

그들이 쌓았는가, 아니면 교회에 잘 다닌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그런 담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은 기도 열심, 예배 열심, 모임 열심은 있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일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한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드럽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선교, 전도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높은 담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자살 아닌 자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외국에서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인의 신앙은 주로 어떠냐, 묻기에 우리는 기도 열심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라, 그랬더니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되묻기에 사실 우리가 그건 좀 부족하다고 얘기 한적이 있다.

우리는 사실 위엣 것에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치중했지, 이웃에게 관심 보이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 또한 그렇게 자라 왔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또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만 하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시간 있는 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셨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학은 어떤가...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은 별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물 길러 오는 것은 자기 생활의 일과였다.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넌 필요도 없고, 자기같이 정숙치 못한 여자, 남에게 말을 건넌 용기조차 없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본문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셨다. 대개 사람들은 거의 다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상담자들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찾아가지 않는다.

사이가 좀 나빠진 사람들도, 서로 “두고 보자! 전화 먼저 안 오는데 내가 왜 먼저 전화해, 내가 왜 먼저 인사해!” 뭐 그런 식이다.

교회 안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만 욕먹는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또 코밑을 지나가면서도 들리지 않고, 만나왔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신앙이 없니 하며 정죄하기 시작한다.

먼저 말 걸고, 먼저 찾아가는 미덕이 더 없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다들 바빠지는 세상이 되었으니, 누가 와서 말을 먼저 걸어주지 않으면, 와 주지 않으면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대개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아니 그건 아예 멀리멀리 버려두고, 사회적인 위치나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다. 그런 것보다는 어디 교수, 어디 선생님, 어디 직장의 과장, 계장, 아니면 ○○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낙네, 뭐 소장수, 개장수, 고기 장수, 미역 장수, 농사꾼, 뭐 이런 식으로....

겉모양, 껍데기만을 보고 마음속에 선입관을 갖기 시작한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무서운 것이다.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선입관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공부 많이 했고 또 잘하는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공부만이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남보다 환경이 좀 더 좋았기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외국에서 어느 한국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 자기가 공부 다 마치고 교수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남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남보다 좀더 나은 환경이었기에 공부할 수 있었다.

한번은 필자가 외국 병원에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콧노래를 불러 가면서 여유 만만한 모습으로 일을 한다.

한국 같으면 직업의 귀천이란 게 있어서 좀 부끄러워하고 그럴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캐나다 친구들과 직업에 관한 예기를 주고받았는데, 한국 사람은 직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보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개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면 올려 보이고, 청소부나 고기 장수, 무슨 장수하는 사람은 좀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 “너도 그러냐” 물기에, “나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되물기에, 그냥 한국에서 그런게 몸에 배어 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또 물기를 “교수, 의사, 변호사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청소부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서 “뭐 봉급도 좀 다를 테고....” 나중에는 나보고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짓고 말았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청소하고 싶은 사람은 청소부가 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 차별 대우를 별로 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인간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우리의 신앙,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려지게 만들어 버린다.

만약 듣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예수님의 살아오신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좀 건방진 애긴지 몰라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혼혈아인 사마리아인을 찾아갈 수도, 또 찾아갈 생각도, 이미 아예 그런 건 엄두도 낼 수가 없다. 남에 대한 사랑,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왜 몰랐겠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에 애기의 초점을 그런 과거와 현재의 흠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약점이 되는 데에 맞추지 않았다. 누구나 다 밝혀지고 싶지 않은 인생의 darkness(어두운 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목마르니 마시는 물 좀 주시오”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왜, 그런 어두운 면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느냐, 그런 애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되는 것이니 미리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어서 대화를 끊어 버려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 여인과의 대화 목적은 대화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뭐 과거의 일 갖고 콩이야 팔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태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서로 알아알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권리도 없지만 ....

4절부터 오늘의 본문이지만,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지난 16절에 가서야 나온다. 그것도 딱 3절 정도로. 세 절 정도면 그 문제는 충분하다. 그 말이다. 40절 정도의 본문에 딱 3절만 어두운 면에 대해 할애를 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상대방의 약점, 헛점 등을 크게 대해서 그것만 온통 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기 보다는 판단하고(판단의 권리도 없으면서),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식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 개인 영혼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어두운 면, 밝히고 싶지 않은 면, 부끄러운 면, 그런 것에만 온통 신경 쓸 때가 많이 있다.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여지니까 먹는 물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한다. 펍 지혜로운 방법이다. 상대방이 있는 그곳에서(where they are),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서로 다른 생각을, 다른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방 새로운 것에 귀가 번쩍 쏠릴 수가 있겠는가.

필자가 실수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날씨

가 너무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날씨가 너무 좋지요”(It's nice day, isn't it?)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시큰둥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남은 열 내서 얘기했는데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지”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몹시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데 ,거기다 대고 “날씨 참 좋다” 그랬으니, 속으로 “이 사람 참 세상 모르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도는 커녕 얘기를 풀어 보지도 못하고 말았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모든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한다. 기독교의 힘은 결코 머리에서 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대할 때 머리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캐나다인 목사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너는 머리만 꽤 많이 발달됐구나.”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교회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조심스런 말 한마디, 따뜻한 작은 손길 하나 하나가 그들에게는 더 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자. 꼭 나와 마음이 딱 맞고 생각이 같고, 환경이 같고, 사회적 위치가 같고, 또 신앙관이 꼭 같은 사람들과는 자주 전화하고, 거래하고 그러지마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 차별대우해 본 적은 없는가?

“그 사람, 교회열심, 기도 열심인데 너무 차가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가?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아서 되겠는가?

꼭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만 교회에 나오고, 꼭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가라, 그런 주님은 결코 아니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야 할 것인가?

[기도]

# 참고 도서

## 영 서

- A. H. Maslow. *The Psychology of science*. Chicago : Henry Regenery, 1966.
- Allison Stocks. *Ministry after Freud*. New York : The Pilgrim Press, 1985.
- Anton T. Boisen. *The Explanation of the Innerworld*.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1.
- Arthur L. Teikmanis. *Preaching and Pastoral care*. Pennsylvania: Fortress Press, 1964.
- Brister, C. W. *Pastoral care*. New York Halper & Brother's, 1964. Charles B. Truax and Robert R. Carkhuff.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o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 Clement, William M. *Care and counseling of the Aging*.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9.
- *Ministry with the Aging*. New York: Harper & Row, 1983.
- D. C. Wilson, 'Montreal - The Royal Victoria Hospital', *The Hospice*. Washington, D. C :Hemishre Publishing Co., 1978.
- Don M. Aycock. *Heralds to a new Age*. IL: Brethern Press, 1984.
- Earl C. Gibbs. *Caring for the Grieving*, Sanrafael : Crystal Press, 1978.
- Edgar N. Jackson. *How to Preach to Peoples needs*.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70.
- Elisabe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74.
- Flavius, J. May. *A Church of Faith, Love & Hope*. Cleveland: Church of God school of Theology, 1991.
- Fred B. Craddock. *Preaching*. Canada, Ont: Welch Publishing Co., 1985
- G. Davidson. *Understanding death of the Wished-for Child*. Springfield: O. G. R. Publishing Co., 1979.
- G. Gurin, and J. Veroff. *American View : Th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1960.
- Granger E. Westberg. *Good Grief : A Constructive approach to the Problem of Lo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2.
- Harold S. Kusher.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New York: Schicken Books, 1981.
- Holifield, E. B.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Howard J. Clinebell. *Growth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 James C. Barry. *Preaching in Today's World*. Nashville: Broadman Press. 1984.
- James Hillman. *Emotion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61
- Jay E. Adames. *Audience Adaptation in the Sermons and Speechs of Paul*. Grand Papids: Baker Book House, 1976.
- John Macquarrie. *Twentieth Century Religiou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1976.
- John Sanford. *The Kingdom within*. New York: Lippincott, 1970.
- Karl K. Lewin. *Brief Psychotherapy*. St. Louis: Warren Green, 1970.
- Kayakawa, S. I.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London: George & Unwin Ltd., 1965.
- Klass Runia. *The Sermon under attack*. Australia: The Paternoster Press. 1983.

- Lawrence E. Holst(ed). *Hospital ministry: The Role of the Chaplain Today*. New York:Crossroads,1987.
- Leslie D.Weatherhead. *Psychology,Religion and Heading*. New York: Grune and Stratton, 1954.
-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Boston: Beach Publishing Co., 1955.
- M. R. Chartier. *Preaching as Communication*. Nashville: Abigdon Press, 1981.
- Paul F. Schmit. *The Character assessment scale*. New York: Halper & Row, 1980
- Reuel L.Howe. *Partners in Preaching*.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7.
- R. Dustin and R. Geoge. *Action Counseling for behaviour change*. New York: Intext, 1973.
- Robert W. Bailey. *The Minister and Grief*. New York: Hawthorn Books, 1976.
- Simone de Beavoier. *The Coming of Age*. New York: Putman's, 1976.
- Similey Blanton. *Love or Perish*. New York: Simon & Schuster, 1956
- The Oxford Universal dictionary*. Oxford,England: Claredon Press, 1955.
- Viktor Frankl. *From death camp to Existentialism*. Boston: Press, 1955.
- Wayne E. Oates. *Life's Detours*. Nashville: The upperroom, 1974.
-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in Grief and Separ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 Willard Gaylin. *The Meaning of Despair*. New York : Screience House, 1968.
- William P. Tuch. *Facing Grief and death*.Nashville: Broadman Press, 1975.

## 외국저널

- Age Words: A glossary on Health and Aging*. MD :National Institute on Aging, 1982.
- A Review of the Faculty of Theology*. (Vol. 20, No.2),Ottawa: St. Paul University, 1989.
- Asia Journal of Theology* (Vol. 4,No.2),Singapore:ATESEA,1990.
- Churchman* (Vol. 102, No.4), London: Church Society, 1988.
- Connection Azusa* : Azusa Graduate School of Theology,1990.
- Eighteenth Century life* (Vol.X,No.1) Virginia:College of William and Mary, 1986 JAN.
- Insight: A Journal of the Faculty of Austin Seminary*.(Vol.106,No.2)Texas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1991, Spring.
- Interpretation*(Vol,XIII,No.4)Virginia: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89 October.
- Journal of Church and State*(Vol.32,No.4) Texas: Baylor Univ., 1990 Autumn.
- Journal of Pastoral care*. New York: 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1968 ~ 1982.
- Journal of Theology*.(Vol,X).Ohio: United Theological Seminary, 1991.
- Leadership*(Vol. XI,No.2) IL: Christionirty Today, 1990.
- Pacific Theological Review*(Vol,X X III,No.2)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1 spring.
-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Vol.34,No.1)Texa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1 Fall.
- St.Vladmir's Theological Quarterly*(Vol.35, No.4) New York:Athens Printing Co., 1991.
- The Bible Today*(Vol.28,No.3) Minnesota: Saint Johns Abbey, 1990 May

- Theology*(Vol,XⅢ,No.754), London: Holy Trinity Church, 1990.
- The Expository Times*(Vol.102,No.2) Edinburgh: T & T Clark, 1990.
-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XⅡ,No.1)New Jerse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1.
- The Spire* (Vom.14,No.1)Vanderbilt University Divinity School, 1990

## 번역서

- 김태묵역. 와이스 캐롤「목회 상담학」서울: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65.
- 도병일역. Robert C. Leslie.「예수와 의미요법」서울:혜선문화사, 1974
- 박근원역. 하워드 클라인벨, 「목회 상담신론」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 . Bot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현대목회 상담」서울: 전망사, 1979.
- . Edward Thurneyson. Seelsorge in Vollzug.「목회학 실천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7.
- 박영호역. Horne H.M. Teaching Techniques of Jesus「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80.
- 설영환역. C. G. Jung.Analysis of Unconsciousness「무의식 분석」부산: 선영사, 1986.
- . C. G. Jung. Interpretinf Jung Psychology,「융심리학해설」부산: 선영사, 1986.
- 성염역. Kubler-Ross.「인간과 죽음」왜관: 분도출판사, 1979.
- 송헌복역. 데이빗 씨멘즈.「상한 감정의 치유」서울: 두란노서원, 1991.
- 양승달역. 제랄드 내래모어.「상담 심리학」서울: 성암사, 1984.
- 오성춘역. 제랄드 코레이.「상담학 개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 이기춘역. 토마스 오든. 「목회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이기춘. 김성민역. 토마스 오든. 「케리그마와 상담」서울: 전망사, 1983.
- 이상노. 이관용역. 할 린지. 「성격의 이론」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0.
- 이종현역. 하워드 클라인벨. 「성장과정을 통한 부부성장」서울: 기독교서회, 1990.
- Contemporary Growth Therapies, 「현대성장 상담 요법」서울: 대한예수교총회출판국, 1990.
- 이춘실역. 로렌스 바미. 「상담관계의 이론과 진행」서울: 목양사, 1987.
- 전동식역. 제이 아담스. 「복음주의적 목회 상담」서울: 성광문화사, 1983.
- 정정숙역. 제이 아담스 「목회상담학」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 정태현역. Viktor E. Frankl. The Unconsciousness God. 「무의식의 신」왜관 :분도출판사, 1979.
- 조동진역. W.C.Mavis. 「기독교 경험 심리학」서울: 크리스찬 해럴드, 1970.
- 차호원역. 씨. 맥레모어. 「목회상담 임상 핸드북」서울: 성광문화사, 1986.
- 천정웅역. 던컨 부케넨. 「예수의 상담과 실제」서울: 아가페출판사, 1987.
- 최종수역. 월버 슈람. 「커뮤니케이션원론: 인간 메시지 그리고 미디어」서울: 전예원, 1986.
- 최혜란역. 켈빈 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서울: 한학출판사, 1985.
- 한승호역. 칼 로저스.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1980

## 한 서

-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87.
- 유형심. 「목회 심리학」서울: 한국기독교 문학 연구소, 1979.
- 이기춘. 「목회 임상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감리교신학대학부설 한국선교교육원, 1983.
- 이형옥. 「집단상담의 실제」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9.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서울: 박영사, 1981.
- 전찬화 외 4인 「일반 심리학」서울: 이대교육심리학  
연구론, 1969.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개론」서울: 세영사, 1982
-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서울: 지혜문화사, 1986.
- 최창섭.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1978.
- 「언어와 환경」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1986.
- 최한구.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서울: 태학사, 1985.
-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서울: 나남사. 1984

## 논 문

- 고순호. "Howard J. Clinbell 의 부부,가족관계 강화에 대한 연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원, 1990
- 고시영. "예수 상담에 대한 목회분석"서울: 장신대학원, 1984.
- 곽 광. "Communication로서의 상담자에 관한 연구"  
서울: 총신대학대학원, 1989.
- 김시성. "브리스터의 목회 상담학적 돌봄의 연구"  
서울: 장신대학원, 1989.
- 박성철. "Anton T.Boison의 목회임상 교육에 대한 연구"  
서울: 감신대학원, 1988

- 방태화. “목회를 위한 임상교육(CPE)에 관한 연구”  
서울: 한신대학원, 1986.
- 배성산. “노인문제에 대한 성장 상담학적 접근”  
서울: 한신대학원, 1985
- 서병채. “사도 바울의 설교 연구” 서울: 감신대학원, 1985.
- , “*St. Paul's Preaching at Pisidian Antioch*”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1991.
- , “*Pastoral Care in the Korean Church*” 캐나다: Whitby  
Psychiatric Hospital, 1992.
- 이대우. “예수 상담과 상담기술”서울:  
총신대학원, 1989. 이화여대논총(교수논단), 제37 집, 1980.
- 임향자. “현대목회(Pastoral care)의 한 모형으로서의 Hospice에  
관한 연구” 서울: 감신대학원, 1990
- 정창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상담에 관한 연구” 서울:  
총신대학원, 1986.
- 정태기. “노인을 위한 목회상담” 기독교 사상, 제29권.4호, 1985.
- 최동복.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목회 상담학적 접근”  
서울: 장신대학원, 1990.
- 최윤식. “목회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서울: 한신대학원, 1990.
- 한병일. “H.J.클라인벨의 목회상담 모델 연구” 서울: 한신  
대학원, 1985
- 한재희. “목회상담을 위한 심리학적 인간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신학대학원, 1989.

## 부 록

### Annotated Bibliography

책을 쓰는데 사용된 참고도서와는 별개로 Pastoral Care에 관한 책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책에 대해 설명을 간단간단히 해놓은 것(annotated)이므로 이 방면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에게는 퍽 유용하다.

이것은 하워드 크라인벨(Howard Clinebell)이 편집한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전29권)”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A]

Ackerman, Nathan,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New York: Basic Books, 1958. A classic by a pioneer in family therapy.

Adams, Margaret. *Blessedness: Observations on the Single Status in Married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6. This effective consciousness raiser attacks the notion that singleness by choice is not healthy.

Adler, Alfred.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ed. L. Heilzand R.R. Ansbacher. New York: Harper, 1956. Two persons who studied with Adler did what he himself was unable to do-systematically organized his thoughts on critical issues. The book consists of direct quotes from Adler, with comments by the Ansbachers interspersed.

Alberti, Robert, and Emmons, Michael. *Your Perfect Right*. San Luis Obispo, Calif.: Impact Press, 1974.

----- . *Stand Up, Speak Out, Talk Back*. New York: Pocket Books, 1975. Two outstanding books on assertively claiming your own rights in interpersonal conflict situation. They provide clear outlines for understanding the crucial differences between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Allison, C. Fitzsimons, *Guilt, Anger and God*. New York: Seabury, 1972. Deals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guilt, anger, and the fear of death, and presents the response of the gospel.

Antoniak, Helen; Scott, Nancy Lynch; and Worcester, Nancy. *Alone: Emotional, Legal, and Financial Help for the Widowed or Divorced Woman*. Millbrae, CA: Les Femmes Publishing, 1979. This book by and for women offers emotional support and legal and financial advice for single women.

Ardell, Donald B. *High Level Wellness, An Alternative to Doctors, Drugs, and Disease*. Emmaus, Pa.: Rodale Press, 1977. A discussion of how we can increase our wellness and that of society. Includes a Resource Guide to books in the field.

Armbruster, Dorothy M. *Pennies and Millions: A Woman's Guide to Saving and Investing Money*. Garden City, N.Y.: Doubleday, Inc., 1962. Written primarily for women to help them in the financial arena.

Arnold, Oren. *Guide Yourself Through Old 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A breezy popular primer that can be put in the hands of the nonprofessional.

Atcheley, Robert C.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2n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d.,1977. A good technical look at those factors which shape aging in America.

Augsburger, David W. *Anger and Assertiveness in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3. A popularly written guide to effective caring and confronting relationships in marriage, family, work, and community situation. Blends psychology and theology for a creative Christian expression of wholeness in personhood.

[B]

Bach, George, and Goldberg, Herb. *Creative Aggression*. New York: Avon Books, 1974. A psychoanalytically oriented book on assertiveness and the ritualization of agg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Bach, George R.,and Wyde, Peter. *The Intimate Enemy*. New York: William Morrow,1969. A guide to constructive, intimacy-enhancing conflict.

Baker, Louise. *Out on a Limb*. New York: McGraw-Hill Book Co.,1946. A delightful account of her life as a uniped by a lovely woman who kisses you when, on first being introduced to her, you say,"I know the name-you're the author of Party Line!"

Barker, John C. *Personal Finances for Minist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73. Deals with salary contracts, negotiations, record keeping, spending plans, credit, investing, and retirement.

Baruch, Dorothy W., *How to Live with Your Teen-Ager*. New York: Mc-Graw-Hill Book Co.,1953. A practical guidebook for parents of adolescents.

-----*New Ways in Disciplin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1949. An insightful book on the emotional needs of children.

-----*New Ways in Sex Education, A Guide for Parents and Teachers*. New York: McGraw-Hill,1959. A readable and clearly illustrated guide to sex education which deals with each of the ages and states of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and Miller, Hyman, *Sex in Marriage, New Understandings*. New York: Harper and Row,1969. A manual for understanding the physical and emotional dimensions of sex in marriage; included is a discussion of the initial sexual adjustment, keeping love alive, pregnancy, childbirth, and sex in the later years.

Beaves, W.Robert.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1977. This excellent description of systems theory and the nature of psychotherapy includes a lucid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y family, which renders it invaluable for goal setting in educational as well as therapeutic settings.

Beck, Aaron T.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1976. A cognitive approach to counseling that represents a scientific and commonsense understanding of people's emotional disorders.

Becker, Arthur H. *Guilt: Curse or Blessing*. Minneapolis: Augsburg,1977. A clinically trained pastor argues that guilt has its positive aspects and can be creative rather than destructive.

Becker, Russel-J., *Family Pastoral C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A discussion of the role of minister and congregation in helping families to cope with crises and to live constructively.

Bell, Norman W., and Vogel, Ezra,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A symposium by sociologists dealing with the family and external systems, internal family processes, and the family and personality.

Bem, Sandra.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Available from her at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A study of the behavior of persons according to their "feminine", "masculine", or androgynous behavior,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new awarenesses. Includes her androgyny Tests.

Benson, Herbert. *The Relaxation Response*. New York: William Morrow, 1975. Evaluates a variety of stress-reduction methods including transcendental meditation, autogenic training, progressive relaxation, Zen, and yoga approaches to meditation. Suggests a simplified method of meditation.

Bergler, Edmund. *Money and Emotional Conflict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9. Nontechnical; exposes some of the emotional conflicts caused by money.

Bernard, Jessie.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Bantam Books, 1972. A survey of studies on marital happiness with an assessment of the future of marriage, especially egalitarian marriage.

Berne, Eric.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1964. A compendium of many types of games; includes an initial chapter summarizing the overall TA system.

----- .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Describes how to use TA in growth and therapy groups.

----- .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Grove Press, 1961. The most comprehensive and technical discussion of TA's principles.

-----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Organizations and Groups*. Philadelphia: Lippincott, 1963. TA's approach to group dynamics.

----- . *What Do You Say Hello?* New York: Grove, 1972. A detailed discussion of scripts.

Bertalanffy, Ludwig von.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8. A basic introduction to systems theory.

Berther, Ruth and Edward (eds.), *An Analysis of Human Sexual Response, The Masters and Johnson Study*. New York: Signet Books, 1966. Includes a section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Masters and Johnson study for counseling in sexual problems.

Bier, William C., ed. *Conscience: Its Freedom and limita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71. A series of articles,

mainly by Catholic scholars, on the nature of conscience, especially as it relates to human freedom.

Bittinger, Marvin L., ed. *Living with Our Hyperactive Children*. New York: Two Continents Publishing Group, Inc., 1977. A series of stories written by parents regarding their experiences in living with their hyperactive children.

Bless, Robert. *Counseling with Teen-Ag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Accounts of Growth group experiences and counseling with youth and their parents by the staff of the First Community Church, Columbus, Ohio.

Bloomfield, Harold H.; Colglroven Melba; and McWilliams, Peter. *How to Survive the Loss of a Love*. New York: Bantan Books, 1977. The bite-sized first-aid ideas in the "bedside companion" book are helpful in facilitating grief.

Blos, Peter. *The Adolescent Personality*. New York: Free Press, 1962. A psychoanalytic study of adolescence, its phases and growing up problems; illustrated from case material.

Bob Gelorge, *Classic Christianity*. In this remarkable book, Bob George shares in his down-to-earth style the road back to joy and contentment in the Christian life. Drawing on his years of teaching and counseling experience, Bob clearly outlines the common pitfalls and misconceptions that are hindering so many Christians today and robbing them of the experience of their inheritance in Christ. He confronts the question of why so many Christians start out as enthusiastic believers and then decide that Christianity doesn't "work" for them. He then provides the truth that will help Christians get back on track and stay there.

Bonhoeffer, Dietrich. *Ethics*. London: Collins, 1964. This classic in theological ethics includes theological treatments of conscience and guilt.

Boss, Medard. *Psychoanalysis and Daseinsanalysis*, trans. Ludwig B. Lefebvre. New York: Basic Books, 1963. Describes his basic revision of psychoanalytic theory and practice as these were influenced by existentialism.

Boston Women's Health Collective. *Our Bodies, Ourselves: A Book by and for Women*, rev. 2nd ed. New York: Simon & Schuster, 1976.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being responsible for one's own health.

Bowen, Murray. "Family Therapy and Family Group Therapy", chap. 11 in *Treating Relationships*, David H.L. Olson, ed. Lake Mills, Iowa: Graphic Publishing Co., 1976. Includes a brief history of family therapy and a description of Bowen's contributions to family therapy.

Bower, Sharon, and Bower, Gordon. *Asserting Yourself: A Practical Guide for Positive Change*.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6. An explicit training workbook on behavioral rehearsal and assertive thinking, negotiating, and contracting.

Bradley, Buff; Berman, Jan; Suid, Murray; and Suid, Roberta. Single.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7. This reader on the joys of singlehood includes poetry and other items useful for single's programs, plus a good bibliography.

Braudy, Susan. *Between Marriage and Divorce*. New York:Signet Books, 1976. This feminist journal is important reading for divorced singles, especially women.

Brenton Myron. *The American Male*. New York : Cowarddd-McCann,1966. Explores how the code of masculinity cripples the personality and restricts the enjoyment of men, and suggests how they can liberate themselves.

Brill, Mordecai L.;Halpin, Marlene;; Genne, William H.,eds. *Write Your Own Wedding*. New York:Association,1973. A personal guide for couples of all faiths.

Brister, C.W. *Pastoral Care in the Church*. New York:Harper & Row,1964. Explores the nature of pastoral care with emphasis on pastoral functions and their theoretical basis, personal relationships and Christian doctrine as it functions in pastoral work.

Broverman, Inge K.,et al. "Sex 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4,no.1,pp.1-7. Report research revealing the sexism of therapists.

Brown, Barbara B. *New Mind, New Body, Bio-Feedback: New Directions for the Mind*. New York: Bantam Books,1975. A discussion of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biofeedback its chapters on skin, muscle, and brain-wave application.

----- . *Stress and the Art of Biofeedback*. New York:Harper,1977. The therapeutic uses of biofeedback for a variety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Brown, Christy. *Down all the Days*. New York: Stein and Day, 1970. A lusty autobiographical novel, lyrical and unsentimental.

Browning, Don. *Generative Man: Psychoanalytic perspectiv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3. A depth study of Erikson, Fromm, Hartmann, Robert White, Norman Brown, and Phillip Rieff and their views of wholeness and society.

Brown, Phil, ed. *Radic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3. A collection of papers on radical therapy.

Browning, Don S. *Atonement and Psychotherap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This shows how the acceptance required for successful therapy is grounded in an adequate doctrine of God.

----- .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Argues that pastoral care should be exercised within a context of moral meanings and explores ways of fostering a growing awareness of those meanings.

Bruckner, Leona. *Triumph of Lov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4. A mother's probing analysis of her acceptance of her amputee child.

Bry, Adelaide. *How To Get Angry without Feeling Guilty*. New York: Signet Books, 1976. A self-help book that attempts to define types of anger and anger behavior with a view to bringing anger under the control of insight and responsibility.

Buckley, Joseph C., and Schmidt, Henry. *The Retirement*

Handbook: *A Complete Planning Guide to Your Future*. 4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Start planning your church retirement program by reading this book.

Bugental, James F.T. *The Search for Authentic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resents an existential-analytic approach to psychotherapy reflecting the influence of Maslow, Tillich, and May.

Bull, Norman. *Moral Judg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Beverly Hills, Ca.: Sage, 1969. Reports an extensive English survey on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utler, Robert N., and Lewis, Myrna I.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social Approaches*.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3. Written for health professionals, but full of implication for ministry.

----- . *Sex After Sixty: A Guide for Men and Women for Their Later Years*. New York: Harper and Row, 1976. After you read this book, place it on your shelf in plain view.

----- .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1975. Your task force on aging needs to digest this 470 page polemic-get it for them, then read it yourself.

[C]

Calderone, Mary S., *Release from Sexual Tens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0. A book on making sex a constructive force in marriage.

Campbell, Joseph, ed. *The Portable Jung*. New York: Viking

Press,1971. A well-organized publication of Jung's system as extrapolated from his many writings.

Campbell, Joseph. *The Masks of God: Primitive Mythology*. vol. 1. New York: Viking Press,1970.

----- . *The Masks of God: Primitive Mythology*. vol. 2. New York: Viking press,1970. Basic resource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Mother Goddess and the influence and role of the "feminine" in mythology, psychology, archeology, and history its sexist language is mitigated by an obvious respect for woman and the "feminine".

Campos, Leonard, and McCormick, Paul. *Introduce yourself to TA*. Stockton: San Joaquin T.A. Institute, 1974. A valuable pamphlet giving a summary and overview of TA in simple language.

Caplan, Gerald.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1964. The second chapter, "A Conceptual Model for primary prevention",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significant life cris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their outcome e.

Caplan, Ruth. *Helping the Helpers to Help*. New York: Seabury, 1972. An affirmative look at enabling clergy through consultation.

Carkhuff, Robert R. *The Art of Helping*. Amherst, Ma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72. Describes the attending, listening, and responding behaviors which are importances of the A and B phase of the ABC method.

----- . *The Art of Problem Solving*. Amherst, Ma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73. Contains a more

complete exposition of how a helper can do problem solving with a client (C of the ABC method).

Carlson, Earl R. *Born That Way*. New York:John Day Company,1941. A classic, this medically oriented book recounts the author's own response cerebral palsy.

Carrington, William L. *The healing of Marriage*. Great Neck, N.Y. : Channel Press, 1961. A handbook on marriage counseling for ministers, doctors, and other professionals.

Chaput, Richard. *All I Can Give*. Canfield,Ohio:Alba House Communications,1972.Out of an iron lung, into the world.

Chapman, A H. Harry Stack Sullivan,*His Life and His Work*. New York:Putman's,1976.Includes a biography and chapters on Sullivan's views 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therapy, and the relevance of Sullivan to current social dilemmas.

Chesler, Phyllis. *About Men*. New York:Simon & Schuster,1978.A revealing study of the destructiveness of male dominance and values.

----- . *Woman and Madness*. New York :Avon Books,1973. Documents the central role of sexism in "mental illness" in women and the destructiveness of much of their treatment by male therapists.

Chess, Stella,et al., *Your Child Is a Person*. New York:Viking Press,1965. Application of findings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rearing practices on children from birth to age nine.

Clinebell, Howard. *Growth Counseling: Hope-Central Methods of Actualizing Human Wholeness*. Nashville:Abingdon 1979. Discusses the theory, methods, and theology of Growth Counseling.

----- . *Growth Counseling: New Tools for clergy and Laity* .Nashville:Abingdon Press,1973,1974.Fifteen do-it-yourself cassette training courses for learning Growth Counseling techniques. Part I - "Enriching Marriage and Family Life"; Part II -"Coping Constructively with Crises".

----- .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Enrichment: Pre-Marriage and the Early Years*. Philadelphia:Fortress Press,1975.Applies the growth counseling approach to marriage enrichment, particularly during the preparation and early stage.

----- . *Growth Counseling for Mid-Years Coup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77. Marriage enrichment and counseling methods for the mid years.

----- . *Growth Groups*. Nashville:Abingdon,1977. Spells out the growth-group approach and applies it to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creative singlehood, youth work, women's and men's liberation, social problems.

----- . *Mental Health Through Christian Commun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5. Chapter9 discusses "forstering Mental Health by Strengthening Family Life" through the church program.

----- .*The People Dynamic: Changing Self and Society Through Growth Groups*. New York:Harper & Row ,1972. A guide for parents to help children with crises.

----- *The Intimate Marriage*. New York:Harper & Row,1970. A guide to emotional, sexual, and spiritual intimacy, Clinebell, Charlotte Holt. *Counseling for Liber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76.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roles of women and me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Clinebell, Howard. "Ego Psych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February 1963, pp:24-36. Discusses the basic concepts of ego psychology as resources for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ve counseling.

Clinebell, Charlotte Holt. *Meet Me in the Middle*. New York:Harper and Row,1973. A personal story of one woman's changing self-concept and a study of implications of sex equality for marriage, sex, child rearing, work, human survival.

Cobb, John B.,Jr. *The Structure of Christian Existenc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67.

----- *God and the Worl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69. These two works provide a fuller development of the theological ideas stated in the present book.

Colgrove, Melba; Bloomfield, Harold H. ; and McWilliams, Peter. *How to Survive the Loss of a Love*. New York: Bantam Books, 1976. Combines practical suggestions and poetry to help with loss.

Comfort, Alex. *The Joy of Sex*. New York: Crown, 1972. A liberating guide to sexual pleasure.

Cooper, John Charles. *Fantasy and the Human Spirit*. New

York:Seabury Press,1975. A theologian's imaginative development of the thesis that our personal religion is shaped by the particular life story we are telling ourselves.

Cousins, Norman. *Anatomy of an Illness as Perceived by the Patient*. New York: W.W.Norton,1979. A description of his self-healing.

Crook. Roger H. *Serving God with Mammon:The Economic Ministry of the Family*. Richmond,Va:Covenant Life Curriculum Press,1965. How we make and use our money in a values context.

Cunningham, Robert M.,Jr. *The Wholistic Health Center: A New Direction in Health Care*. Battle Creek,Mich.:W.K.Kellogg Foundation,1977. Describes the centers developed by Granger E.Westberg.

Curran, Charles. *Religious Val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Sheed & Ward,1969. Discusses questions of sig, guilt, and anxiety, and the place of confession in personal counseling.

[D]

Daly, Mary. *Beyond Good the Father*. Boston:Beacon Press,1974. A philosophy of feminism and a new theology which challenges the hierarchical Father-Son tradition of Christianity and suggests the hope which lies in a theology"beyond God the Father".

Davis, Elizabeth Gould. *The First Sex*. New York:Penguin Books,1971. A comprehensive history of woman-mythological,historical,cultural,religious,and secular.

De Jung, Arthur J. *Marking It To Adulthoo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72. An Eriksonian interpretation of identity formation and discussion of tasks, moods, feelings, and defen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with chapters devoted to dating, developing self-esteem, sex ethics, and preparation for marriage.

Dittes, James E. *The Church in the Way*.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1967. Speaks to the plight of ministers who feel their ministry is impeded by an unready laity and unwieldy organizational structure.

Dreikurs, Rudolf, *Children:The Challenge*. New York:Hawthorn Books,1964. Presents a practical application of Adler's insights and approach to creative parenthood.

Duska, Roland, and Whelan, Mariellen. *Moral Development:A Guide to Piaget and Kohlberg*. New York:Paulist,1975. An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of Piaget and Kohlberg on moral development, with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 for Christian morality and educational practice.

Dustin, Richard,and George,Rickey. *Action Counseling for Behavior Change*. Cranston,R.I.:Carroll Press,1977.Discusses learning theory, action counseling techniques with individuals and groups.

Duvall, Evelyn M.,*Family Development*. New York : J.B.Lippincott, 1957.An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al needs and goals of the various stages of family life.

----- . *Why Wait Till Marriage*. New York:Association Press,1965. A frank discussion of the case for premarital chastity; written for youth.

Duvall, Evelyn M., and Hill, Reuben, *When You Marry* (Rev. ed.),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3. For those anticipating marriage—what it means to be married, the making of a family, changes in family life in contemporary society.

[E]

Eckert, Ralph, *Sex Attitudes in the Home*.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6. A book for parents who want to help children to develop healthy sexual attitudes.

Egleson, Jim, and Egleson, Janet Frank, *Parents without Partners, A Guide for Divorced, Widowed or Separated Parents*. New York: E.P. Dutton and Co., 1961. Based on the personal experiences of single parents in the organization, Parents without Partners.

Eichenlaub, John H., *The Marriage Ar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 A most helpful discussion on the art of sex in marriage.

Eisenstein, Victor (ed.), *Neurotic Interaction in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1956. A symposium including articles on subjects such as psychoanalysis and marriage, neurotic factors in the choice of mates, the spouse of the alcoholic, and family diagnosis and treatment.

Eliade, Mircea. *The Two and the One*.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Religious and mythical androgyny from the point of view of a historian of religion.

Ellis, Albert A. and Harper, Robert A. *A New Guide to Rational Living*. Los Angeles: Wilshire Book Co., 1975. The basic and first book to read for gaining an understanding of rational-emotive

therapy.

Ellzey, W.Clark, *How to Keep Romance in Your Marriage*. New York:Association Press,1954. Discusses the various stage of romance in marriage as these relate to sex, money, emotional maturity, parenthood.

Elof, Nelson G., *Your Life Together*. Richmond,Va.: John Knox Press,1957.A book for engaged couples.

Emerson, James G.,Jr. *Divorce, the Church, and Remarriage*.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1961. Helpful for persons who wrestle with sacramental or legalistic views of divorce as wrong.

----- . *The Dynamics of Forgiveness. Integrated discussion of forgiveness from historical,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with its application to pastoral care.*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W.W.Norton,1963. A groundbreaking book that sets forth his eight stages of growth.

----- .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1958. A psychoanalytic study of Luther's developmental crises and their impact on his times.

----- . *Gandhi's Truth*. New York: W.W.Norton,1969. Shows how Gandhi's childhood and youth prepared him to be the revolutionary innovator of militant nonviolence.

Ernest, Ken. *Games Students Play*. Milbraie, Calif.:Celestial Arts Publishing Co., 1972. A popular treatment of Eric Berne's

transactional analysis with illustrations from "games played" in public school classrooms and how to deal with them creatively.

Evans, Robert et al. *Casebook for Christian Living: Value formation for Families and Congregation*. Atlanta:John Knox,1977. Presents twelve case studies that raise values issues; suitable for use in local parishes.

Eysenck, H.J., ed. *Experiments in Behaviour Therapy*. Oxford:pergamon Press, 1964. Slightly outdated, this volume includes many good chapters which focus especially on systematic desensitization and reinforcement principles.

[F]

Fadiman, James,and Frager,Robert. "Alfred Adler and Individual Psychology",*Personality and Personal Growth*. New York:Harper,1976,pp.92-110. A succinct overview of Adler's major concepts and his understanding of human growth.

Fadiman, James,and Frager,Robert."Sigmund Freud and Psychoanalysis", *Personality and Personal Growth*. Harper,1976,chap. 1. A succinct overview of Freud's major concepts.

Fairchild, Roy W. *The Waiting Game*. New York:Thomas Nelson,1971. One of the "Youth Forum Series",a paperback about youth addressed to youth; a Christian Confrontation for those who would "live for the moment".

Fairchild, Roy W.,and Wynn,John C., *Families in the Church:A Protestant Survey*. New. York: Association Press,1961. Finding of a study concerning how families think, live and interact with their

churches.

Farberow, Norman L.; Heiling, Samuel M.; and Litman, Robert E. *Techniques in Crisis Intervention: A Training Manual*, Los Angeles: Suicide Prevention Center, Inc., 1968. A short but valuable guide to counseling an individual who is considering suicide.

Farrell, Warren. *The Liberated Man*. New York :Bantam Books, 1975. Describes male trappedness, what liberation can mean for a man, and how to achieve it.

Fasteau, Marc F. *The Male Machine*. New York :McGraw-Hill, 1974. Explores the destructiveness of the masculine stereotype and looks to an androgynous future.

Farberow, Norman L., editor. *The Many Faces of Suicide: Indirect Self-Destructive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80. A series of articles by twenty-eight experts on many different kinds of unconscious self-destructive behavior patterns common in contemporary life.

Feifel, Herman, ed. *New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Contributions from psychologists, nurses, physicians, social workers, anthropologists, sociologists, medical and other administrators, professors of law and mortuary science, and patients on their views of death.

Feldman, Frances L. *The Family in Today's Money World*, second edition.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76. Excellent survey of the current economic milieu, the family life cycle, money and counseling, needs-assessment for families,

and family resources.

Fensterheim, Herbert, and Baer, Jean.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New York: David McKay Co., 1975. A helpful and easy reading book on assertiveness in widely varied situations with many scripts and scenarios for practicing new behaviors.

Fischer, Clare Benedicks; Brenneman, Betsy; and Bennett, Anne McGrew. *Women in a Strange Land: Search for a New Im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An excellent anthology of writings by women who care about Christianity and the church. Both theology and personal growth are included in the variety of essays.

Fisher, Esther Oshiver. *Divorce: The New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1974. Fisher's intelligent discussion of the use groups for divorced singles is helpful in predivorce and postdivorce counseling.

Ford, Peter S. *The Healing Trinity: Prescriptions for Body, Mind, and Spirit*. New York: Harper & Row, 1971. A physician calls for fuller use of the theological insights of the church in counseling.

Foreyt, John P., and Rathjen, Dianna P., eds. *Cognitive Behavior Therap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1978. A collection of papers on the use of cognitive behavior methods with a variety of types of problems.

Powler, James, and Keen, Sam. *Life Maps*. Waco, Texas: Word Books, 1978. Helpful for understanding spiritual development.

Fax, Matthew. *Whee! we, wee, All the Way Home..A Guide to the*

*New Sensual Spirituality*. Wilmington, N.C.: Consortium Books, 1976. Explores playfully the mystical ecstasies that can be experienced in nature, the art, friendship, sexuality, sports, and thinking. One chapter deals with the sensuality of Jesus and the Hebraic prophets.

Frankl, Viktor E.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Pocket Books, 1963. A description of his death camp experiences and a brief statement about logotherapy.

----- *The Doctor and the Soul: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Alfred A. Knopf, 1962. Describes the basic philosophy and methods of this type of existential therapy.

Franks, Violet, and Burt, Vasant, eds. *Women in Therapy, new Psychotherapies for a Changing Society*. New York: Brunner/Mazel, 1974. Essays on the changing psychology of women and therapeutic approaches that emerge from this.

Freud, Sigmund.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vols. 15-16,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Hogarth Press, 1953-66. A series of lectures to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Vienna.

-----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tandard Edition of Freud's Complete Works, vol. 4-5). According to Freud, contains "the most valuable of all the discoveries it has been my good fortune to make".

-----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Standard Edition, vol. 22). Includes Freud's structural hypothesis.

Fromm, Erich,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Rinehart and Co., 1941. Explores the reasons that freedom is so threatening, and the escapes into conformity and authoritarianism.

----- .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New York: Rinehart and Co., 1947. A discussion of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psychoanalytically based humanistic ethic.

----- .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He sets forth his views on the universal human need for religion, Freud's and Jung's views of religion, and the psychoanalysis as physician of the soul.

----- . *The sane Society*. New York: Rinehart and Co., 1955. Examines the pathology of normalcy in our society and the creation of a society in which human needs will be fulfilled

----- .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1956. A popular discussion of the nature and practice of life in a society in which love has disintegrated.

----- .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A depth exploration of the major theories of human destructiveness and presentation of Fromm's conceptions of the various types of aggression.

[G]

Gallagher, J. Rowell, M.D., and Haris, Herbert I. *Emotional Problems of Adolescents*. New York: Oxford Press, 1958. The treatment of problems in the areas of achieving independences, sex, anxiety states, homesickness, psychosomatic diseases,

scholastic failure, and antisocial behavior.

Ginott, Haim G., *Between Parent and Teenag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9. A guide for parents who desire to "stand, withstand and understand" their teenagers; suggests methods of dealing with many problems in these relationships.

Gittelsohn, Ronald B., *Consecrated Unto Me, a Jewish View of Love and Marriage*.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The Marriage relationship from the Jewish perspective.

Glasser, William. *Reality Therapy :A New Approach to Psychiatry*. New York: Harper, 1965.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ality therapy.

-----, *Schools Without Failure*. New York: Harper, 1969. Applies reality therapy principles to improving education.

Gleason, John J., Jr. *Growing Up to God: Eight Steps in Religious Develop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Applies Erikson's stages to religious development.

Goble, Frank. *The Third Force: The Psychology of Abraham Maslow*. New York: Pocket Books, 1971. A systematic overview of Maslow's basic theory.

Goldberg, Herb. *The Hazards of Being Male: Surviving the Myth of Masculine Privilege*. New York: Signet Books, 1977. This "male Libetration" primer ought to be read by single men and male pastor; its chapter on "The Lost Art of Buddyship" is worth the price of the book.

Goldberg, Naomi. *Changing of the Gods, Feminism and the End of Traditional Religions*. Boston:Beacon Press,1976. Chap.5 is a superb critique of Jungian psychology as it relates to religion.

Goldfried, Marvin R. and Davison,Gerald C. *Clinical Behavior Therap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1976.Introduces the reader to behavior therapy, with special attention to relaxation training, systematic desensitization, behavior rehearsal, cognitive restructuring, problem solving, and reinforcement principles.

Goldstein, Kurt. *The Human Organism*. New York :The American Book Co.,1939. An original statement on the unifying and compensating tendencies of the human organism.

Gomez, Joan. *How Not to Die young*. New York:Pocket Books.1973.Shows how your life-style causes your body to obsolesce prematurely.

Gordon, David. *Therapeutic Metaphors*. Cupertino, Calif.:META Publications, 1978. A very readable yet carefully detailed and illustrated explanation of techniques of metaphoric communication.

Gordon, Thomas.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Peter H.Wyden,Inc.1973. An excellent resource to use in teaching listening skills.

Gornick, Vivian, and Moran, Barbara K. *Women in Sexist Society : Studies in Power and Powerlessness*. New York:New American Library,1972.A series of papers exploring the experience of women in a male-dominated world.

Gould, Roger L.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Simon & Schuster,1978. Describes Growthful ways coping with adult life crises.

Graham, Douglas. *Moral Learning and 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Wiley and Sons,1972.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moral learning and development by an English psychologist, with discussion of relevant research.

Grassi, Gary. *Biofeedback Relaxation Training: A 28-Day Cassette Home Training Program*. Scottsdale, Ariz: Health Awareness Training Programs,1978. The best materials i have encountered on teaching relaxation, to be used with a cassette tape recorder.

Greenbalt, Bernard R., *A Doctor's marital Guide for Patients*. Chicago:The Budlong Press,1959. A discussion of sexual adjustment which is useful in premarital and marital counseling.

Green, Bernard L.(ed.), *The Psychotherapies of Marital Disharmony*. New York: The Free Press,1965. Articles on sociological and psychoanalytic concepts of family diagnosis, couple counseling, conjoint family therapy.

Green, Elmer, "Biofeedback for Mind-Body Self-Regulation. Healing and Creativity", in *Biofeedback and Self Control*,1972,David Shapiro,et al.,eds. Chicago:Aldine Publishing Co.,1973.,chap.11. Explores physiological healing and mental creativity as they are illuminated by the findings of biofeedback.

Green, Elmer ,and Green,Alyce. *Beyond Biofeedback*. New

York:Delta, 1977. An exploration of volition, creativity, and a new human self-image as these are illuminated by biofeedback research.

Green, Hannh. *I Never Promised You a Rose Garden*. New York: A Signet book from New American Library,1964. A novel about a sixteen-year-old woman's struggle with mental illness.

Guearney, Bernard G.,Jr.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Jossey-Bass,1977. Describes relationship skills training programs that can be used in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Guest. Judith. *Ordinary People*. New York:Viking Press,1976. A novel that describes the dynamics of one family's relationship and how these affected by the death of one of the members.

Gunther, Bernard. *Sense Relaxation*. New York:Collier,1968. Also *What to Do Till the Messiah Comes*. Collier, 1971. Sensory awakening exercises illustrated by beautiful photos.

[H]

Haley, Jay. *Problem-Solving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6. Gives a clear, organized approach to how to do family therap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use of action imperatives.

Hall, Brain P. *Value clarification as Learning Process* 3 vols. New York: Paulist,1973. Deals with the theory of values clarification and gives many practical exercises on values; suitable for use in Christian education and in counseling.

Halpern, Howard A. "Crisis Theory :A Definitional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9,no4. (Winter,1973):34249. Reformulates crisis in terms of a cognitive model or theory, correlating crisis behaviors with crisis-producing situations and reduced defensiveness on the part of persons in crisis.

Hanna, Thomas A. *I'm OK-You're OK*. New York: Harper ,1969. A popularization of TA, which includes application of its principles to ethics, religion, and organizations.

Hart, J.T., and Tomlison. M.E.eds. *New Directions in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Houghton Mifflin,1970. Major figures in various fields discuss how they have extended Rogers' approach in therapy, education, and research.

Hartmann. Heinz.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s of Adaptation", David Rapaport,ed., in *Organization and Pathology of Though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1951,pp.362-898.A basic statement of Hartmann's perspective.

Harcher, Chris, and Himelestein, Philip, eds. *The Handbook of Gestalt Therapy*. New York:Jason Aronson,1976. Twenty-five chapters on various techniques, and a section on the relation of gestalt therapy to other therapies-TA, bioenergetics, biofeedback, and art therapy.

Hauck, Paul A. *Overcoming Depress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3. A clear, easily read book applying Ellis' rational-emotive therapy concepts to the treatment of depression.

----- . *Reason in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72. An attempt to apply Ellis's

cognitive therapy to pastoral care.

Hebeisen, Ardth. *Peer Program for Youth*.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3. A group interaction plan to develop self-esteem, self-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Heibrun, Caroly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Alfred Knopf, 1973. Androgyny in myth and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 society.

Hillman, James. *Insearch: Psychology and Religion*. New York: Scribner's, 1967. Based on lectures given to ministers on analytical psych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includes a discussion of the feminine grounding of religion.

Hiltner, Seward, ed. *Toward a Theology of Aging*.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1975. Stimulating reflection o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aging.

----- .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ew York: Warner Books, 1964. An illustrated do-it-yourself book on hatha yoga exercises.

Hoffman, John C. *Ethical Confrontation in Counsel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Argues that the nature of the healing process demands both acceptance and ethical confrontation, and appeals for a consistent moral witness in counseling.

Holck, Manfred, Jr. *Making It on a Pastor's Pa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Geared to helping pastors in the

whole area of finances.

Horney, Karen. *Out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W.Norton,1945. An exposition of her major theories, including the three defensive ways of relating and the idealized image.

----- . *Feminine Psychology*. New York: W.W.Norton,1967. A collection of Horney's pioneering papers on the psychology of women and our sexist society.

Howe, Reuel L., *Here in is Love*. Valley Forge,Pa.: Judson Press,1961. A study of the biblical doctrine of love in its bearing on relationships.

----- . *The Creative Years*. New York:Seabury Press,1963. An exploration of the nature, purpose, barriers, and fruits of genuine communication.

Hoyt, Murray. *Creative Retirement: Planning the Best Years Yet*. Charlotte, Vermont:Garden Way Publishing,1974. A chatty, helpful look at some styles of retirement.

Hudson, Lofton. *Marital Counseling*.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1963. Techniques and methods of marriage counseling.

Hunter, Archibald M. *The Parables Then and Now*.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A popular but scholarly interpretation of Jesus' parables; usable for teaching youth.

Hyatt, I. Ralph. *Before You Marry Again*.New York : Random

House,1978. The "Do-it- Yourself Unraveling" exercises for divorced men and women are especially helpful for persons prone to remarry quickly.

[I]

Illich, Ivan. *Medical Nemesis*. New York:Pantheon Books,1976. Gives evidence that some aspects of the medical establishment have become a threat to health.

[J]

Jackson. Edgar N. *Coping with the Crises in Your Life*. New York:Hawthorn Books,1974. Written for the general public, it deals with both developmental and situational crises.

James, Muriel. *Born to Love:TA in the Church*. Reading, Mass:Addison-Wesley,1973. A discussion of using TA principles in the church including their relevance to theology.

-----, et al. *Techniques in Transactional Analysis for Psychotherapists and Counselors*. Reading, Mass.: Addison-Wesley,1977. Forty-three papers on the philosophy, principles, methods, and applications of TA, and the relatio of TA to other therapies.

James, Muriel,and Jongeward,Dorothy. *Born to Win*.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1973. A self-help book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o understand personality.

James, Muriel, and Savary,Lous M. *A New Self*. Reading, Mass:Addison-Wesley,1977. A valuable self-help book using TA.

----- . *The Power at the Bottom of the Well:TA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Harper,1974. Explores the

spiritual self seen as the power and the integrative center of the three ego states.

Jay E.Adams. *The War Within Jay Adams*, Christian counselor and bestselling author, describes the persona; conflict with sin that rages within every true believer. Then with skill and understanding he exposes the enemy's principal tactics and spells out a clear biblical strategy for overcoming sin.

Jay Adams, *The Biblical View of Self-Esteem*, The powerful and influential humanistic message has subtly permeated the church under the guise of "self-worth", and "self-love". Dr. Jay Adama, renowned biblical counselor and notes author, evaluates the self-esteem movement and offers a truly biblical view of self.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02. This classic continues to be a point of departure for both theology and psychology, and hence, indirectly, for pastoral care.

John Haggai, Be careful what you call impossible, In the entertaining and practical book, John Haggai is out to make "impossible" an obsolete word. For the millions of Americans facing anxiety, an unhappy marriage, a career collapse, loss of a loved one, or any other :impossible: situation, there is a way out, Haggai insists. A self-test for readers is followed by the three secrets of overcoming the impossible which Haggai calls the TOP principles.

Johnson, Dean, *Marriage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1. Techniques and methods of marriage counseling.

Jones. Ernest, *The Life and Work of Sigmund Freud*. New York:Basic Books,1953,1955,1957. The standard biography of Freud in three volumes, vol.3.includes a historical review of Freud's thought on a variety of topics.

Jongeward, Dorothy. *Everybody Wins: TA Applied to Organiza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1976. Relates TA to understanding and changing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 and Scott,Dru. *Women as Winners: TA for Personal Growth*. Reading-Mass.: Addison-Wesley,1971. Uses TA and gestalt methods to help women create a new, positive identify.

Jourard, Sidney M.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N.J.:D.Van Nostrand, 1961.Insight edition. Includes a discussion of the importance of openness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Jung, Carl G. *Psychology and Religion*.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1938. Jung's depth0psychological appreciation for theological ideas, enjoying a renewed hearing, is influencing the contemporary spiritual quest.

----- . *Memories, Dreams and Reflections*. New York:Random House,1961. Jung's powerful, candid autobiography provides an excellent introduction to his major ideas.

----- . *Collected Works of C.G.Jung*, ed. H. Read, M. Fordham, G. Ad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antheon Books,1953-67. Includes almost all of Jung's writings.

----- .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1933. Discusses the Nature of Spiritual needs and how they are frustrated in the modern world.

[K]

Kalish, Richard A.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lmont,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5. Readable presentation of basic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data.

Kantor, David, and Lehr, William. *Inside the Family, Toward a Theory of Process*.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5. Report what trained observers discovered about how family systems actually function.

Kaplan, Helen Singer. *The Illustrated Manual of Sex Therapy*. New York: The New York Times Book Co., 1975. A manual on sex therapy illustrated with drawings of couples.

----- . *The New Sex Therapy: Active Treatment of Sexual Dysfunction*. New York: Brunner/Mazel, 1974. A book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Kaplan's sex therapy, integrating methods from learning theory, dynamic psychotherapy, and marital therapy.

Kaslow, Florence Whiteman et al.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Staff Training in the Helping Profess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A comprehensive guide to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staff training from the fields of psychiatry, psychology, sociology,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nd social work.

Keck, L. Robert. *The Spirit of Synergy*. Nashville:

Abingdon,1978. Holistic approaches to religion and health, emphasizing "meditative prayer".

Kelman, Harold. *Helping People: Karen Horney's Psychoanalytic Approach*. New York:Science House,1971. A systematic presentation of Horney's therapeutic concepts and methods;beings with two biographical chapters.

Kell, Bill L.,and Burow,Josephine M. *Developmental Counseling and Therapy*. Boston:Houghton Mifflin Co.,1970. A personalized account of multiple processes in individual counseling with youth; accent upon interpersonal relations.

Kelsey, Morton. *The Other Side of Silence*. New York:Paulist Press,1976. A guide to Christian meditation.

Kleinman, Martin J.; and the Atcom Staff. *Burn-Out:Atcom Special Report*. New York:Atcom,inc.,1974. Pamphlet that discusses burn-out and offers suggestions for prevention.

Kennedy, Eugene. *Crisis Counseling*. New York:Continuum,1981. This encyclopedic primer in crisis theory and methodology, written for the nonprofessional counselor, is neither pedantic nor boring.

Klemer, Richard H.(ed.), *Counseling in Marital and Sexual Problems*, A Physicians Handbook;Baltimore:The Williams and Wilkinss Co.,1964. A symposium covering a wide range of marital and sexual problems, by leading authorities in the field; includes sections on premarital counseling; counseling on parent-child problems; counseling with the widowed,divorced and unmarried; counseling with alcoholics and their families;counseling with

infertility problems; counseling with cases of sexual incompatibility; extra-marital pregnancies and marital infidelity.

Klemer, Richard H. and Margaret G., "Sexual Adjustment in Marriage", *Public Affairs Pamphlet* No.397, Public Affairs Committee, New York, 1966. A brief discussion of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sex in marriage.

Kirkendall, Lester A., *Premarital Intercours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Julian Press, 1961. A research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case histories of 668 premarital intercourse experiences of 200 college males.

Kirkpatrick, Clifford, *The Family as Process and Institu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1963, second edition. A sociological study of the nature, origins, social changes, life cycle, crises and reorganization of the family.

Knox, David, Dr. Knox's *Marital Exercise Book*. New York: David McKay, 1975. A do-it-yourself guide for couples using behavior methods to resolve problems in such areas as communication, sex, alcohol, friends, parents, children, and money.

-----, *Marriage Happiness, A Behavioral Approach to Counseling*. Champaign, Ill.: Research Press, 1971. A valuable application of behavioral techniques to marriage counseling and therapy.

Knight, James A. *Conscience and Guilt*.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8. Covers the more pathological dimensions of the use of money, from a Freudian perspective.

Krantzer, Mel. *Creative Divorce: A New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New York: M. Evans and Company, Inc., 1975. A self-help book that offers a positive program for accepting divorce as a solution rather than a punishment and helps people put the past to rest and reach out for healthier relationships.

Krumboltz, John D. and Krumboltz, Helen B. *Changing Children's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An excellent work on child rearing, using many examples to underline the techniques described.

Ku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74. A sensitive presentation of the stages of dying.

[L]

Lange, Arthur J., and Jakubowski, Patricia. *Responsible Assertive Behavior*. Champaign, Ill.: Research Press, 1976. Cognitive and behavioral procedures for trainers planning and dealing with assertion groups.

Lanyon, Richard I. and Lanyon, Barbara P. *Behavior Therapy: A Clinical Introduc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8. An excellent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Lappe, Frances Moore. *Diet for a Small Planet*. New York: Ballantine, 1975. Critiques our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from both personal and planetary health perspectives. Gives suggestions and recipes for living healthier, over on the food chain.

Larson, Roland, and Lorson, Doris. *Values and Faith*. Minneapolis: Wilston, 1976. Contains exercises in values clarification.

for church groups and families.

Lasswell, Marcia; and Lobsenz, Norman M. *Styles of Loving: Why You Love the Way You Do*. New York: Doubleday & Co., 1980. This potential "study guide" for a church singles group examines six basic styles of loving and their implication.

Layden, Milton. *Escaping the Hostility Tra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A Popular approach to eliminating hostil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 by reducing inferiority feelings and raising self-esteem.

Lazarus, Richard S.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66. A ponderous but valuable volum which details a cognitivist view of stress; discusses primary and secondary appraisal of perceived threat.

Leas, Speed, and Kittlaus, Paul.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Two social action specialists focus 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facilitate social change, using pastoral counseling insights.

Lederer, William J., and Jackson, Don D. *The Marriages of Marriage*. New York: Norton, 1968. A guide to making marriage work by improving the contract.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eper & Row, 1963. The last section of this book gives a theological and historical treatment of the question of conscience.

Leitenberg, Harold, ed. *Handbook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Behavior Therap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6. A

problem-oriented behavior therapy book that describes treatment for such problems as depression, overeating, marital difficulties, alcoholism, and sexual disorders.

Leonard, George. *The Ultimate Athlete*. New York:Viking Press,1974.. Explores the celebration of physical fitness and suggests new health-enabling forms of exercise.

Leslie, Robert C. *Sharing Groups in the Church*. Nashville:Abingdon Press, 1971. An account of the place and variety of groups in the life of the church;illustrated from leadership experience.

Lessor, Richard, and Acton, Clare C. *Love, Marriage and Trading Stamps: A TA and Gestalt Approach to Marriage*. Chicago:Argus Communications,1971. TA and gestalt therapy methods for use by couples to improve their marriages.

Levinson, Daniel J.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lfred A. Knopf,1978. A substantive rendering of the sequential tasks of the adult lie cycle.

Levis, Donald J., ed. *Learning Approaches to Therapeutic Behavior Change*. Chicago:Aldine,1970. A series of papers exploring the history, principles, and theory of behavioral therapy.

Levy, John, and Monroe, Ruth. *The Happy Family*. New York:Alfred A.Knopf,1956. A study of the factors which contribute to happiness in family relationships.

Lewin, S.A., and Gillmore, Josh. *Sex without Fear*. New York:

Medical Research Press,1950. A discussion of the physical of the reproductive system, the art of intercourse, pregnancy, menopause, etc.

Little, Sara. *Youth, World and Church*. Richmond, Va.: John Knox Press,1968. A comprehensive account of a balanced ministry to and with youth;generously illustrated from experimental programs.

London, Perry. *The Modes and Morals of Psychotherapy*.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1964. Contrasts insight and action types of therapy, and describes the approaches of some of the major behavioral therapies.

Lowen, Alexander. *The Betrayer of the Body*. New York: Collier Macmillan,1967. A discussion of bioenergetics'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body problems and methods of reclaiming the body.

----- . *The Language of the Body*. New York:Macmillan, 1971. An introduction to the key concepts of bioenergetics.

----- . "Sexuality, Sex and Human Potential", in *Human Potentialities, the Challenge and the Promise*, Herbert Otto,ed. St.Louis:Warren H. Green,1968,chap.10. Discusses the bioenergetic understanding of sexuality as this relates to human potentializing.

Luthman, Shirley G., and Kirschenbaum, Martin. *The Dynamic Family*.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1974. A thoroughly growth-oriented approach to family therapy,derived in part from Virginia Satir's approach.

[M]

Mace, David and Vera. *We Can Have Better Marriage-If We Really Want Them*. Nashville: Abingdon,1974. A guide to marriage enrichment and ACME(Association of Couples for Marriage Enrichment).

MacLennan, Beryce W.,and Felsenfeld,Naomi.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s*.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1968. An interpretation of the peer culture and the function of the group as change agent;group leadership and its training; counseling in the areas of boy-girl relations and sex, management of feelings, peer group and the law, relationship to adults and other authority figures, and career choices.

Magalies, Elaine. *Conduct Becoming a Woman*. Cincinnati:United Methodist Church Service Center,7820 Reading Road(1973). The struggle of women for autonomy in the Methodist church.

Malcomson, William L. *Success Is a Failure Experience, Male Liberation and the American Myth of Success*. Nashville:Abingdon,1976. Explores the bondage of the male success myth and ways of breaking free.

Margolius, Sidney. *Your Personal Guide to Successful Retirement*. New York:Random House,Inc., 1979. Six steps to successful retirement, with special attention to such matters as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annuities.

Mash, Eric J.;Handy, Lee C.;and Hamerlynck,Leo A. *Behavior Modification Approaches to Parenting*. New York :Brunner /Mazel,1976. The uses of behavioral methods in training parent.

Maslow, Abraham 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Viking Press,1971. Explores health and pathology,creativeness,values,education,and transcendence.

----- . *Religions,Values and Peak Experience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1964. Discusses transcendental experiences,the split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hope and values in education.

----- .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D. Van Nostrand Co.,1962. A thoughtful and thoroughgoing statement on the psychology of personal growth.

Mayeroff, Milton. *On Caring*. New York:Harper & Row,1973. The best available book on caring and on the nature of loving relationships which free people to both give and receive support and affection in rewarding relationships.

May, Rollo et al.,eds. *Existence, A New Dimension in Psychiatry and Psychology*. New York:Basic Books,1958. A collection of papers on existential psychotherapy by May,H.F. Ellenberger, Ludwig Binswanger,et al.

May Rollo.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W.W.Norton,1953. Applies the learnings from existential therapy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human predicament and rediscover their selfhood.

----- . *Psychology and the Human Dilemma*. Princeton: Van Nostrand,1967. Excellent resource for spouses of alcoholics that explains how the alcoholic views the world and tells what practical things must be done to bring the alcoholic to treatment and recovery.

May, Rollo, *Love and Will*. New York:W.W.Norton,1969. A study of the myths and symbols of sex and love, as these relate to the overcoming of alien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lationships that are more alive and dynamic.

May, Rollo, *Love and Will*. New York:W.W.Norton,1969. A study of the myths and symbols of sex and love, as these relate to the overcoming of alien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lationships that are more alive and dynamic.

May, Rollo. *Power and Innocence*. New York:W.W.Norton & Co., 1972.An existent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human aggression, power, and hostility. A significant viewpoint for pastoral care.

Mace, David, *Success in Marriage*. Nashville:Abingdon Press,1958. An introductory book for couples on the principles,adjustments and problems of a successful marriage.

MaCamy, John,and Presley,James. *Human Life Styling:Keeping Whole in the 20th Century*. New York:Harper & Row,1975. Includes a nutritional guide and a chapter on environmental wholeness.

McGinnis, Tom. *Your First Year of Marriage*. New York:Doubleday,1967. A practical guide for premarrieds and early marrieds.

McHugh, Geiolo, *Marriage Counselor's Manual and Teacher's Handbook for Use with the Sex Knowledge Inventory* (Form X Revised). Durham, N.CI:Family Life Publication,1968. A manual for

use with the SKI, an instrument for premarital and marital counseling on sexual problems.

McNeill, John T.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ew York: Harper and Bros., 1954. This story of pastoral care from ancient Israel to modern times reminds us of much that we are likely to forge in our orientation to contemporary psychology.

Menninger, Karl,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 1975. A vigorous critique by a distinguished psychiatrist of current attitudes towards "sin", and of current social practices.

Miers, Earl Scheck. *The Trouble Bush*. New York: Rand McNally Co., 1966. A classic autobiography by an historian and English teacher who has published fifty other books as well, felicitous in language and solid in concept.

Miller, Donald E. *The Wing-Footed Wanderer: Conscience and Transcendence*. Nashville: Abingdon, 1977. Draws together psychological,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in discussing the nature of conscience and the processes of moral development.

Miller, Jean Baker, ed. *Psychoanalysis and Women: Contributions to New Theory and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973. A collection of papers by persons challenging, correcting, and enriching the traditional male defined psychology of women.

-----,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 1976. A groundbreaking book that sets forth a new understanding of women!

Minuchin, Salvador.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An introduction to structural family therapy, an approach that seeks to change the organization of the family.

Missilldine, Hugh,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3. A discussion of the child side that is in everyone and how to take care of it.

Mooney, Thomas O., Theodore M. Cole, and Richard Chigren. *Sexual Options for Paraplegics and Quadrapleg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5. A frank and practical presentation of sexuality and sexual techniques for handicapped persons.

Moore, Allen J., *The Adult Generatio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1. A book for helping young adults understand themselves and for helping the older generation understand them.

Mount, Eric.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Richmond: John Knox, 1969.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that links conscience with community and interprets it as the call to social responsibility.

Moustakas, Clark E. *Lonelin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1. This excellent counseling aid challenges the person blocking catharsis and the person living alone to make peace, with solitude.

Mowrer, O. Hobart, ed. *Morality and Mental Health*. Chicago: Rand McNally & Co., 1967. A collection of articles that raise a wide range of moral issues in psychiatry, therapy, and pastoral

care.

Mudd, Emily H., et al. (eds), *Marriage Counseling, a Casebook*. New York:Association Press,1958. Forty-one cases by member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Counselors.

Mudd, Emily H., and Kirch,Aaron, *Man and Wife*. New York:W.W.Norton,1957.Seventeen authorities explore problems in marriage.

Mudd, Emily H.:Mitchell,Howard E., Taubin,Sara B.,*Success in Family Living*. New York:Association Press,1965.An analysis of factors which contribute to successful functioning of one hundred"normal"families.

Mullahy, Patrick,ed. *The Contributions of Harry Stack Sulliva*. New York:Science House,1967. A symposium on interpersonal theory in social science and psychiatry, including papers by Clara Thompson and Gardner Murphy.

[N]

Nash, W.W., et al., *Marriage Counseling in Medical Practic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1957.Aimed at physicians but useful for persons in the other helping professions as a discussion of the physical, and interpersonal emotional factors in marriage counseling.

Nelson, C. Ellis, ed. *Conscience: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Newman,1973. A collection of twenty-two articles on the nature of conscience from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lson, James B. *Embodiment: An Approach to Sexuality and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9.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xuality issues are both carefully set within a biblical theological context in this scholarly and sensitive but highly readable treatise in theological ethics.

Neugarten, Bernice L., 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A valuable collection of essays for persons who want to read only one book.

Neumann, Erich. *The Great Mother: An Analysis of the Archety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A superb study of the "feminine" in the myth, art, and history of many cultures and its implications from the Jungian point of view for the wholeness of humankind.

Nichols, Jack. *Men's Liberation, A New Definition of Masculinity*. New York: Penguin Books, 1975. Discusses the need for men to be liberated and shows how the lives of both sexes can be enriched when this happens.

Nouwen, Henri J.M., and Gaffney, Walter J.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Garden City, New York: Image Books, 1976. A sensitive, poetic expression of aging and ministry.

Nye, Robert. *Conflict Among Huma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73. One of the best textbook surveys of the behavioral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n human relation.

[O]

Oates, Wayne 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in Grief and Separation*. Philadelphia:Fortress Press,1976. This earlier volume in th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regards loss by death as the prototype of other significant losses and includes valuable discussion of divorce bereavement.

----- . *Pastoral Care in Crucial Human Situations*. Valley Forge,Pa.:Judson Press,1969. A helpful book which deals with such crucial concerns as mentally retarded children, chronically ill persons, and children with cancer.

----- . *Protestant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62. Derives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storal counseling from the Protestant pastoral heritage.

Oden, Thomas C. *Game Free:The Meaning of Intimacy*. New York:Harper,1974. A theological discussion and critique of TA.

Oden, Thomas C. *Kerygma and Counseling*.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66. Brings together Barth's doctrine of God's self-disclosure and the Rogerian therapy of human self-disclosure.

----- . *Contemporary Theology and Psychotherapy*.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1967. A critical discussion of Tillich,Thurneysen,and Hiltner,and a continuing dialogue with psychotherapy based on Bonhoeffer, Teilhard,and Bultmann.

Otto, Herbert A.,ed. *Human Potentialities: The Challenge and the Promise*. St. Louis:Warren H. Green,1968. A collection of papers by gardner Murphy,Abraham Maslow,Charlotte Buhler,Clark Moustakas,Alexander Lowen,Herbert Otto,and others exploring

human potentialities.

----- and Mann, John, eds. *The Ways of Growth: Approaches to Expanding Awareness*. New York: Viking Press, 1968. A collection of nineteen papers describing a wide variety of methods for facilitating growth.

Otto, Hervert,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New Perspectives and Programs*.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A practical volume with numerous descriptions of actual enrichment programs.

Otto, Herbert. *More Joy in Your Marriage*. New York: Hawthorn, 1969. Methods of developing your marriage potential.

Oulter, Albert C. *Psychotherapy and the Christian Message*. New York: Harper and Bros., 1954. A study of four areas of human life in which psychotherapy and Christian thought both have a stake, recognizing deep differences but calling for cooperation.

[p]

Parad, Howard J., ed. *Crisis Intervention: Selected Reading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65. Twenty-nine chapters of varying quality, two of the more valuable being Lindemann's classic article on grief and Hill's chapter on crisis in the family.

Parad, Howard J., ed. *Ego Psychology and Dynamic Casework*. New York: Family Service Assen. of America, 1958. A series of papers on th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ego psychology in working with various types of clients.

Patterson, Gerald R. and Gullion, M. Elizabeth. *Living With*

*Children*. Champaign,. Research Press Co., 1971;and Patterson, Gerald R. *Families*. Champaign, .:Research Press Co., 1974. These two books,simply written,give parents practical ways of using behavior therapy methods in handing their children.

Pattison, E.Mansell. *Pastor and Parish-A Systems Approach to Prevention of Stress Disorders*. New York:Delacorte Press/Seymour Lawrence,1977. Integrates literature on the body's response to stress and offers various techniques for stress reduction.

Perl,Harriet, and Abarbanell,Gay,coordinators. *Guideliness to Feminist Consciousness Raising*. Prepared for the National Task Force on CR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published by the coorinators in Los Angeles in 1975. A how to manual on the philosophy, ground rules, and leadership for consciousness raising groups.

Perls, Frederick S. *Ego,Hunger and Aggression*. New York:Random House,1947. Explains the theory of gestalt therapy as it developed from psychoanalysis and gestalt psychology.

----- . *The Gestalt Approach: Eyewitness to Therapy*. Ben Lomond,Calif.:Science and Behavior Books,1973. The manuscript on which Perls was working when he died. A rheoretical exposition of gestalt therapy and a transcript of a series of filmed therapy sessions with Perls as therapist.

----- . *Gestalt Therapy Verbatim*. Lafayette. Calif.:Real People Press,1969.A discussion of the principles of GT,including transcripts of several sessions.

----- . *In and Out the Garbage Pail*. Lafayette, Calif.: Real People Press, 1969. Peris' candid, humorous, anecdotal autobiography. Communicates the flavor of his colorful personality. Describes the beginnings and development of GT.

Perrin, Norman. *Rediscovering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Harper & Row, 1967. A scholarly work on establishing the authentic teaching of Jesus: an important resource for Bible study.

Peterson, James A., *Married Love in the Middle Yea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8. A book on the crisis of the mid-years and how to make the most of marriage in maturity.

----- . *Toward a Successful Marriag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Discusses choosing a mate, courtship, the engagement, setting the pattern of a marriage, money, sexual relations, children, and marriage during the last half of life.

Phelps, Stanlee, and Austin, Nancy. *The Assertive Woman*. San Luis Obispo, Calif.: Impact, 1975. Besides excellent discussion and practical guides on assertiveness training, there are listed here a number of good exercises for getting in touch with and expressing anger and other strong feelings. Lots of good material for consciousness raising as well.

Pierce, Claude A. *Conscience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1955. A study of the meanings of the term "conscience" i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

Polster, Erving, and Polster, Miriam. *Gestalt Therapy Integrated: Contours of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runner/Mazel, 1973. An exploration of key concepts of GT.

Porter, Sylvia. *The Money Book*. New York:Avon Books,1975. A comprehensive guide to every phase of money management.

Pretzel, Paul W. "An Introduction to Crisis Counseling :Making the Best Use of the Dangerous Opportunity". *Research and Pupil Personnel Services Newsletter* 7, no. 3(March 13, 1970):Los Angles School System,406. A short,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crisis intervention counseling written for people who are not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orterfield, Austin L., *Marriage and Family Living as Self-Other Fulfillment*. Philadelphia:F.A. Davis Co., 1962.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family life-cycle; love; work; children, social values and family interaction; psychological precesses in family interaction.

Pruyser, Paul.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76. Presents the uniqueness of the pastor's theologic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what a person needs.

[R]

Rainer, Jerome and Julia,*Sexual Adventure in Marriage*. New York:Julian Mesner,1965.Keeping the sexual side of marriage adventurous and lively.

Rank, Otto,*The Trauma of Birth*. New York:Harcourt,Brace,1929. Rank discusses birth both as the origin and prototype of the fundamental dependence autonomy struggle.

----- . *Will Therapy,and Truth and Reality*. New York:Alfred A. Knopf,1945. A description of Rankian therapy.

Raths, L., Harmon, M., and Simon, S. *Values and Teaching*.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1966. A basic introduction to values clarification; includes a variety of exercises and teaching strategies.

Raths, Louis Edward; Harmin, Merrill; and Simon, Sidney B. *Values and Teaching*. Columbus, Ohio: Charles E. Merrill Books, 1966. The theory and method of "values clarification" presented and illustrated from classroom practice.

Reich, Wilhelm. *The Function of the Organism*. New York: Farrar, Strauss & Giroux, 1973. Includes a discussion of bioenergy and character analysis and his therapy.

Retting, Edward B. *ABCs for Parents*. Van Nuys, Calif.: Associates for Behavior Change, 1973. Details methods for using behavior therapy with children.

Reuter, Alan. *Who Says I'm OK? A Christians Use of TA*. St. Louis: Concordia, 1974. A theological-biblical discussion and critique of TA.

Rich, Adrienne.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Bantam Books, 1976. Explores the two meanings of motherhood as a relationship of women to their creative powers, and as a male defined, constricting institution that diminishes both sexes.

Richards, Lawrence O. *Creative Bible Stud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71. A handbook for small group and individual Bible study with emphasis upon the text's meaning for present existence.

Ripple, Paula. *The Pain and the Possibility*. Notre Dame, IN: Ave Maria Press, 1978. Essential reading for divorced Catholics, the book will help all divorced persons with self-affirmation and healing.

Roberts, David E. *Psychotherapy and a Christian View of Man*. New York: Scribner's, 1950. Presents theology and psychotherapy as correlative and supplementary in their view of human beings.

Rogers, Carl. *Client 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Rogers' first formal statement on theories of personality and of therapy. He now sees the statement as too right, but it is still a significant book.

----- .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61. Spells out in a personal way his major concepts.

----- . *Freedom to Learn*. Columbus: Chas. E. Merrill, 1969. Rogers' clearest challenge to educators' he develops the view that most education discourages real learning.

----- .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s*. New York: Harper, 1970. Reports his findings on the process for long-term growthful relationships.

Roods, Wayne R. *On Nurture Christ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A discussion of the educational revolt and the knowledge explosion with implications for nurture in the church.

Rosaldo, Michelle, and Lamphere, Louise.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An anthology of anthropological studies of women in cultures around the world.

The chapter by Nancy Tannet on matrifocality is especially relevant.

Rosengarten, Theodore. *All God's Danger:The Life of Nate Shaw*. New York:Alfred A.Knopt Inc.,1974. This oral history of an illiterate black man in one of the most powerful examples I know of life review reminiscence.

Rothgeb, Carrie L. *Abstracts of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Sigmund Freud*. New York:Jason Aronson,1973. Brief Synopses of all Freud's writing with an introduction to reading Freud by Robert R. Holt.

Rubin, Theodore Issaac. *The Angry Book*. New York:P.F.Colier,1969. A highly readable book on anger and its distortions by an outstanding author and psychiatrist in the psychoanalytic tradition of Karen Horney.

Ruether, Rosemary Radford. *Religion and Sexism*. New York:Simon and Schuster,1974."A glimpse of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of patriarchal religion to feminine imagery and to the actual psychic and social self images of women". The essays in this anthology are uneven in their perceptiveness and impact.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chapter by Patricia Martin Doyle.

Rush, Anne Kent. *Getting Clear:Body Work for Women*. New York:Random House,1973. An outstanding book for help in getting to know oneself physically,psychologically,sexually. Awareness exercises and methods for expressing anger are suggested.

Russell, Letty M.*The Liberating Word*. National Council of Task Forces on Sexism in the Bible. Designed for use as a resource in

churches,colleges,seminaries,study and action groups. It seeks to assist laity, pastors, college and seminary students in relating the changing consciousness of women and men to the ways we interpret the Bible through worship, study, and action.

Rutledgy, Aaron,L., *Premarital Counseling*. Cambridge, Mass :Schenkman Publishing Co.,1966. A discussion of the objectives and methods of premarital counseling.

Sanctuary, Gerald, *Marriage under Stres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1968. A comparative study of marriage counseling in various countries.

Samuels, Mike,and Samuels,Nancy. *Seeing with the Mind's Eye:The History, Techniques, and Uses of Visualization*. New York:Random House,1975.An exceptionally thorough guide to metaphoric mind practices of imagination and visualization.

Sanford, John A. *Healing and Wholeness*. New York:Paulist Press,1977. Metaphoric-mind communication approaches from Jungian and pastoral perspectives.

Sanford, Nevitt. *Self and Society,Social Change and Individual Development*. New York:Atherton Press,1966. Presents a developmental model to help institutions become more growth-enabling.

Satir, Virginia. *Conjoidal Family Therapy*. Palo Alto,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1964. A guide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hercommunication centered approach.

----- . *Peopleniaking*. Palo Alto,Calif.:Science and Behavior

Books,1972.A book to help parents develop more growth nurturing families.

Sawin, Margaret. *Family Enrichment through Family Clusters*.

Valley Forge:Judson Press,1979. Packed with practical descriptions of how to do family enrichment and resource references for leader, by the pioneer of the family clustering movement in the church.

Schaef, Ann Wilson. *Women's Reality: An Emerging Female System in the White Male Society*. Minneapolis: Winston Press,1981. Opens the reader to alternative views of reality and better understanding of women's experiences.

Schiffman, Muriel. *Gestalt Self Therapy*. Menlo Park, Calif.: Self Therapy Press,1971. Techniques for self growth using GT.

Schultz, Johannes H. and Luthc,Wolfgang. *Autogenic Therapy*. Vols.1-3. New York: Grune & Stratton,1969. The originators of autogenic training explain this method of training people in relaxation.

Schutz, William C., *Joy,Expanding Human Awareness*. New York:Grove Press,1967. Describes new awareness techniques which can be used in encounter groups and by couples.

Schurman, Paul C. *Money Problem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Fortress Press,1982. This earlier volume in th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includes useful approaches to counseling adults with respect to financial matters.

Scott, Edward M. *The Adolescent Gap*. Springheld,III.:Charles C.

Thomas.Publishers,1972. Research findings on drug-using and nindrug-using teens;youth tell their own story.

Seifert, Harvey,and Clinebell,Howard. *Personal Growth and Social Chan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74. A guide for minister and persons to help them become change agents.

Selye, Hans.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Skignet,1974. Suggests ways of using stress as challenge and pleasure and avoiding stress as frustration, fear, or anger.

Shealy, C. Norman,90 *Days to Self Health*. New York:E.P. Dutton & Co., Inc., 1976. Views adult development as an ongoing griwth process with predictable crisis points.

Sherrill, Lewis Joseph. *The Struggle for the Soul*. New York:Macmillan,1963. Traces religious development throughlige as the dynamic self encounters God in each stage.

Shostrom, Everett L. *Actualizing Therapy*. San Diego: Edits Publishers,1976. A synthesis of growth concepts and methods from various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Shostrom, Everett L., *Man,the Manipulator*. Nashville:Abingdon Press,1967. Describes the movement from a manipulative life style to actualization.

Shriffrin, Nancy. *Anger,How To Use It*. Canoga Park, Calif.: Major Books,1976. A guidebook to various anger therapies from the various anger therapies from the various streams of psychological theory and therapeutic approaches.

Simon, Sidney B. *Meeting Yourself Halfway*. Niles,III.:

Argus,1974. Contains thirty-one values clarification strategies helpful for daily living.

Simon, Sidney B.;Howe,Leland W.;and Kirschenbaum,Howard. *Values Clarification*. New York:Hart Publishing Co.,1972. A handbook of techniques and exercises for teacher student use.

Simonton, O. Carl,M.D., Matthews Simonton,Stephanie. *Getting Well Again*. Los Angles:J.P.Tarcher,Inc.,distributed by St. Martins Press,1978. A description of how cancer patients can aid their recovery by creating a health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standard medical procedures);an excellent resource on stress.

Singer, June. *Boundaries of the Soul: The Practice of Jung's Psychology*. Garden City,N.Y.: Doubleday,1972. A clear description of Jungian theory and therapy.

Skidmore, Rex,et al., *Marriage Counseling: An Introduction to Marriage Counseling*. New York :Harper & Bros.,1956. The background, aims, importance and methods of marriage counseling.

Smith, Edward W.L., ed. *The Growing Edge of Gestalt Therapy*.New York:Brunner/Mazel,1976. Explores the relation of GT to other therapies-Jungian, Existentialism,Zen,and Taoism.

Smith, Manuel. *When I Say No, I Feel Guilty*. New York:Bantam Books,1975. A creative, funny, and at times outrageous method for outmanipulating manipulatous by use of assertiveness. High on asserting. Low on affirming.

Snyder, Ross. *Inscape, Discovering Personhood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Nashville:Abingdon Press,1968. A poetic book with searching insights about marriage.

Southard, Samuel. *Anger in Love*.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1973. A psychoanalytically oriented pastoral approach to anger, marriage conflict, counseling, and pastoral therapy.

Spectr, Gerald A., and Claiborn,Willam L.,eds. *Crisis Intervention*.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1973. An edited volume including especially valuable articles by Shneidman, Levy,Korner, and Sebolt.

Steensma, Juliana. *The Quality of Mercy*. Richmond: John Knox Press,1969. The helpful story of John Steensma at work in Korea.

Stein, Edward V. *Guilt: Therapy and Therapy*. Philadelphia :Westminster,1968.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nature of guilt and its development, from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and a discussion of the healing that comes from a "religion of love."

Steiner, Claude. *Games Alcoholics Play:An Analysis of Life Scripts*.New York: Grove Press,1972. A discussion of the dynamics of the games alcoholics and those around them play.

----- . *Scripts People Live*. New York: Bantam Books,1974. A discussion of life scripts and how to change them,

Steinman, Anne, and Fox, David J. *The Male Dilemma*. New York:Aronson, 1974. All three of these describe the damage done to men by traditional role stereotyping and the gains for them in

anew relationship between the sexes. The third includes an inventory of "masculine" and "feminie" values useful for helping people get in touch with their own ser-role expectations.

Stenger, Wallace. *The Spectator Bird*. Garden City, New York:Doubleday and Company,Inc,1976. Not many novels are told point of view of a seventy-year-old. This one details a therapeutic experience of shared reminiscence,as well as day-today coping with being old.

Stephenson, Geoffrey M: *The Development of Conscience*. New York:Humanities,1966. The report of an English study of psychopathic youths and its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conscience.

Stevens, John O. *Awareness :Exploring, Experimenting, Experiencing*. Lafayette, Calif.: Real People Press,1971. Awareness and communication exercises focusing on inner communication, fantasy journeys, pair communication, art, and movement,

Stewart, Charles W., *The Minister as Marriage Counselor*. Nashville: Abingdon Press,1961. Discusses premarital counseling, marriage counseling, divorce and post-divorce counseling, family counseling, and family-life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Stone, Howard W. *Crisis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76.Chapter 2describes crisis in cognitive behavioral terms, and chapter 3 has a fairly detailed description of problem-solving methods.

-----*Suicide and Grief*.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72.

Although focusing mainly on the grief co-curring after a suicide, it discusses crisis intervention and the management of a person who is threatening suicide.

Strickler, Martin and La Sor,Betsy. " The Concept of Loss in Crisis Intervention." *Mental Hygiene* 54,No2. (April,1970) :301-5.Believing loss id basic in all crisis situations, the authors examine three fundamental adult losses: self-esteem, sexual role mastery,and nurturing.

Strommen, Merton P. *Five Crisis of Youth*. New York:Harper & Row,1974. An interpretation of adolescence based upon an ecumenical study of church youth.

Strouse, Jean,*Women and Analysis*. New York:Gross-man,1974. Critiques of essays by the "great fathers and mothers" of psychology by contemporary feminists.

Stroup, Herbert W., Jr., and Wood, Norma S. *Sexuality and the Counseling Pastor*. Philadelphia:Fortress, 1974. Relates the biblical tradition and contemporary social attitudes to counseling on sexual and changing role problems.

Stuart, Richard B.,and Davis,Barbars. *Slim Chance in a Fat World*. Champaign,III:Research Press,1972. A behavioral approach to overcoming obesity.

Sullivan, Harry Stack. *Collected Works*,2 vols. New York:W.W. Norton,1965.

----- .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W.W. Norton,1953. Sullivan's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

epochs.

-----.. *The Psychiatric Interview*. New York : W.W.Norton, 1954. Describes the structuring and process of psychiatric interviews.

-----..*Schizophrenia as a Human Process*. New York:W.W.Norton,1965. Sullivan's insightful exploration of schizophrenia.

Swidler, Arlene. *Sistercelebrations:Nine Worship Experiences*. Philadelphia:Fortress Press,1974. Both of these book make a number of suggestions and supply some actual worship services aimed toward making church language and liturgy more inclusive from the stand-point of women. Unfortunately neither goes quite far enough in challenging the inherent maleness of "Father" and "Lord" in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Otherwise the practical guidelines are excellent and the descriptions of the feelings of women outstanding.

Switzer, David K. *The Minister as Crisis Counselor*. New York:Abingdon Press,1974. An excellent volume covering all aspects of a pastor's intervention in the crisis of his parishioners.

[T]

Taplin, Julian R. "Crisis Theory: Critique and Reformul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7,no.1(1971):13-23. A food attempt at reformulating crisis theory in less psychoanalytic constructs; presents eight basic facets of a crisis.

Taylor, Donald L., *Marriage Counseling,New Dimensions in the Art of Helping People*.Springfld,Illionis:Charles C. Thomas,1965.

Discusses the nature, goals, philosophy and methods of marriage counseling; and such topics as communication, feelings, and the nature of a loving relationship.

Thal, Helen, and Holcombe, Melinda. *Your Family and Its Money*, revised e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3. Especially addresses to teenagers for use in highschool curricula, deals with values as well as practical skills. The Curatorium of the C.G. Jung Institute, Conscienc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A series of articles on the concept of conscience by Jungian scholars, with one by Jung himself.

Thornton, Edward E. *Theology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Combines theological reflection about human being with clinical rejection about theology.

Thurneysen, Eduard. *A Theology of Pastoral Care*. Richmond: John Knox Press, 1962. A pastoral theologian closely associated with Barth develops the principles of pastoral care from biblical rather than psychological sources.

Tillich, Paul.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A brief classic treatment of the nature of love, power, and their balanced integrity in justice.

Tillich, Paul. *Morality and Beyond*. New York: Harper & Row, 1963. Explores the nature of conscience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and presents the concept of "the transmoral conscience."

----- . *The Courage to B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52. A classic from one of the most creative and

constructive theologians of modern times.

Tournier, Paul. *Guilt and Grave*. New York: Harper & Row, 1962. Discusses both true and false guilt, with frequent reference to both biblical and clinical material.

----- . *The Meaning of persons*. New York: Harper and Bros., 1957. One of the series of widely read books in which a physician integrates his psychiatric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 . *To Understand Each Other*.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7. A beautiful book filled with understanding of the marital relationship.

[U]

Ulanov, Ann, and Ulanov, Barry. *Religion and the Unconsciou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Discusses the function of religion in the human psyche ; mythology and theology and religious experience; suffering and salvation from a Jungian perspective.

[V]

Viscott, David. *Ris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8. Singles who tend to "play it safe" will learn her the value of risking in order to grow, love, change, or decide.

[W]

Wahroos, Sven. *Family Communication*, New York: Signet Books, 1974. Twenty rules to improve communications and make your relationships more loving, supportive, and enriching for emotional health in the family.

Walker, Turnley. *Rise Up and Walk*. New York :E.P.Dutton, 1950.  
 "Polio id always os unexpected"

Wallace, Marjorie, and Michael Robson. *On Giant's Shoulders*.  
 London:Times Bools,1976. The fascinating story of Terry Wiles,  
 one of the most severly handicapped of the "thelidomide babies."

Watzlawick, Paul. *The Language of Change*. New York:Basic  
 Books,1978. Valuable introduction to metaphoric-mind  
 communi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to psychotherapy.

Watzlawick, Paul; Weakland,KJ.H.; and Frisch, Richard.  
*Change: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W.W.Norton,1974. A creative approach to  
 problem-solving.

Weiss, Robert S. *Going it Alone: The Family Life and Social  
 situation of the Single Parent*. New York:Basic Books,1979. This is  
 the best book available on single parenting.

Weisstein, Naomi. "Psychology Constructs the Female", in  
 Gornick and Moran, *Woman in Sexist Society*,chap 8. An overview  
 of the blindness of male-oriented psychology to the discovery of  
 the potentials of women.

Westberg, Granger E. *Good Grief*. Philadelphia:Fortress  
 Press,1962. This short, simple, forthright, and constructive book  
 makes a handout for new singles, especially if singlehood has  
 been unanticipated.

Wheelis, Allen. *The Quest for Identity*. New York: W.W. Norton  
 & Co.,1958. A psychiatrist's use of narrative to illuminate the

theory of identity formation.

White, John, ed. *Frontiers of Consciousness*. New York:Avon Books,1975. Includes two papers on biofeedback as well as two on meditation research.

Whitlock, Glenn E. *Preventive Psychology and the Church*.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1973. The third part of this book on preventative pastoral care discusses the pastor's use of crisis invention.

Whitlock, Glenn E. *The Making of a Minist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8. A study of ministerial candidates-their motivation, families, background, and personalities.

Wilke. Harold H. *Strengthened with M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52. Agne statement full of repeatable quotations by a remarkable person.

Williams, Daniel Day. *The Minister and the Care of Souls*. New York: Harper & Row,1961. A theologian rejects concretely and practically on the role and opportunities of the pastor.

Willims. Elizabeth Friar. *Notes of a Feminist Therapist*. New York:Praeger, 1976. Describes feminist therapy and presents feminist issues as rejected in the lives of women in therapy.

Wink, Walter. *The Bible in Human Transformation*. Philadelphia:Fortress Press,1973. A critique of the historical method of biblical interpretation; proposed sociological and psychoanalytic models of interpretation.

Winter, Gibson, *Love and Conflict: New Patterns of Famil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 Dolphin Book, 1958. Discusses the relationship of love and conflict in marriage and the changes in family life due to the shifts in male-female roles.

Wise, Carroll A.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New York: Harper & Row, 1966. A very readable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storal care.

Wolpe, Joseph; Salter, Andrew; and Reyna, L.J. *The Conditioning Therapi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Describes the challenge of various conditioning therapies to psychoanalysis.

Wright, Derrick. *The Psychology of Moral Behavior*. London: Penguin, 1976.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psychological approaches to moral behavior,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Wyckoff, Hogie, ed. *Love, Therapy and Politics, Issues in Radical Therapy*. New York: Grove Press, 1976. Twenty articles from the journal *Radical Therapy*.

Wynn, J.C., *Pastoral Ministry to Famili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An overview of the many opportunities of the clergyman to enrich family life.

Wyse, Lois, *Love Poems for the Very Married*. Cleveland: World Publishing Co., 1967. Tender, sensitive poems about married life.

[Y]

Yalom, Irvin D.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2d ed. New York: Basic Books, Inc., 1975. An excellent basic text on group dynamics.

Yates, Aubrey J. *Behavior Therapy*. New York:Wiley,1970. Describes the application of behavioral methods to a wide variety of human problems.

[Z]

Zimbardo, Philip G. *Shyness:What It Is, What to Do About It*. Reading,MA: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7. Singles who have trouble with shyness and the pastors who counsel them, would do well to read this degnitive work on shyness.

Zinker, Joseph.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ew York:Brunner Mazel,1977. Shows how to therapist is really an artist.

Pastoral Care에 관한 주제(Issue)는 너무나 많아 책한 권에 다 쓰기가 힘들다. 주제만 나열해도 수십 페이지는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Pastoral care에 해당되는 문제점들 몇 가지만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고, 차후에 다시 쓰게될 때 주제별로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본서에 넣은 노인 목회(Aging Ministry)만 하더라도 책 한권은 충분히 쓰고 남을 주제이다. 그러나 그 주제에만 집중할 수 없었으므로 간략 간략하게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는 형식을 띄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Pastoral care가 신학교나 목회 분야에 완전히 정착되어 유용하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느낌으로 한국의 신학교나 목회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주제라고 간주되어 소개 삼아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서구(특히 북미)에서, 교실에서만 하는 신학 교육이 현장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약점이 많아 그 점을 보완하자는 시도

에서 Pastoral care가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취약점을 오랫동안 가져왔으며 또 고민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이런 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Pastoral Care와 더불어 C. P. 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 목회 실습)도 이제 도입되는 과정 같으므로 거기에 따른 제반 내용들이 점차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캐나다의 McMaster 신학대학원과 토론토 대학에서 Pastoral Care를 공부하며 또 두개의 C. P. E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갖지 못했던 도전을 받았고, 또한 그런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 책은 필자의 경험 50% 정도와, 학문적 이론 40%, 그리고 기타 내용 10%정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거의가 필자의 경험을 거친 내용들(Experimental learning)이라고 여겨진다.



## 서병채 (저자)

성결대학교 (B.A)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M.Div)

감리교신학대학원 (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Foundation (Ph.D)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postdoc., 2006)

영국 Oxford University (Wycliffe, postdoc., 2012)

영국 Cambridge University (ICE, 2018)

나가랜드 PACE신학교 설립총장 (2015-2020)

케냐 학교법인 Blue Nile Melvin 이사 (2021-)

케냐 멜빈대학교 설립총장 (2021-)

## 역/저서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평신도목회의 극대화

목회에서 동역자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

뒷문을 다시열라

평신도목회의 개념과 신학

구비시키는 교회

평신도목회 실천론

Me to We

독특한 교회

Pastoral Care

창조적인 삶

미래교회와 패러다임